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정책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이상아·최상미·김소형·고은새·설소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연구책임자】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김소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고은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설소희 동국대학교 성인학습디자인센터 학사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CONTENTS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적	5
3. 연구내용 및 방법	6
II.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정책 현황	9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원 정책 내용	11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현황	15
III. 사업효과성 양적 평가	25
1.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27
2.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58
IV. 사업효과성 질적 평가	107
1. 참여자 FGI 결과	109
2. 실무자 FGI 결과	124
V. 결론 및 제언	141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태조사 주요 결과	143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실무자 FGI 주요결과	148
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선 방향	150

참고문헌	159
------------	-----

부 록	161
-----------	-----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실태조사 설문지	163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 실태조사 설문지	173

CONTENTS

표목차

〈표 I-1〉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4
〈표 II-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세부 목표	12
〈표 II-2〉 2018년-2021년 9월 말 참여자 학력	17
〈표 II-3〉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수급유형	18
〈표 II-4〉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신용상태	19
〈표 II-5〉 2018년-2021년 상반기 자격증 취득 내용	21
〈표 II-6〉 2018년-2021년 상반기 외부 자원 연계(건)	22
〈표 III-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III-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사업단 참여 및 근로특성	28
〈표 III-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원 사업 내용 만족도(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	30
〈표 III-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구조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 별) ...	31
〈표 III-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만족도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	33
〈표 III-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만족도 (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	34
〈표 III-7〉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 만족도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	36
〈표 III-8〉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 만족도 (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	37
〈표 III-9〉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중인 일자리 만족도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	39
〈표 III-10〉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중인 일자리 만족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	40
〈표 III-1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속적 참여 의향	41
〈표 III-12〉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1순위)	42
〈표 III-13〉 고용희망 변화에 대한 인지	44
〈표 III-14〉 고용장벽 극복에 대한 인지	45
〈표 III-15〉 자신의 진로준비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	46
〈표 III-16〉 진로행동(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47
〈표 III-17〉 나와 내 가족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48

〈표 III-18〉 나와 가족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	48
〈표 III-19〉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가 계획하는 자립: 방향, 가능성 및 시기	50
〈표 III-20〉 향후 자립 계획(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50
〈표 III-21〉 1년 뒤 예상 진로(1순위)(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51
〈표 III-22〉 1년 뒤 예상 진로(1순위)(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52
〈표 III-23〉 취창업 자립가능성(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53
〈표 III-24〉 취창업 자립가능성(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53
〈표 III-2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구직 경험 및 원하는 일자리 형태	54
〈표 III-2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기간/종료 후 자격증 취득 여부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	56
〈표 III-27〉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기간/종료 후 자격증 취득 여부 (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	57
〈표 III-28〉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경험 (도움되는 순)	57
〈표 III-29〉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58
〈표 III-30〉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대상자 발굴 주요 경로(센터 규모별, 유형별)	59
〈표 III-31〉 [임파워먼트1] 단계별 업무수행빈도 (실무자 수행경력별, 관련업무 자격/경험 보유 여부별) ..	61
〈표 III-32〉 [임파워먼트1] 단계별 업무수행빈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62
〈표 III-33〉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	69
〈표 III-34〉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70
〈표 III-35〉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	76
〈표 III-36〉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77
〈표 III-37〉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	84
〈표 III-38〉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84
〈표 III-39〉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	90
〈표 III-40〉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91
〈표 III-41〉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	98

〈표 III-42〉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98
〈표 III-43〉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	104
〈표 III-44〉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센터 규모별, 유형별)	105
〈표 IV-1〉 참여자 FGI 결과 의미분석	109
〈표 IV-2〉 실무자 FGI 결과 의미분석	124
〈표 IV-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메뉴얼 주요변경 내용	152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방법	7
〈그림 II-1〉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2021)	13
〈그림 II-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추진절차(2021)	14
〈그림 II-3〉 2018년-2021년 9월 말 참여자 수, 참여센터 수	15
〈그림 II-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성별	16
〈그림 II-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연령	16
〈그림 II-6〉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수급유형	17
〈그림 II-7〉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부채 여부	19
〈그림 II-8〉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부채이유	19
〈그림 II-9〉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취·창업률	20
〈그림 II-10〉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취·창업률	21
〈그림 III-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원 사업 내용 만족도	30
〈그림 III-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만족도	33
〈그림 III-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 만족도	35
〈그림 III-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중인 일자리 만족도	38
〈그림 III-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만족도_추후 참여 의향	41
〈그림 III-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만족도_적극참여 애로사항(1순위)	42
〈그림 III-7〉 진로행동 항목	46
〈그림 III-8〉 향후 자립 계획	49
〈그림 III-9〉 1년 뒤 예상 진로(1순위)	51
〈그림 III-10〉 취창업 자립가능성	52
〈그림 III-11〉 1년간 구직활동 여부	54
〈그림 III-1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기간/종료 후 자격증 취득 여부	56
〈그림 III-1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대상자 발굴 주요 경로(종합)	59

〈그림 III-14〉 [임파워먼트1] 업무 단계별 수행빈도(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 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60
〈그림 III-15〉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사전준비단계	63
〈그림 III-16〉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모집단계	64
〈그림 III-17〉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사정단계	65
〈그림 III-18〉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계획수립단계	66
〈그림 III-19〉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역량강화단계	67
〈그림 III-20〉 [임파워먼트2] 업무 단계별 수행빈도(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68
〈그림 III-21〉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_자립활동단계	71
〈그림 III-22〉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_평가단계	72
〈그림 III-23〉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_종결단계	73
〈그림 III-24〉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_사후관리	74
〈그림 III-25〉 [임파워먼트1] 업무 단계별 중요도 (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 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75
〈그림 III-26〉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사전준비단계	78
〈그림 III-27〉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모집단계	79
〈그림 III-28〉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사정단계	80
〈그림 III-29〉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계획수립단계	81
〈그림 III-30〉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역량강화단계	82
〈그림 III-31〉 [임파워먼트2] 업무 단계별 중요도 (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 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83
〈그림 III-32〉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_자립활동단계	85
〈그림 III-33〉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_평가단계	86
〈그림 III-34〉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_종결단계	87

〈그림 Ⅲ-35〉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_사후관리	88
〈그림 Ⅲ-36〉 [임파워먼트1] 업무 단계별 난이도 (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 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89
〈그림 Ⅲ-37〉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사전준비단계	92
〈그림 Ⅲ-38〉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모집단계	93
〈그림 Ⅲ-39〉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사정단계	94
〈그림 Ⅲ-40〉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계획수립단계	95
〈그림 Ⅲ-41〉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역량강화단계	96
〈그림 Ⅲ-42〉 [임파워먼트2] 업무 단계별 난이도(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 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97
〈그림 Ⅲ-43〉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_자립활동단계	99
〈그림 Ⅲ-44〉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_평가단계	100
〈그림 Ⅲ-45〉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_종결단계	101
〈그림 Ⅲ-46〉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_사후관리	101
〈그림 Ⅲ-47〉 항목별 필요 수준	102
〈그림 Ⅲ-48〉 영향요인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103
〈그림 Ⅲ-49〉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선 필요 항목	106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18년 6월 청년 자립지원제도의 적극적 확대가 요구되고, 개인별 자활역량에 따라 자활모델을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도입되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목표는 첫째, 근로 및 탈빈곤의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지원 및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상담 및 자조모임을 통하여 청년 참여자 간의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성 회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별 자활역량에 따라 대상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위기계층 빈곤 예방·자립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사회경험이나 직업 경험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개인별 역량 맞춤형 자립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활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시도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이 기존의 자활사업 지침에 기반을 두어 설계되고,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최근 2021년 8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 매뉴얼이 개편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행정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불투명한 지속가능성,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연계의 어려움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여러 정책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원인도 있다.

이에 참여자의 사업 참여로 인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사업단 활동, 제공된 사회서비스, 전담관리, 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자활사업 수행의 여건을 점검하고자 한다. 즉,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안착을 위해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관련 성과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 연구들은 “저소득” 청년에 특정한 조사보다는 청년층 전반에 걸친 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자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자리 진입에 더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성과들이 제시되었다.

〈표 I-1〉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측정변수	측정지표(예)	연구명	
양적 연구	육구 파악 및 상담지원 측면	• 구직육구	사업인지도, 구직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관, 필요 정도 (예/아니오, 5점 척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21)
		• 상담 만족도	일반적 만족도, 상담전/후 심리상태, 상담 횟수, 고민해소 여부	청년인턴사업 평가(2010)
		• 취업역량강화정도	탐색 명확성, 방향 결정성, 선택 자신감, 실행 준비도(5점 척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21)
	역량강화 측면	• 구직지식 • 구직기술	· 전공 및 업무 공통 자격증 취득 여부, 전공분야 학점, 직업심리검사 결과 이해, 가정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구직 희망 직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 등 ·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구직정보 탐색 및 획득, 구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	2010 청년층 구직역량 실태조사(2010)
		• 구직효능감 • 취업스트레스	· 직업적성 이해, 문제상황 극복 의지, 직 업준비 불안, 상황대처 능력(5점 척도) · 개인, 가정, 환경 관련 5개영역 스트레스 정도(5점 척도)	역량프로그램이 청년구직자의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2017)
		취창업 성과 측면	• 창업성과 • 취업성과 • 고용유지	창업후 발생 매출액(비율척도), 존속기간 (비율척도), 존폐여부(기업 유지 및 폐업 여부) 서비스 제공 기관별 취업률, 취업지원 경로별 취업자(취업률), 대상자 유형분류별 취업자(취업률), 최종학력별 취업자 수(취업률)

구분	측정변수	측정지표(예)	연구명
		중도탈락율, 조기채용률, 수료 후 취업률, 고용유지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 인턴사업의 고용효과와 개선방안(2018)
사업 전반 만족도	- 만족도 - 도움 정도	업무, 근무시간, 행정절차 관련 주관적 만족도, 도움정도(5점 척도), 주변 추천 의향(예/아니오)	정부청년창업지원정책의 만족도 분석(2019)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21)
사회심리적 성과		진로구직 건강성과 심리정서 건강성 및 대처, 인간관계 기술 개선, 삶에 대한 의지, 건강개선, 문제 해결, 사회와 연결	청년인턴사업 평가(2020)
질적 연구		자활근로 참여 이후 긍정적으로 달라진 마음가짐과 태도, 자활 센터를 통한 빈곤 극복의 출구와 자기극복에 대한 희망	20대 빈곤청년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2021)
진로탐색 효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일 경험 기회 제공, 향후 진로 설정을 위한 경력 및 경험 축적, 청년사업장 발굴과 매칭 통한 자생력 강화, 적절한 매칭 통한 상생 토대 마련,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연계 통한 자력 자립 강화, 금전적 도움, 개인의 성격 변화	청년인턴사업 평가(2010)

본 연구는 사업의 효과성을 참여자 단순히 취업이나 창업에 성과를 두기 보다는 참여자의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자활”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 변화와 향후 진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청년 자립도전단 사업에서의 운영 세부절차별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전담 관리자의 수행상의 한계와 중요도, 어려움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운영상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의 성장을 다양한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실적과 성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전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상의 한계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업설계와 운영 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추진방향을 확립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정책 내용 분석

- 실적평가 및 효과성 진단을 위해서 먼저 청년자립도전사업 배경과 목표, 내용, 추진방향, 사업운영 방식을 정리하였다.
 - 분석자료 : 기존 청년자립도전사업 운영가이드, 청년자립도전사업 관련 실적보고서 등
 - 국내 발간 기존 선행 연구

○ 사업 현황 분석

- 사업수행의 내용과 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첫 번째 단계로 기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적보고서를 기반으로 취·창업, 자격취득, 외부자원 연계 실적 등을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 분석자료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적보고서,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분석

○ 사업 효과성 평가

- (양적조사) 청년 자립도전단 참여자의 개인적,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업참여 이후 경제적 여건, 고용장벽, 진로행동, 고용희망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 분석자료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용 설문조사
- (질적조사) 청년 자립도전단 참여자 FGI 등을 통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전과 후의 당사자가 느끼는 변화,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파악하였다.
 - 분석자료 : 수도권 참여자 1팀, 지역 참여자 4팀 총 5팀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 개선방안 도출

- (양적조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이 경험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내용별 만족도와 욕구 등을 분석하였다.
 - 분석자료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용 설문조사
- (양적조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전담관리자들의 사업 수행 과정별 운영상의 한계, 중요도, 어려움 등을 분석하였다.
 - 분석자료: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용 설문조사
- (질적조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종적인 의견 및 제언

을 경청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 분석자료: 총 2회 (회당 3시간 내외)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자문회의, 전문가 심층인터뷰

2) 연구방법

〈그림 I-1〉 연구방법

주요 내용		방법
정책 내용 분석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배경과 목표, 내용, 추진방향, 사업운영 방식 분석	문헌연구
사업 실적 평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수행내용 및 결과분석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적보고서 자활정보시스템 분석
사업 효과성 평가	참여자 사업참여 이후 경제적 여건, 고용장벽, 진로행동, 고용희망 변화 분석 청년 자립도전단 참여자 FGI 등을 통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전과 후의 당사자가 느끼는 변화,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	참여자 설문 조사 사업 참여자 FGI
개선방안 도출	사업수행과정 진단 사업 운영상의 개선방향	참여자, 사업담당자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자문회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정책 현황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원 정책 내용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현황

II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정책 현황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원 정책 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빈곤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층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기존의 자활사업이 “청년”이라는 대상적 특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들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격리되었거나 빈곤 수급 가정이라는 청년 특징이 기존 자활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 그리고 청년층 조건부 수급자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의뢰가 되더라도 성인 참여자들과 문화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도입을 통해 청년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자활사업”이 2018년 6월에 도입되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 및 탈빈곤의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지원 및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지속적인 상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자들 간의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성 회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목표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세부 목표

- 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근로능력 확보
- ② 참여자 1인, 1자격증 취득
- ③ 취·창업을 통한 경제능력 확보
- ④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문제 완화
- ⑤ 지역 공동체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와 같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단순히 빈곤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직업훈련을 통한 직능역량 강화와 심리 정서적인 안정 및 사회성 함양에 목적이 있다.

2) 세부 정책 내용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대상은 만 18세~만 34세의 신규참여자 및 자활 근로 참여 기간은 2년 이내의 기존 참여자이다. 다만, 사업단 배치 시점에 만 39세가 넘는 참여자는 연도 상·하반기 기준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기간은 3년이며, 3년 이내 자립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타 사업단에 배치하여 자활사업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참여이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일 52,950원)으로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준 월 소득액은 1,376,700원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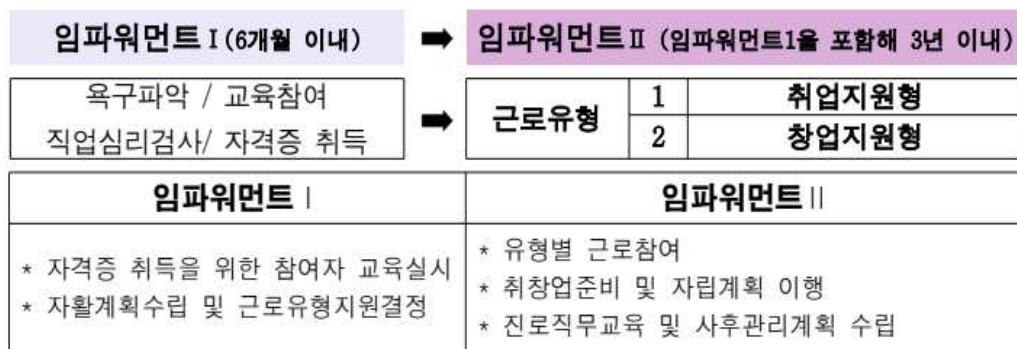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지원내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임파워먼트 I, 임파워먼트 II이다. 임파워먼트 I은 6개월 이내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참여자 교육이 시행되고, 자활계획 수립과 근로유형 지원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참여자의 주요문제, 욕구, 강점, 자원을 파악하는데 이를 통해 자활 성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단계이다. 현재 임파워먼트 I 기간은 총 1회 참여 가능하며, 센터의 재량에 따라 임파워먼트 I 기간을 6개월 내에서 축소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 II는 참여자가 원하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를 참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근로에 참여함으로써 생활 적응과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이때 참여자는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 중 근로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취업지원형은 (예비)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일반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경력

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유형이다. 창업지원형은 청년사업단 내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매출 활동을 통하여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참여자에게 내일키움통장 가입 및 시장진입형 기준 적립이 이루어지며, 교육지원을 실시하는데 교육지원은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진학준비 포함), 전문강사비, 자활연수원 등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참여자별 자립계획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 한도는 3년간 220만 원 한도에서 참여 기간 동안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그림 II-1〉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2021)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청년 참여자 5명 이상(농촌형 지역자활센터는 3명 이상)이 모집되면, 일반사업 근로단 구성 및 승인 절차에 준용하여 구성·운영된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시장진입형 사업단과 달리, 사업단 운영 기간을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운영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매출의 정산 및 사용 관리는 일반사업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추진절차는 다음 <그림Ⅱ-2>와 같다.

〈그림 II-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추진절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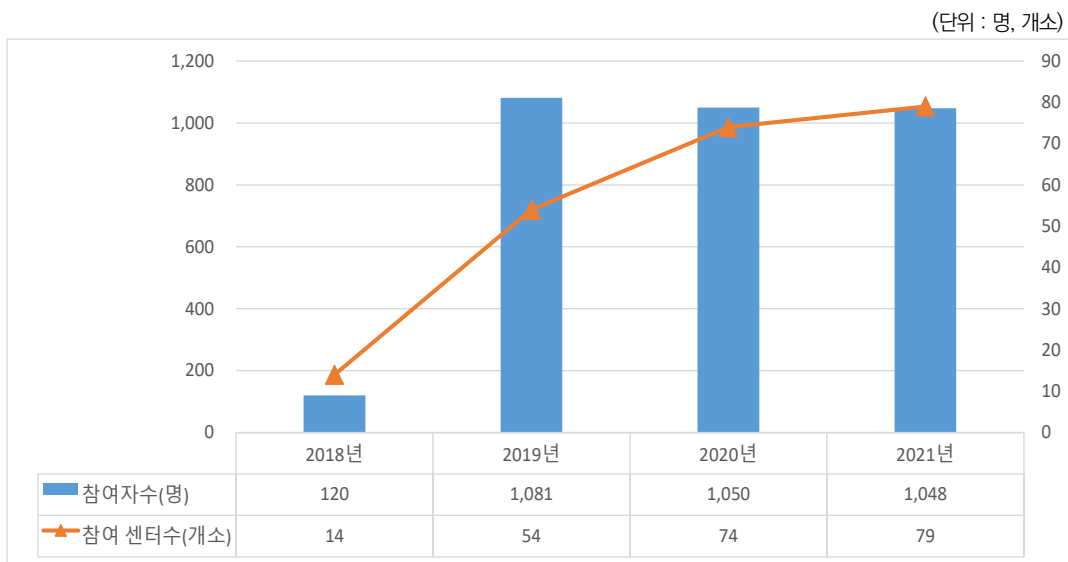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현황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추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14개소에서, 2021년 9월 30일 기준 79개소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수(재진입 중복 포함)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120명에서 2021년 9월 30일 기준 1,048명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2018년 8월 사업이 시작된 후 지속해서 참여센터와 참여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3〉 2018년-2021년 9월 말 참여자 수, 참여센터 수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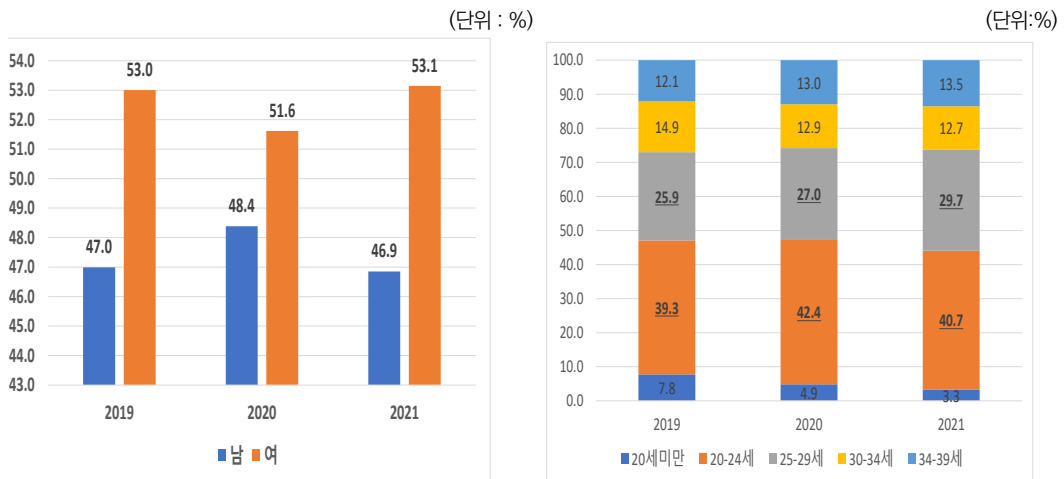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특성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참여하는 청년은 근로능력점수가 80점 미만이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의뢰 취소자 및 중단처리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지원기간 만료로 종료된 자(미취업자)들 중 일부가 참여한다. 다시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는 집중 취업지원 대상(80점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속하게 되고, 그 외의 빈곤 청년들이 자활근로 대상자가 되는데, 이 자활근로대상자들 중 일부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이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은 다차원적 빈곤에 노출되고, 노동시장 진입하기에 어려운 여러 사회적 장벽들이 존재한다. 이에, 2018년에서 2021년 9월 까지 자활정보시스템 DATA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빈곤의 차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성별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30일 기준, 여성이 557명(53.1%) 남성이 491명(46.9%)로 나타났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24세가 4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5-29세가 29.7%, 34-39세가 13.5%, 30-34세가 1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성별 〈그림 II-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연령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다음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졸이 24.4%, 대학교 중퇴가 9.9%, 중졸이 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 2018년~2021년 9월 말 참여자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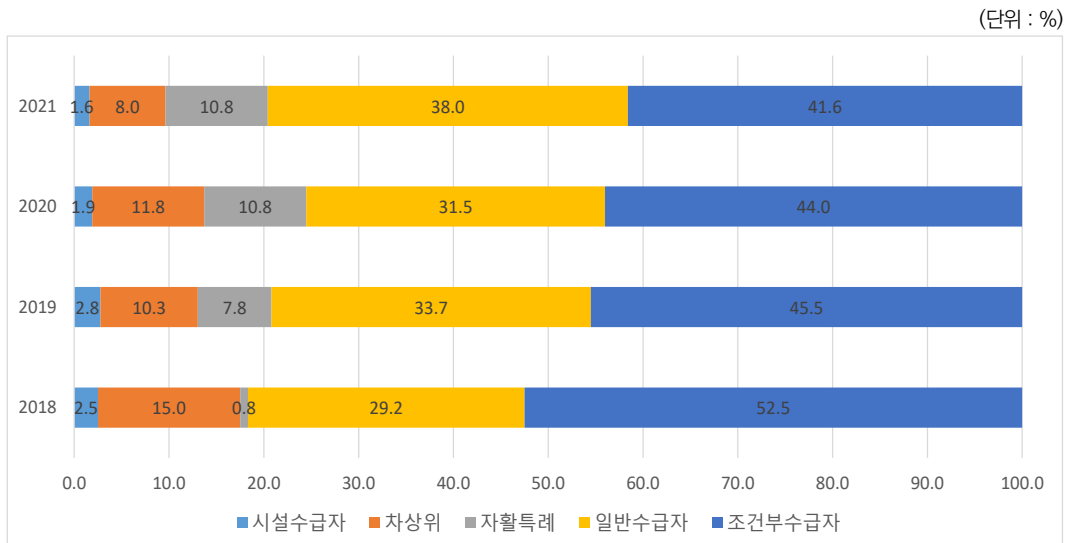
(단위 : %)

학력	2019	2020	2021
무학	0.6	0.5	0.3
초졸	1.5	1.8	1.9
중졸	9.5	10.2	9.2
고졸	55.7	52.6	50.0
대(중퇴)	9.1	8.4	9.9
대(재학중)	3.8	3.6	3.7
대졸	19.5	22.5	24.4
대졸이상	0.2	0.5	0.5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의 수급형태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건부과, 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인 일반수급자 그리고 차상위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수급유형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30일 기준 미혼 참여자가 87.6%, 기혼 참여자가 12.4%로 나타났다. 미혼과 기혼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모두에서 독신 가구(1인가구) 참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가구의 가구형태가 1인가구가 전체 46.3%로 나타난 사회현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빈곤 청년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가 그들에게 단순 일자리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조건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와 공동체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혼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가구 유형 중 한부모+자녀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장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연계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수급유형

(단위 : %)

	미혼				기혼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3세대가구	2.7	2.4	2.0	3세대가구	1.4	2.7	0.9
기타	9.6	8.4	7.4	기타	2.4	1.4	1.8
독신가구	24.8	25.9	27.0	독신가구	7.7	9.5	10.7
부부	0.0	0.1	0.1	부부	1.0	1.4	3.6
부부 + 자녀	13.5	12.3	12.3	부부 + 자녀	31.1	26.5	24.1
비혈연	0.4	0.5	0.6	비혈연	0.5	0.0	0.9
조부모 + 손자녀	4.7	4.6	4.3	조부모 + 손자녀	0.0	0.0	0.0
한부모 + 자녀	41.0	42.8	43.7	한부모 + 자녀	56.0	58.5	58.0
형제자매	3.3	2.9	2.5	형제자매	0.0	0.0	0.0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다음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았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신용상태를 살펴보면, 2021년 9월 말 기준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참여자 비율이 1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상태에 놓인 참여자 비율이 4.3%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 2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82.8천 명으로 20대 이하 인구의 5.41%에 반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중 금융채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4〉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신용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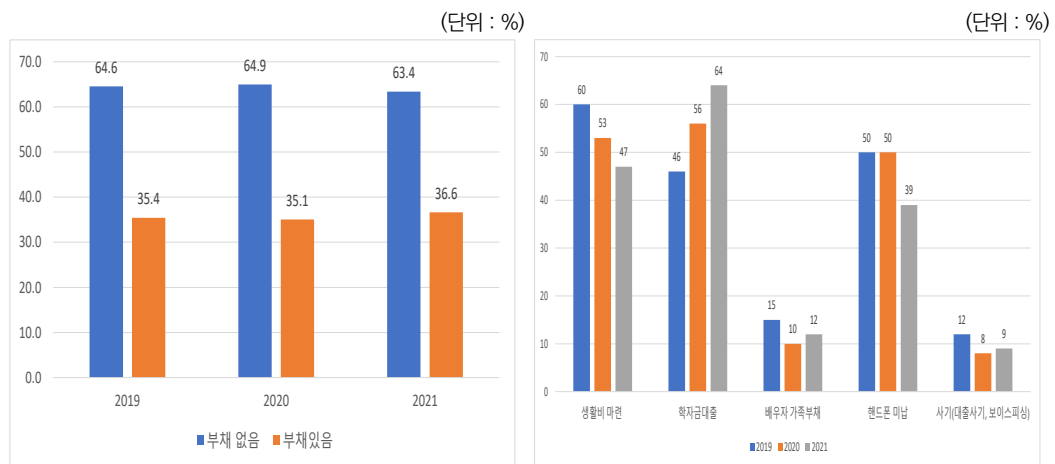
(단위 : %)

	2019	2020	2021
신용양호	83.4	84.2	84.4
신용불량	11.3	10.9	11.4
개인회생	2.2	1.6	0.8
기타 신청	1.7	1.2	0.8
워크아웃	0.7	1.0	1.3
파산신청	0.4	0.8	0.5
파산면책	0.6	0.2	0.7
전환대출 신청	0.0	0.1	0.2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한편,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약 3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부채 이유를 살펴보면(2021년 9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생활비 마련, 가족부채 등이 사유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핸드폰 미납, 사기(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도 나타났다. 즉, 실업과 더불어 생계의 어려움으로 빚에 내몰린 상태에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7〉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부채 여부 〈그림 II-8〉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부채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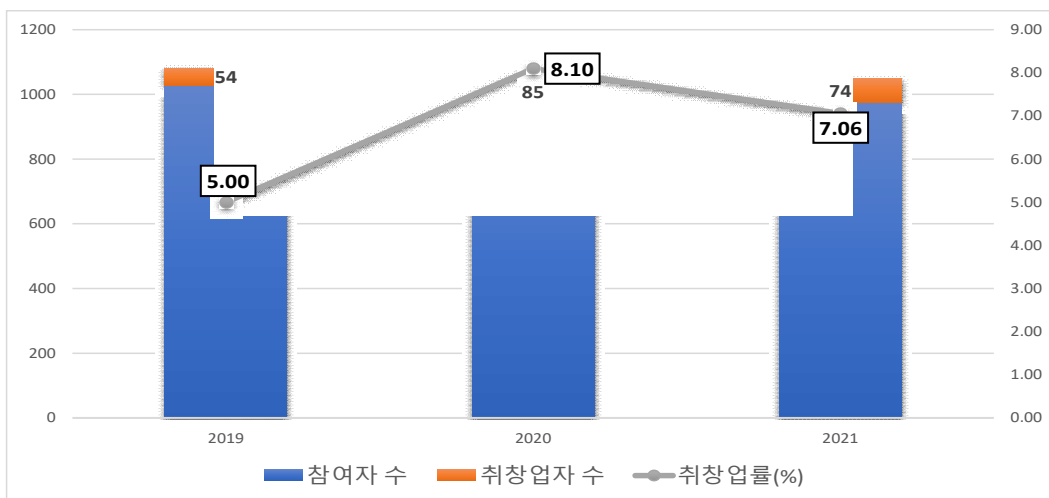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성과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교육지원 및 근로능력 향상과 정서적 지지 및 공동체성 회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실적보고 행정 자료를 토대로 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자활사업 경제적 성과로 제시되는 취·창업률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전체 참여자 1,081명 중 54명이 취·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12월 말 기준 전체 참여자 1,050명 중 85명이 취·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전체 참여자 974명 중 74명이 취·창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취·창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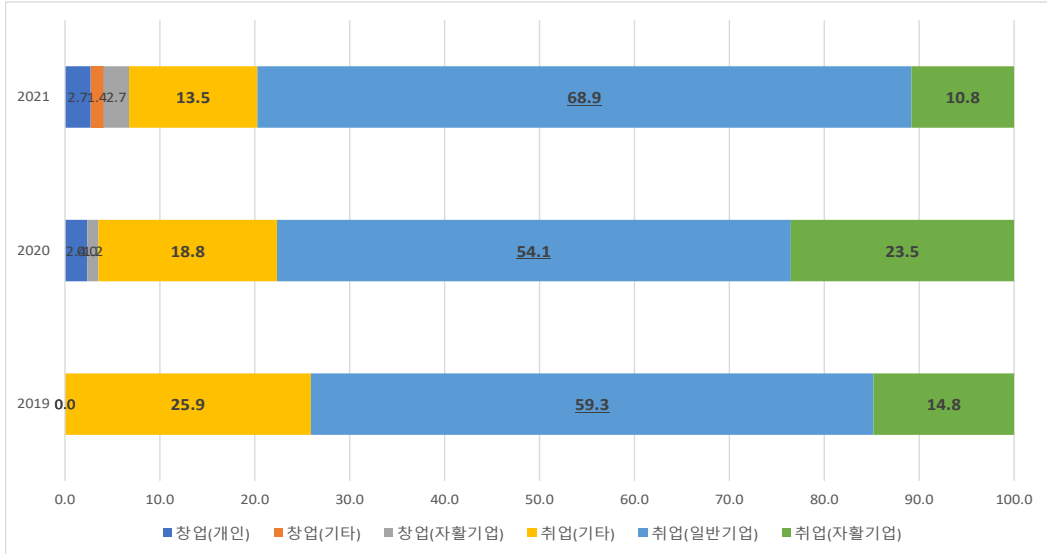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구체적으로 청년자립도전 취·창업 참여자들의 취·창업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으로 취업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활기업에 취업한 참여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의 청년과 자활기업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능했던 성과임을 반증한다.

〈그림 II-10〉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취·창업률

(단위 : %)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훈련을 통해 기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자활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증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개인 자립역량과 개인 경로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지점으로 바리스타 자격과 같이 기존의 자활사업단이 많이 하는 업종의 자격증이지만, 시장 경쟁력이 다소 낮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이 높은 점이다.

〈표 II-5〉 2018년~2021년 상반기 자격증 취득 내용

분기	총 인원	내용
2020년 1분기	총 40명	바리스타 취득(3), 컴퓨터 자격 취득(16), 운전면허증 취득(10), 요양보호사(3) 지게차운전기능사(1), 회계 자격(2), CAD(2), 특수대형운전면허 취득(2) 두피모발정보관리사(1)
2020년 2분기	총 35명	바리스타(4), 컴퓨터 자격(5), ITQ(3), 운전면허증(16) GTQ그래픽기술자격(2), 웹디자인기능사(1),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1) CAD(1), 직업상담사(1), ACA포토샵(1), 제빵기능사(1)

분기	총 인원	내용
2020년 3분기	총 169명	• 바리스타(42), 컴퓨터 자격(40), 운전면허증(32), 제과제빵(5), 한국사능력검정시험(5), 위험물산업기사(3), 간호조무사(3), 캘리크라프트지도사(3), 세이크라프트방과후지도사(3), 재활용양말목공예(2), 심리상담사(2), 요양보호사(1), 병원원무행정사(1), 외환전문역(1), 반려동물종합관리사(2), 케익디자이너(1), 기계설계산업기사(1), 조리사(1), 미용사(1), 네일아트(1), 무선조종사기술자격(1), 사회복지사(1), 자격준비(17)
2020년 4분기	총 318명	• 바리스타(82), 컴퓨터 자격(64), 운전면허증(57), 상품진열(18), 목공-공예(10), 간호조무사(7), 요양보호사(7), 심리상담(7), 정리수납(7), ITQ(5), 해외전자상거래(4), 제빵(3), 한국사능력검정시험(3), 조리사(3), 사회복지사(3), 직업상담사(2), 특수면허(2), 기타
2021년 상반기	총 778명	• 바리스타/커피관련(197), 컴퓨터자격(134), 운전면허(130), 푸드관련(38), 심리상담(32), 정리수납(28), 기능사(환경, 기계설비 등)(25), 세무회계(23), 문화예술(22), 마케터(22), 어학(20), 돌봄*(21), 반려동물(21), 사회복지사(15), 이미용사(15), 간호조무사병원코디네이터(12), 상위학력취득(10), 안전관리(8), 기타(5) (*요양보호사, 방과후지도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 등)

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18-2021년 상반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적보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단순히 취·창업 지원만이 아닌, 참여자들이 지나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자원 연계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내일키움 통장 가입 및 시장진입형 기준 적립)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재무상담, 주거지원 연계가 이루어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심리 상담 연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정서적 회복이 함께 지원됨으로써, 정서적 자활 측면의 성과들도 가져왔다.

〈표 II-6〉 2018년-2021년 상반기 외부 자원 연계(건)

분기	내용
2020년 1분기	• LH전세임대 신청 및 선정 (1) • 내일키움통장 가입(6) • 자녀 EBS 학습자료 지원(1)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1),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1), 금융사기 법률지원(1)
2020년 2분기	• 내일키움통장 가입(7),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17) •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2), 명익도용 법률지원(2) • 정신건강센터 연계(2), 의료지원 연계(3) • 생활비 후원연계(1)
2020년 3분기	• 내일키움통장 가입(89) • 물품지원(66) • 교육 연계(58) • 지원사업 선정운영 지원(14) • 건강증진센터 연계(9) • 진학지원(8)

분기	내용
	• 내일배움카드 발급(6) • 청년임대주택 선정, 주거상향이주지원센터(2) • 청년드림은행(1) • 동사무소 사례관리 연계(1)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및 도움(1) • 연계준비중(26)
2020년 4분기	• 심리상담센터, 중독관리센터 연계(36) • 실습기관 또는 인턴 연계(19)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재무컨설팅, 생활법률 연계(16) • 내일키움통장 가입(98) • 교육실습 연계(92) • 심리상담 연계(59) • 재무상담 연계(24) • 건강증진 연계(21) • 내일배움카드 발급(11) • 기타 물품지원 등 (89)
2021년 상반기	• 내일키움통장 가입(309) • 교육실습 연계(264) • 재무상담 연계(67) • 주거지원 연계(64) • 정서심리상담 연계(183) • 건강증진 연계(52) • 기타 방역/생활물품지원 등(109)

자료: 2018-2021년 상반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적보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자료

정리하자면, 현재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사회경험이나 직업경험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과 더불어 개인별 역량 맞춤형 자립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활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업과 빈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청년들에 대한 통합적 고용복지서비스 정책으로 기존 자활사업과 달리 개인별 다양한 경로로의 진입을 돕고, 외부자원 연계를 통해 사회적 장벽과 위험을 낮추는 성과들을 일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자활사업 지침에 기반하여 설계되고, 중장기 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최근 2021년 8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 매뉴얼이 개편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행정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외부적 요인으로, 사업의 불투명한 지속가능성,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연계의 어려움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여러 정책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사업의 정착을 위해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효과성 양적 평가

1.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2.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III

사업효과성 양적 평가 <<

1.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수급 특성 및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특성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설문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설문 조사에 참여한 참여 청년은 모두 536명으로, 여성이 절반 이상인 55%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의 비율이 59.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6.96세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가 86%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가구주와 비가구주의 비율은 각각 절반인 50%로 나타났다. 참여 청년의 65% 이상은 조건부 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특성	빈도	백분율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41	45.0	장애여부	비장애	511	95.3
	여성	295	55.0		장애	25	4.7
학력	중졸이하	42	7.8	자격증	자격증없음	82	15.3
	고졸	318	59.3		1개	148	27.6
	대졸이상	176	32.8		2개	119	22.2
연령대	20~29	383	71.5		3개이상	187	34.9
	30~39세	153	28.5	수급여부 및 유형	조건부수급	349	65.1
혼인	미혼	461	86.0		일반수급	82	15.3

특성		빈도	백분율	특성		빈도	백분율
상태	기혼	25	4.7	자활특례		40	7.5
	이혼/사별	42	7.8	특례수급가구원		4	0.7
	기타	8	1.5	시설수급		10	1.9
가구주 여부	가구주	268	50.0	차상위계층		51	9.5
	비가구주	268	50.0				
동거인 유무	유	314	58.6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값)	
	무	222	41.4	연령		26.96 (5.44)	
						18-40	

다음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사업단 참여 및 근로특성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현재 설문 조사에 응답한 참여 청년의 95%가량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 중이며, 1년 이상 참여 중인 청년과 1년 미만 참여 청년이 비슷하게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유형으로는 41%가 창업지원형에 다음으로 자활근로 26.7%, 취업지원 19.6%, 임파워먼트 12.7%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청년들의 80% 이상이 월평균 급여로 100-150만 원 사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업종은 카페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6.5%, 음식점 5.8%, 제과제빵 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사업단 참여 및 근로특성

(단위 : 명, %)

특성		빈도	백분율	특성		빈도	백분율
현재 참여여부	참여중	508	94.8	근로 업종 (복수 응답)	공방, 목공, 가죽	23	4.3
	만료/종결	28	5.2		편의점(판매)	35	6.5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08	20.1		카페(판매, 제조)	192	35.8
	6개월 - 1년	142	26.5		광고대행	2	0.4
	1년 이상 - 2년	186	34.7		음식점(외식)	31	5.8
	2년 이상	100	18.7		온라인소핑몰(소매)	16	3.0
	임파워먼트1	68	12.7		식품생산(커피, 원두)	21	3.9
참여 사업 유형	취업지원형	105	19.6		행정,사무	23	4.3
	창업지원형	220	41.0		인테리어디자인	2	0.4
	자활근로형	143	26.7		미용	11	2.1

특성		빈도	백분율	특성		빈도	백분율
월평균 급여	100만원 미만	13	2.4	운수		4	0.7
	100만원-150만원	451	84.1	제과제빵		28	5.2
	150만원-200만원	70	13.1	간호조무/사회복지사		10	1.9
	200만원 이상	2	0.4	자격증취득교육중		189	35.3
지각조퇴무단결근 경험있음		201	37.5	기타(인턴, 판매서비스직, 청소대행, 택배, 영상촬영편집 등)		73	13.6
↳ 지각 경험있음		130	24.3				
조퇴 경험있음		201	37.5				
무단결근 경험		34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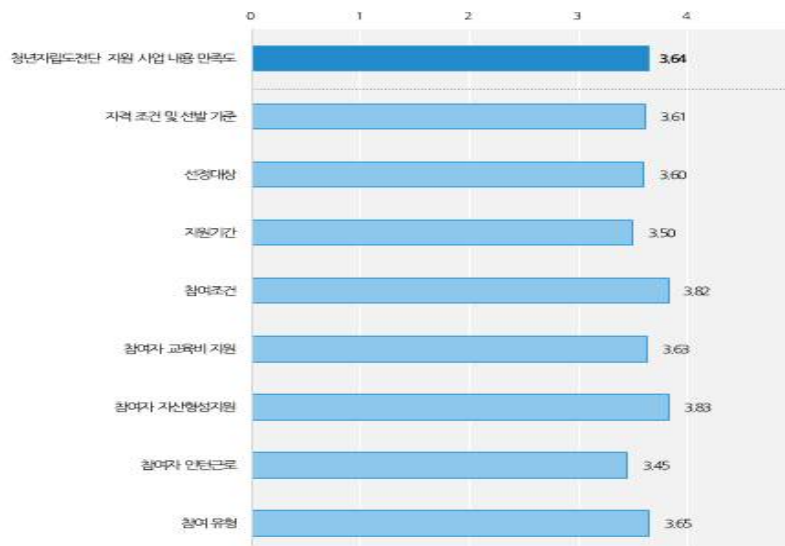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사업 만족도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구조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이 인지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구조 및 내용의 적절성 수준은 다음과 같다. 3점이 보통 수준으로, 사업 구조 및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에서 약간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며, 참여기간 별로는 1년 미만이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는 참여 조건(1일 8시간, 주 5일)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인턴근로 참여 및 지원기간(최대 3년)을 상대적으로 덜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학력수준 별로는 선정대상과 지원기간, 참여기간 별로는 자격조건 및 선발기준, 참여조건, 참여유형별로는 자격조건 및 선발기준, 지원기간, 참여조건에 있어서 적절성 인식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구조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표 Ⅲ-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구조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원 사업 내용 만족도(종합)	(3.64)	(3.65)	(3.63)	(3.70)	(3.60)	(3.58)	(3.70)	(3.76)	(3.77)	(3.61)	(3.52)
		t=0.369		t=-1.582		t=1.877		f=3.542*			
자격조건 및 선발기준	(3.61)	(3.64)	(3.59)	(3.66)	(3.58)	(3.57)	(3.65)	(3.75)	(3.79)	(3.55)	(3.50)
		t=0.771		t=-1.129		t=1.140		f=4.002**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선정대상	(3.60)	(3.66)	(3.56)	(3.70)	(3.56)	(3.51)	(3.71)	(3.75)	(3.72)	(3.53)	(3.56)
		t=1.246		t=-1.812		t=2.674**		f=1.915			
지원기간	(3.50)	(3.54)	(3.47)	(3.69)	(3.41)	(3.37)	(3.65)	(3.72)	(3.70)	(3.42)	(3.38)
		t=0.756		t=-3.405***		t=3.324***		f=3.954**			
참여조건	(3.82)	(3.86)	(3.78)	(3.82)	(3.82)	(3.81)	(3.83)	(4.01)	(3.96)	(3.80)	(3.66)
		t=1.061		t=-0.090		t=0.319		f=3.866**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자활근로형<임파워먼트											
참여자 교육비 지원	(3.63)	(3.63)	(3.63)	(3.65)	(3.62)	(3.59)	(3.68)	(3.72)	(3.76)	(3.60)	(3.54)
		t=0.092		t=-0.286		t=1.105		f=1.349			
참여자 자산형성지원	(3.83)	(3.87)	(3.79)	(3.87)	(3.81)	(3.84)	(3.81)	(3.84)	(3.91)	(3.85)	(3.73)
		t=1.128		t=-0.832		t=-0.480		f=1.109			
참여자 인턴근로	(3.45)	(3.35)	(3.53)	(3.49)	(3.43)	(3.39)	(3.51)	(3.49)	(3.59)	(3.45)	(3.33)
		t=-2.152*		t=-0.827		t=1.527		f=1.717			
참여 유형	(3.65)	(3.63)	(3.67)	(3.73)	(3.62)	(3.59)	(3.72)	(3.79)	(3.70)	(3.69)	(3.50)
		t=-0.478		t=-1.447		t=1.715		f=2.227			

주: 1점-매우 부적절'에서 '5점-매우 적절'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고 인식함

*p < .05, **p < .01, ***p < .001

〈표 Ⅲ-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구조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1인가구 여부		
		확대형 (n=210)	표준형 (n=292)	기본형 (n=34)	도시형 (n=451)	도농 복합형 (n=61)	농촌형 (n=24)	1인가구 (n=212)	1인가구 이외 (n=32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원 사업 내용 만족도(종합)	(3.64)	(3.68)	(3.60)	(3.68)	(3.63)	(3.77)	(3.37)	(3.60)	(3.66)
		f=0.853			f=3.070*		t=-0.962		
자격조건 및 선발기준 (기초생계수급,차상위)	(3.61)	(3.62)	(3.59)	(3.71)	(3.63)	(3.61)	(3.33)	(3.60)	(3.62)
		f=0.340			f=1.581		t=-0.263		
선정대상 (만18~39 자활근로 신규 및 2년이내 참여)	(3.60)	(3.64)	(3.55)	(3.76)	(3.60)	(3.79)	(3.13)	(3.61)	(3.60)
		f=1.199			f=4.825**		t=0.223		
지원기간 (최대 3년)	(3.50)	(3.63)	(3.41)	(3.47)	(3.52)	(3.59)	(2.92)	(3.49)	(3.52)
		f=3.129*			f=4.752**		t=-0.343		
참여조건 (1일 8시간, 주5일)	(3.82)	(3.82)	(3.83)	(3.74)	(3.79)	(4.03)	(3.79)	(3.76)	(3.86)
		f=0.168			f=2.094		t=-1.286		
교육비 지원	(3.63)	(3.66)	(3.61)	(3.65)	(3.63)	(3.74)	(3.38)	(3.63)	(3.63)

구분	전체 (n=536)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1인가구 여부	
		확대형 (n=210)	표준형 (n=292)	기본형 (n=34)	도시형 (n=451)	도농 복합형 (n=61)	농촌형 (n=24)	1인가구 (n=212)	1인가구 이외 (n=324)
(개인당 220만원)		f=0.152			f=1.212			t=-0.063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일키움통장) 참여	(3.83)	(3.84)	(3.82)	(3.82)	(3.81)	(4.02)	(3.67)	(3.76)	(3.87)
		f=0.068			f=2.134			t=-1.404	
인턴근로 참여 (6개월단위 계약, 1회 3개월 연장 가능)	(3.45)	(3.48)	(3.40)	(3.65)	(3.43)	(3.64)	(3.25)	(3.36)	(3.50)
		f=1.343			f=1.984			t=-1.740	
사업유형 구성 (취업지원형, 창업준비형)	(3.65)	(3.73)	(3.60)	(3.62)	(3.65)	(3.75)	(3.50)	(3.60)	(3.69)
		f=1.397			f=0.776			t=-1.094	

주: '1점-매우 부적절'에서 '5점-매우 적절'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고 인식함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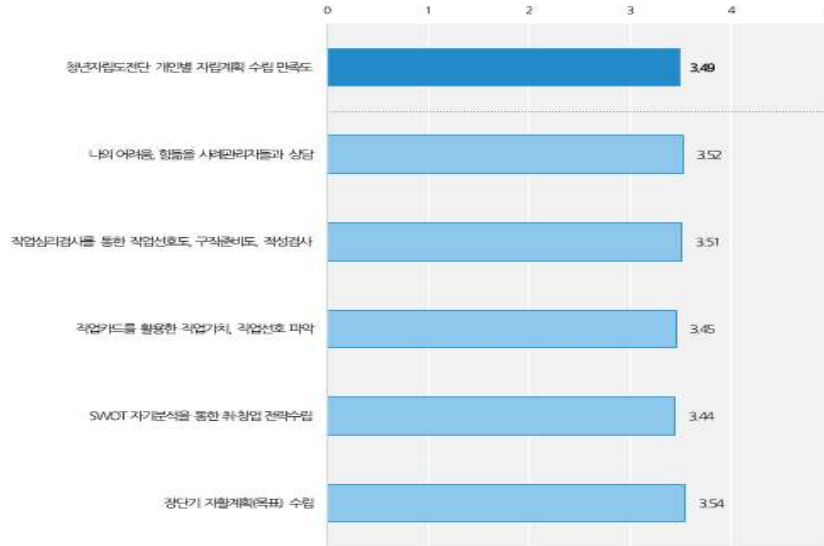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으로부터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참여 청년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3점이 보통 수준으로,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에 전반적 도움 인식은 보통에서 약간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참여 기간별로는 1년 이상이 1년 미만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고, 참여유형에서는 취업지원형이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세부 항목 중에는 사례관리자들과의 상담과 장단기 자활계획 수립이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이 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성별로는 직업카드,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 장단기 자활계획 수립, 참여기간별로는 장단기 자활계획수립, 참여유형별로는 사례관리자들과의 상담,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 장단기 자활계획수립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만족도

(단위 : 점)



〈표 III-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만족도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만족도(종합)	(3.49)	(3.54)	(3.45)	(3.58)	(3.45)	(3.51)	(3.47)	(3.49)	(3.73)	(3.46)	(3.37)
		t=1.155		t=-1.573		t=-0.520		f=3.646*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사례관리자들과의 상담	(3.52)	(3.61)	(3.44)	(3.56)	(3.50)	(3.53)	(3.50)	(3.46)	(3.81)	(3.48)	(3.38)
		t=1.995*		t=-0.661		t=-0.371		f=4.247**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직업심리검사	(3.51)	(3.56)	(3.47)	(3.60)	(3.47)	(3.53)	(3.50)	(3.60)	(3.68)	(3.48)	(3.41)
		t=1.098		t=-1.504		t=-0.435		f=1.971			
직업카드	(3.45)	(3.47)	(3.43)	(3.53)	(3.41)	(3.47)	(3.42)	(3.38)	(3.64)	(3.42)	(3.37)
		t=0.498		t=-1.405		t=-0.589		f=1.880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	(3.44)	(3.47)	(3.41)	(3.55)	(3.38)	(3.47)	(3.40)	(3.41)	(3.70)	(3.40)	(3.30)
		t=0.780		t=-1.831		t=-0.730		f=3.806*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장단기 자활계획수립	(3.54)	(3.58)	(3.51)	(3.64)	(3.49)	(3.55)	(3.53)	(3.62)	(3.80)	(3.49)	(3.39)
		t=0.808		t=-1.741		t=-0.250		f=4.172**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주1) '1점-전혀 도움이 안됨'에서 '5점-매우 도움이 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2) 직업심리검사에는 직업선호도, 구직준비도, 적성검사 등이 포함됨

3) 직업카드는 직업가치, 직업선호 파악을 위해 활용됨

*p < .05, **p < .01, ***p < .001

〈표 III-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만족도
(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1인가구 여부	
		확대형 (n=210)	표준형 (n=292)	기본형 (n=34)	도시형 (n=451)	도농 복합형 (n=61)	농촌형 (n=24)	1인가구 (n=212)	1인가구 이외 (n=32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만족도(종합)	(3.49)	(3.55)	(3.47)	(3.34)	(3.49)	(3.54)	(3.33)	(3.42)	(3.54)
		f=1.062			f=0.496			t=-1.570	
사례관리자들과의 상담	(3.52)	(3.57)	(3.49)	(3.41)	(3.53)	(3.51)	(3.38)	(3.45)	(3.56)
		f=0.632			f=0.271			t=-1.313	
직업심리검사	(3.51)	(3.55)	(3.51)	(3.35)	(3.51)	(3.66)	(3.33)	(3.43)	(3.57)
		f=0.633			f=1.153			t=-1.708	
직업카드	(3.45)	(3.49)	(3.43)	(3.32)	(3.43)	(3.59)	(3.33)	(3.39)	(3.48)
		f=0.562			f=0.914			t=-1.070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	(3.44)	(3.50)	(3.41)	(3.29)	(3.44)	(3.39)	(3.42)	(3.36)	(3.49)
		f=0.957			f=0.077			t=-1.518	
장단기 자활계획수립	(3.54)	(3.63)	(3.50)	(3.32)	(3.55)	(3.56)	(3.21)	(3.46)	(3.59)
		f=2.027			f=1.501			t=-1.505	

주1) '1점-전혀 도움이 안됨'에서 '5점-매우 도움이 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2) 직업심리검사에는 직업선호도, 구직준비도, 적성검사 등이 포함됨

3) 직업카드는 직업가치, 직업선호 파악을 위해 활용됨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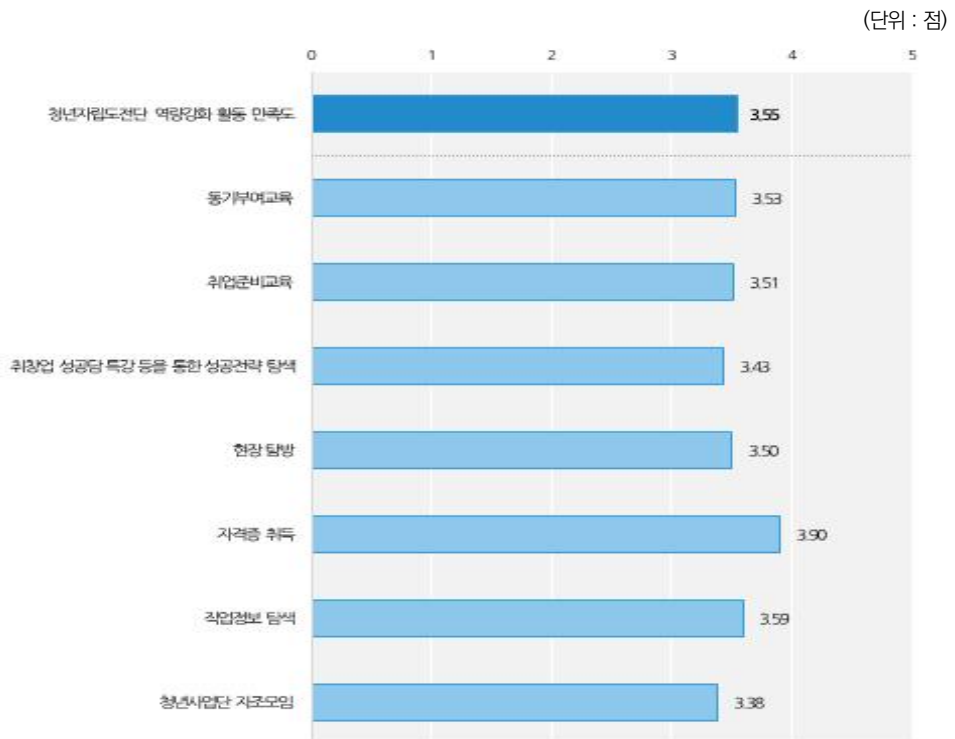
(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이 인지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아래와 같다. 3점이 보통 수준으로, 역량강화 활동의 전반적 도움 인식은 보통에서 약간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으며, 모든 참여유형에서 보통에서 약간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세부 항목 중에는 자격증 취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으며, 취창업 성공담 특강과 청년사업단 자조모임이 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유형별로는 동기부여교육, 취업준비교육, 현장 탐방, 자격증 취득, 직업정보 탐색, 청년사업단 자조모임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 만족도



〈표 III-7〉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 만족도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청년 자립도전단 역량강화 활동 만족도 (종합)	(3.55)	(3.57)	(3.53)	(3.64)	(3.51)	(3.56)	(3.53)	(3.59)	(3.78)	(3.51)	(3.41)
		t=0.593		t=-1.781		t=-0.406		f=4.747**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동기부여교육	(3.53)	(3.55)	(3.51)	(3.65)	(3.47)	(3.56)	(3.50)	(3.75)	(3.73)	(3.49)	(3.34)
		t=0.513		t=-2.024*		t=-0.720		f=4.968**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임파워먼트1			
취업준비교육	(3.51)	(3.54)	(3.48)	(3.65)	(3.44)	(3.56)	(3.46)	(3.66)	(3.79)	(3.40)	(3.40)
		t=0.692		t=-2.364*		t=-1.133		f=5.003**			
취창업 성공담 특강	(3.43)	(3.49)	(3.39)	(3.51)	(3.39)	(3.44)	(3.42)	(3.47)	(3.63)	(3.37)	(3.36)
		t=1.162		t=-1.327		t=-0.154		f=1.998			
현장 탐방	(3.50)	(3.54)	(3.47)	(3.52)	(3.49)	(3.52)	(3.48)	(3.37)	(3.75)	(3.51)	(3.37)
		t=0.795		t=-0.327		t=-0.454		f=3.959** 임파워먼트1,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자격증 취득	(3.90)	(3.91)	(3.90)	(3.99)	(3.86)	(3.87)	(3.94)	(4.00)	(4.10)	(3.91)	(3.70)
		t=0.134		t=-1.580		t=1.011		f=4.788**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직업정보 탐색	(3.59)	(3.61)	(3.58)	(3.64)	(3.57)	(3.60)	(3.58)	(3.60)	(3.81)	(3.58)	(3.45)
		t=0.366		t=-0.839		t=-0.305		f=3.042*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청년사업단 자조모임	(3.38)	(3.37)	(3.38)	(3.49)	(3.32)	(3.40)	(3.35)	(3.31)	(3.67)	(3.33)	(3.27)
		t=-0.212		t=-1.988*		t=-0.511		f=4.088**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주1) '1점-전혀 도움이 안됨'에서 '5점-매우 도움이 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2) 동기부여교육은 자존감향상, 인간관계훈련, 리더십, 이미지메이킹 등의 활동 의미함

3) 취업준비교육은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의 활동을 의미함

*p < .05, **p < .01, ***p < .001

〈표 Ⅲ-8〉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 만족도
(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1인가구 여부	
		확대형 (n=210)	표준형 (n=292)	기본형 (n=34)	도시형 (n=451)	도농 복합형 (n=61)	농촌형 (n=24)	1인가구 (n=212)	1인가구 이외 (n=324)
청년 자립도전단 역량강화 활동 만족도(종합)	(3.55)	(3.62)	(3.52)	(3.37)	(3.55)	(3.58)	(3.46)	(3.50)	(3.58)
		f=1.983			f=0.175			t=-1.233	
동기부여교육	(3.53)	(3.61)	(3.49)	(3.35)	(3.52)	(3.61)	(3.46)	(3.46)	(3.57)
		f=1.556			f=0.278			t=-1.374	
취업준비교육	(3.51)	(3.62)	(3.45)	(3.35)	(3.52)	(3.54)	(3.33)	(3.46)	(3.55)
		f=2.266			f=0.431			t=-1.027	
취창업 성공담 특강 등을 통한 성공전략 탐색	(3.43)	(3.50)	(3.41)	(3.24)	(3.41)	(3.56)	(3.42)	(3.38)	(3.47)
		f=1.210			f=0.570			t=-1.023	
현장 탐방	(3.50)	(3.56)	(3.48)	(3.35)	(3.51)	(3.51)	(3.46)	(3.51)	(3.50)
		f=0.938			f=0.029			t=0.208	
자격증 취득	(3.90)	(3.92)	(3.91)	(3.71)	(3.93)	(3.79)	(3.63)	(3.87)	(3.92)
		f=0.926			f=2.013			t=-0.646	
직업정보 탐색	(3.59)	(3.63)	(3.59)	(3.38)	(3.59)	(3.61)	(3.63)	(3.50)	(3.65)
		f=1.048			f=0.023			t=-1.862	
청년사업단 자조모임	(3.38)	(3.52)	(3.28)	(3.24)	(3.37)	(3.44)	(3.33)	(3.30)	(3.43)
		f=4.115*			f=0.180			t=-1.498	

주1) '1점-전혀 도움이 안됨'에서 '5점-매우 도움이 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2) 동기부여교육은 자존감향상, 인간관계훈련, 리더십, 이미지메이킹 등의 활동 의미함

3) 취업준비교육은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의 활동을 의미함

*p < .05, **p < .01, ***p < .001

(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근로만족도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일자리로서 사업단 근로에 대한 만족감 수준은 아래와 같다. 3점이 보통 수준으로, 일자리로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에서 약간 더 만족스럽다고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는 근무일 수와 일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더 만족스럽다고 인식한 반면, 급여수준을 덜 만족스럽다고 인식하였다. 학력수준별로는 근무일 수 만족도에 서, 참여유형별로는 근무일 수 만족도 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중인 일자리 만족도



〈표 Ⅲ-9〉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중인 일자리 만족도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 먼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중인 일자리 만족도(종합)	(3.53)	(3.50)	(3.56)	(3.58)	(3.51)	(3.49)	(3.59)	-	(3.67)	(3.53)	(3.43)
		t=-0.935		t=-0.900		t=1.460		f=3.216*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급여수준 만족도	(3.06)	(2.99)	(3.11)	(3.16)	(3.01)	(2.98)	(3.14)	-	(3.18)	(3.03)	(3.01)
		t=-1.154		t=-1.438		t=1.612		f=0.945			
근무일수 만족도	(3.67)	(3.60)	(3.73)	(3.69)	(3.67)	(3.63)	(3.73)	-	(3.90)	(3.67)	(3.52)
		t=-1.492		t=-0.216		t=1.243		f=5.773**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근무시간 만족도	(3.63)	(3.61)	(3.64)	(3.66)	(3.61)	(3.59)	(3.68)	-	(3.78)	(3.63)	(3.52)
		t=-0.309		t=-0.583		t=1.060		f=2.768			
일의 강도 만족도	(3.66)	(3.64)	(3.68)	(3.72)	(3.64)	(3.63)	(3.71)	-	(3.76)	(3.69)	(3.55)
		t=-0.407		t=-0.957		t=0.949		f=1.913			

주1) '1점-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의미함

2) 본 문항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일자리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으로 참여유형에서 임파워먼트 형에게는 묻지 않음

*p < .05, **p < .01, ***p < .001

〈표 III-10〉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중인 일자리 만족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1인가구 여부	
		확대형 (n=210)	표준형 (n=292)	기본형 (n=34)	도시형 (n=451)	도농 복합형 (n=61)	농촌형 (n=24)	1인가구 (n=212)	1인가구 이외 (n=32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중인 일자리 만족도(종합)	(3.53)	(3.60)	(3.51)	(3.33)	(3.52)	(3.64)	(3.40)	(3.41)	(3.61)
		f=2.023			f=0.987			t=-2.946	
급여수준	(3.06)	(3.21)	(2.98)	(2.88)	(3.06)	(3.11)	(2.92)	(2.92)	(3.14)
		f=2.918			f=0.278			t=-2.151	
근무일수	(3.67)	(3.74)	(3.67)	(3.30)	(3.66)	(3.83)	(3.54)	(3.54)	(3.76)
		f=3.525*			f=1.172			t=-2.708	
근무시간	(3.63)	(3.67)	(3.62)	(3.52)	(3.62)	(3.70)	(3.54)	(3.49)	(3.72)
		f=0.465			f=0.290			t=-2.789	
일의 강도	(3.66)	(3.70)	(3.65)	(3.55)	(3.64)	(3.81)	(3.63)	(3.57)	(3.73)
		f=0.489			f=0.878			t=-2.946	

주1) '1점-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의미함

2) 본 문항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일자리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으로 참여유형에서 임파워먼트 형에게는 묻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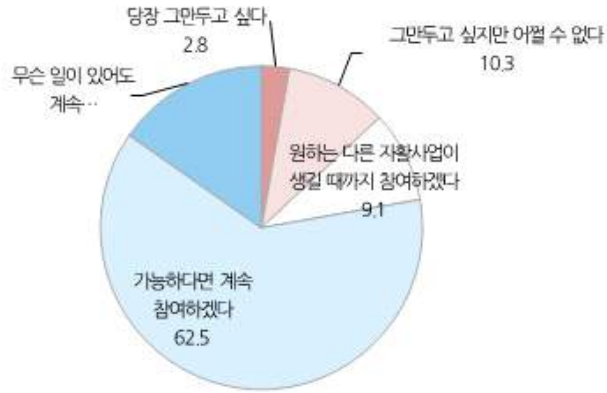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5) 향후 참여 의향

참여 청년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지속적인 참여 의향 정도는 다음 〈표 III-11〉과 같다. 3점이 보통 수준의 지속적 참여 의향으로, 참여 청년들은 가능하다면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참여자들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유형별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지속적 참여 의향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만족도_추후 참여 의향

(단위 : %)



〈표 III-1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속적 참여 의향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속적 참여 의향	2.23	2.32***	2.15***	2.24	2.22	2.27	2.18	2.22**	2.10**	2.14**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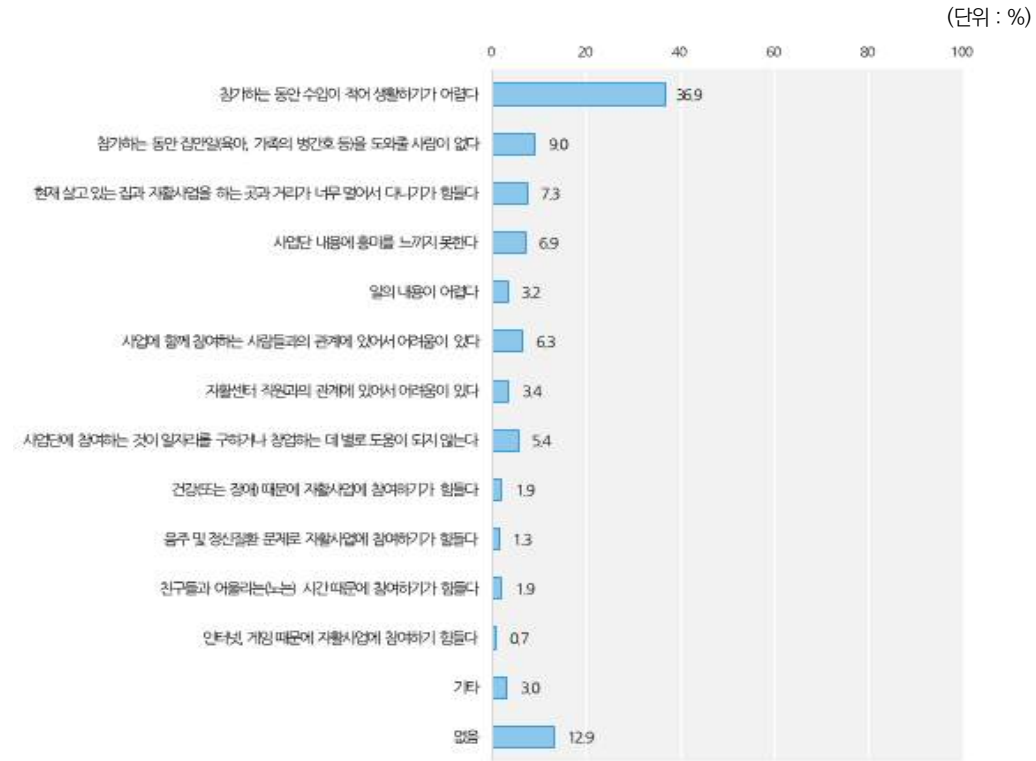
주: '1점-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참여'에서 '5점-당장 그만두고 싶음'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지속적 참여 의향이 높음을 의미함

*p < .05, **p < .01, ***p < .001

(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어려운 이유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 참여 청년의 약 37%가 적은 수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돌봄 및 집안일, 교통 어려움, 재미없음, 일이 어려움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참여 청년들은 적은 수입, 기타, 사업단 동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등을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응답한 반면, 여성 참여 청년들은 적은 수입, 가족돌봄 및 집안일 등을 이유로 들어 가족 내 성역할이 사업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II-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만족도_적극참여 애로사항(1순위)



〈표 III-12〉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1순위)

(단위 : %)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적은 수입	36.9	41.5	33.2	34.1	38.3	41.6	31.6	32.4	38.1	40.5	32.9
가족돌봄 및 집안일	9.0	4.6	12.5	9.1	8.9	8.7	9.2	10.3	9.5	10.0	6.3
교통 어려움	7.3	6.6	7.8	7.4	7.2	6.6	8.0	5.9	8.6	8.2	5.6
재미없음	6.9	5.4	8.1	7.4	6.7	7.7	6.0	0.0	9.5	5.5	10.5
일이 어려움	3.2	2.5	3.7	3.4	3.1	3.8	2.4	0.0	4.8	2.7	4.2
사업단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	6.3	7.5	5.4	8.0	5.6	4.9	8.0	8.8	2.9	5.9	8.4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센터 직원들과의 관계가 어려움	3.4	2.9	3.4	2.8	3.6	3.1	3.6	4.4	2.9	2.3	4.9
앞으로의 구직 및 창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	5.4	6.6	4.4	4.5	5.8	6.3	4.4	4.4	2.9	4.5	9.4
건강 문제	1.9	2.9	1.0	0.6	2.5	1.4	2.4	0.0	0.0	3.2	2.1
음주 및 정신질환문제	1.3	0.8	1.7	2.8	0.6	0.3	2.4	1.5	0.0	1.4	2.1
친구들과 노느라	1.9	1.2	2.4	1.1	2.2	1.7	2.0	0.0	1.9	2.7	1.4
인터넷 및 게임 하느라	0.7	0.4	1.0	1.1	0.6	1.0	0.4	1.5	0.0	0.9	0.7
기타	15.8	17.0	14.9	17.6	15.0	12.6	19.6	30.8	18.9	12.2	11.5

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사업 참여 후 변화에 대한 인지

(1) 고용희망 변화에 대한 인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정서적 자활의 한 차원으로 ‘정서적으로 역량이 강화되고 현실적 재정적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고용희망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II-13>과 같이 고용희망의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다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고용희망이 더 많이 변화하였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차원에서 성별로는 기술과 자원 활용, 학력수준별로는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지향, 기술과 자원활용, 참여유형별로는 목적지향의 인지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13〉 고용희망 변화에 대한 인지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 먼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고용희망 총합(총합)	3.67	3.68	3.66	3.80*	3.61*	3.66	3.68	3.75	3.78	3.60	3.65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54	3.52	3.55	3.66	3.47	3.52	3.56	3.54	3.61	3.48	3.56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79	3.79	3.78	3.92**	3.72**	3.78	3.79	3.93	3.89	3.72	3.74
목적지향	3.76	3.79	3.73	3.90**	3.69**	3.76	3.76	3.90**	3.93**	3.68**	3.70**
기술과 자원활용	3.67	3.71*	3.64*	3.76**	3.62**	3.66	3.68	3.72	3.80	3.60	3.66

주1) '1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매우 그러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음

2) 고용희망은 4개 차원 17개 문항으로 구성됨. 여기서는 하위 차원값까지만 제시함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차원은 '나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일하거나 직장을 찾을 때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하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됨.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은 '나는 미래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됨

'목적지향' 차원은 '나는 나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위한 길 위에 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됨

'기술과 자원 활용'은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됨

*p < .05, **p < .01, ***p < .001

(2) 고용장벽 극복에 대한 인지

다음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고용장벽 극복 수준에 대한 인지 수준은 다음 〈표 III-14〉와 같다. 3점이 보통 수준으로, 고용장벽 극복에 대한 인지 수준은 보통 수준을 다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차원별로 참여 청년들은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과 관련한 장벽 극복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한 반면,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및 건강 관련 장벽 극복 관련 경험을 낮게 인지하였다. 성별에 따라 여성에 비해 남성 참여자들이 삶에 대한 통제력 및 건강 관련 장벽 극복 경험 정도가 높았으며, 참여유형에 따라 취업지원형 참여자들이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을 극복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였다.

〈표 Ⅲ-14〉 고용장벽 극복에 대한 인지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고용장벽 극복에 대한 인지 총합(종합)	3.17	3.21	3.14	3.19	3.17	3.18	3.17	3.15	3.31	3.14	3.14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극복	3.39	3.40	3.38	3.38	3.39	3.41	3.37	3.34*	3.59*	3.32*	3.37*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극복	3.09	3.15*	3.05*	3.08	3.10	3.08	3.10	3.08	3.17	3.06	3.08
가족 관련 장벽 극복	3.13	3.18	3.10	3.18	3.11	3.14	3.12	3.12	3.27	3.12	3.07
건강 관련 장벽 극복	3.03	3.08*	2.98*	3.08	3.00	3.01	3.04	2.96	3.18	3.00	2.98

주1) '1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매우 그러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음

2) 고용장벽은 4개 차원 15개 문항으로 구성됨. 여기서는 하위 차원값까지만 제시함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극복' 차원은 '우리가족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이 나아졌다', '직업관련 경력이 생겼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됨.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극복' 차원은 '충동구매, 과도한 지출 등 재정적 문제가 완화되었다', '술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됨

'가족관련 장벽 극복' 차원은 '가족 간의 불화 및 단절이 줄어들었다', '지지해주는 사람 혹은 환경이 늘어났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됨

'건강 관련 장벽 극복' 차원은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가 나아졌다' 등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됨

*p < .05, **p < .01, ***p < .001

(3) 진로준비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Ⅲ-15〉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유형별로는 취업지원형 및 임파워먼트 I 형 참여자들의 진로준비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았다.

〈표 III-15〉 자신의 진로준비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진로행동에 대한 인지 총합(종합)	3.61	3.65	3.59	3.80**	3.52**	3.61	3.62	3.78***	3.83***	3.51***	3.54***

주1) '1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매우 그러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행동 수행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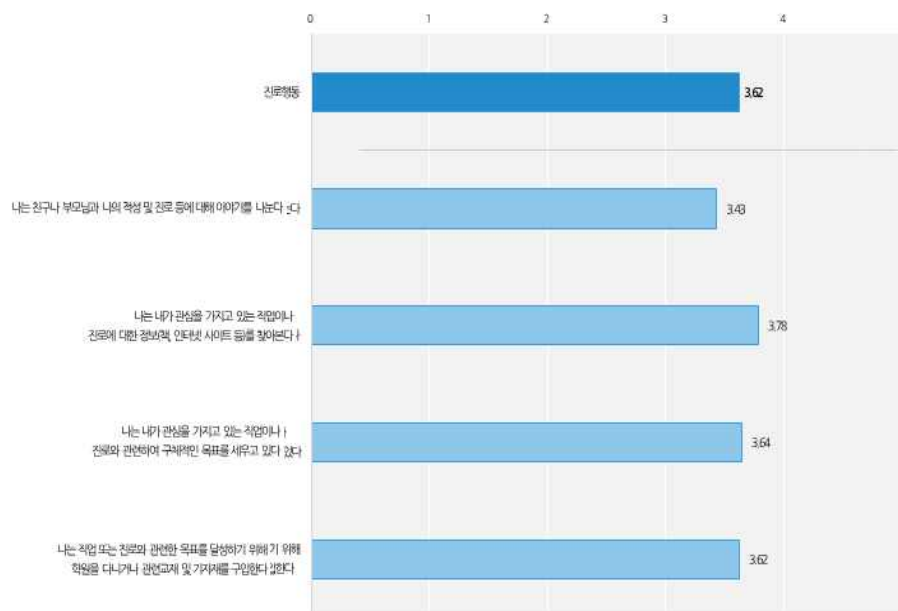
주2) 진로행동은 '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봄',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진로와 관련 구체적인 목표를 세움', '나는 직업/진로와 관련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교재/기자재를 구입함'의 4문항으로 구성됨

*p < .05, **p < .01, ***p < .001

항목별로는,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책, 인터넷 사이트 등)를 찾아본다(3.78점)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3.43점)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7〉 진로행동 항목

(단위 : 점)



〈표 III-16〉 진로행동(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 먼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진로행동 (종합)	(3.62)	(3.65)	(3.59)	(3.80)	(3.52)	(3.61)	(3.62)	(3.78)	(3.83)	(3.51)	(3.54)
		t=0.875		t=-4.392***		t=0.083		f=6.121*** 창업지원형,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43)	(3.45)	(3.42)	(3.57)	(3.37)	(3.44)	(3.43)	(3.63)	(3.52)	(3.35)	(3.41)
		t=0.403		t=-2.177*		t=-0.104		f=1.881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책, 인터넷 사이트 등)를 찾아본다	(3.78)	(3.82)	(3.75)	(3.95)	(3.70)	(3.78)	(3.78)	(3.99)	(3.99)	(3.70)	(3.65)
		t=1.067		t=-3.612***		t=0.004		f=5.964*** 자활근로형, 창업지원형<임파워먼트, 취업지원형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3.64)	(3.67)	(3.61)	(3.86)	(3.53)	(3.63)	(3.65)	(3.65)	(3.95)	(3.52)	(3.58)
		t=0.767		t=-4.582***		t=0.294		f=6.371*** 창업지원형, 자활근로형<취업지원형			
나는 직업 또는 진로와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교재 및 기자재를 구입한다	(3.62)	(3.65)	(3.59)	(3.84)	(3.51)	(3.61)	(3.62)	(3.84)	(3.87)	(3.48)	(3.54)
		t=0.696		t=-3.991***		t=0.099		f=5.705*** 창업지원형 <임파워먼트, 취업지원형			

*p < .05, **p < .01, ***p < .001

(4) 나와 가족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나와 내 가족의 미래상황에 대한 전망 수준은 다음 〈표 III-17〉와 같다. 전반적으로 1.9점으로 ‘1점-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2점-다소 나아질 것이다’ 사이이나 2점에 가까웠다. 이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을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나와 가족 상황이 나아지거나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표 III-18〉

과 같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본인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0.9%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 나빠져서가 약 30%로 나타났으며, 일하지 못하거나 버는 돈이 줄어서, 부채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나와 내 가족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1.90	1.89	1.90	1.74	1.93	1.86	1.72	1.83	1.91	2.00

주: '1점-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2점-다소 나아질 것이다', '3점-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점-지금보다 힘들어질 것이다', '5점-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함을 의미함

〈표 III-18〉 나와 가족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전체 (n=536)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전체 (n=536)
본인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늘어서	80.9	일을 하지 못하거나 버는 돈이 줄어서	26.1
자녀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늘어서	0.7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서	-
자녀로 인한 지출(교육비 등)이 줄어서	1.0	자녀로 인한 지출(교육비 등)이 늘어서	8.7
의료비가 줄어서	0.7	의료비가 늘어서	-
국가의 도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으로	6.5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서	8.7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0.2	나와 가족의 건강이 나빠져서	30.4
친척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0.5	친척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서	4.3
부채나 신용불량 상태가 해결되어서	4.6	부채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13.0
본인 또는 가구원의 건강이 좋아져서	1.9	사적보험(민간보험)이 없어서	4.3
사적보험(민간보험)이 있어서	-	기타	.2
기타	3.0		

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진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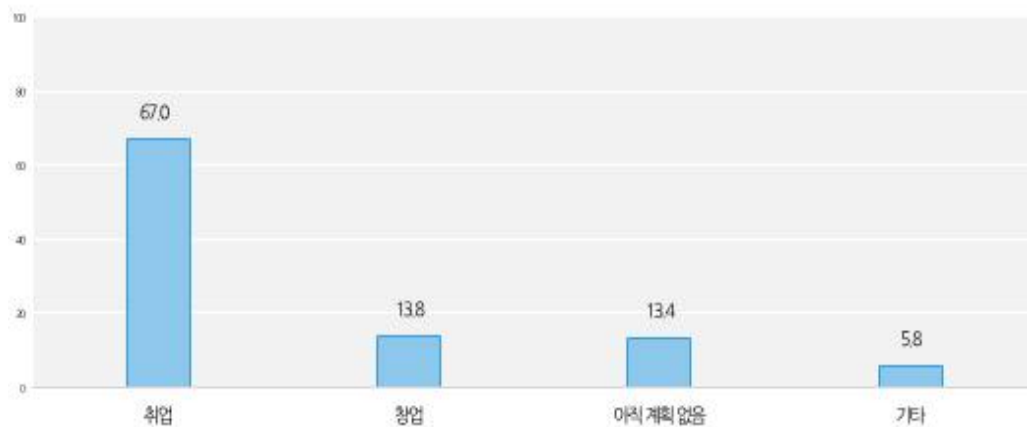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가 계획하는 자립의 방향,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참여청년의 상당수인 67%가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창업 13.8%, 아직계획없음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청년의 47.2%가 자립시기를 2~3년 이내로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 이내 22%, 3~4년 17.2% 순이었다. 자립가능성에 대해서는 '2점-가능성 높음'과 '3점-보통' 사이로 자립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인식하였다. 성별에 따라 남성이 자립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참여사업유형별로 취업지원형과 임파워먼트형의 자립가능성을 창업지원형 및 자활근로형 사업 참여자에 비해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유형별로는 지역여건 유형별로 농촌형은 참여자는 여타 유형 참여자들에 비해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41.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8〉 향후 자립 계획

(단위 : %)



〈표 III-19〉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가 계획하는 자립: 방향, 가능성 및 시기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자립 방향 (%)	취업	67	68	66.1	80.7	60.3	67.1	66.8	75.0	84.8	55.5	67.8
	창업	13.8	13.7	13.9	9.1	16.1	15.7	11.6	8.8	5.7	19.1	14.0
	기타	13.4	12.0	14.6	7.4	16.4	11.9	15.2	10.3	5.7	19.1	11.9
	모름	5.8	6.2	5.4	2.8	7.2	5.2	6.4	5.9	3.8	6.4	6.3
자립가능성 ¹⁾ (단위 : 점)		2.44	2.41*	2.46*	2.31	2.50	2.43	2.44	2.29**	2.25**	2.57**	2.44**
자립 시기 (%)	1년이내	22.0	22.8	21.4	33.5	16.4	23.1	20.8	26.5	26.7	16.8	24.5
	2~3년	47.2	47.7	46.8	46.0	47.8	49.3	44.8	50.0	54.3	45.0	44.1
	3~4년	17.2	17.4	16.9	11.4	20.0	16.4	18.0	7.4	9.5	25.0	15.4
	4~5년	6.3	6.6	6.1	2.8	8.1	5.6	7.2	5.9	6.7	4.5	9.1
	5년 이상	7.3	5.4	8.8	6.3	7.8	5.6	9.2	10.3	2.9	8.6	7.0

주1) '1점-가능성 매우 높음', '2점-가능성 높음', '3점-보통', '4점-가능성 낮은 편', '5점-가능성 매우 낮음'으로 점수가 낮을 수록 자립가능성 높게 인지함을 의미

*p < .05, **p < .01, ***p < .001

〈표 III-20〉 향후 자립 계획(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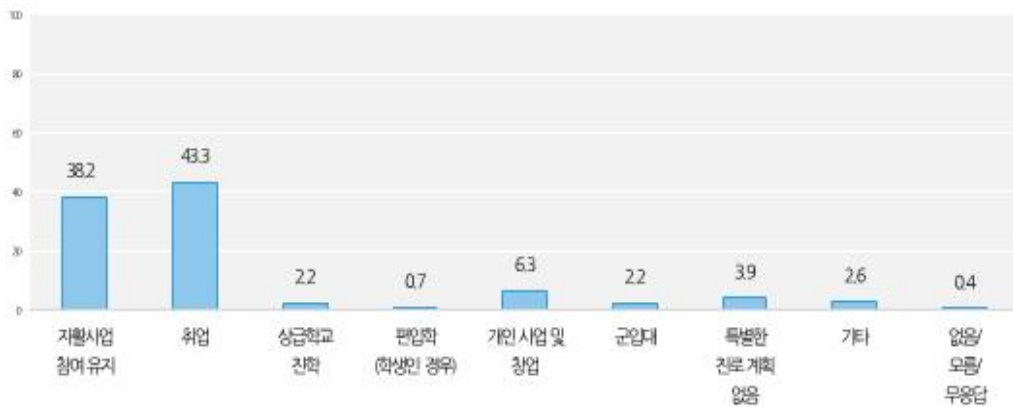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n=536)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1인가구 여부	
		확대형 (n=210)	표준형 (n=292)	기본형 (n=34)	도시형 (n=451)	도농 복합형 (n=61)	농촌형 (n=24)	1인가구 (n=212)	1인가구 이외 (n=3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	67.0	70.5	64.0	70.6	69.2	60.7	41.7	66.5	67.3
창업	13.8	13.8	14.7	5.9	14.0	9.8	20.8	13.7	13.9
아직 계획 없음	13.4	10.0	15.8	14.7	10.9	26.2	29.2	11.8	14.5
기타	5.8	5.7	5.5	8.8	6.0	3.3	8.3	8.0	4.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1년 뒤 예상 진로 1순위 응답으로는 ‘취업’(43.3%)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어서 ‘자활사업 참여유지’(38.2%), ‘개인 사업 및 창업’(6.3%)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없음/모름/무응답’ 0.4%).

〈그림 III-9〉 1년 뒤 예상 진로(1순위)

(단위 : %)



〈표 III-21〉 1년 뒤 예상 진로(1순위)(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단위 : %)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 먼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활사업 참여 유지	38.2	34.9	41.0	31.8	41.4	34.3	42.8	35.3	22.9	43.2	43.4
취업	43.3	44.4	42.4	55.1	37.5	46.2	40.0	44.1	61.9	35.5	41.3
상급학교 진학	2.2	3.3	1.4	1.1	2.8	1.7	2.8	4.4	1.0	2.3	2.1
편입학(학생인 경우)	0.7	0.4	1.0	1.1	0.6	0.7	0.8	1.5	1.0	-	1.4
개인 사업 및 창업	6.3	5.0	7.5	4.0	7.5	7.7	4.8	5.9	2.9	9.5	4.2
군입대	2.2	5.0	-	-	3.3	2.1	2.4	-	1.9	2.7	2.8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3.9	2.5	5.1	2.8	4.4	4.5	3.2	2.9	4.8	5.5	1.4
기타	2.6	4.1	1.4	3.4	2.2	2.4	2.8	5.9	3.8	1.4	2.1
모름	0.4	0.4	0.3	0.6	0.3	0.3	0.4	-	-	-	1.4

〈표 III-22〉 1년 뒤 예상 진로(1순위)(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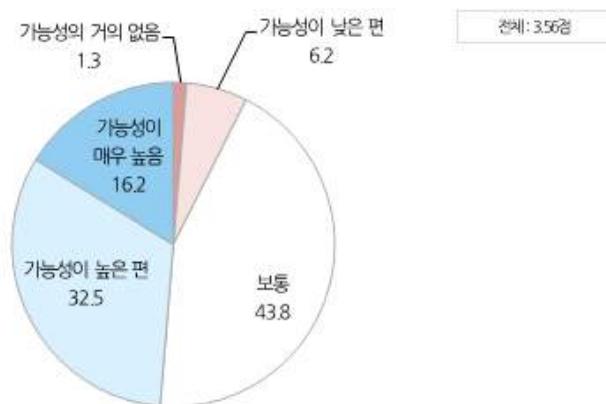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n=536)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1인가구 여부	
		확대형 (n=210)	표준형 (n=292)	기본형 (n=34)	도시형 (n=451)	도농 복합형 (n=61)	농촌형 (n=24)	1인가구 (n=212)	1인가구 이외 (n=3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활사업 참여 유지	38.2	40.5	36.3	41.2	37.3	42.6	45.8	37.7	38.6
취업	43.3	41.0	45.5	38.2	44.8	34.4	37.5	44.3	42.6
상급학교 진학	2.2	2.9	1.7	2.9	2.4	-	4.2	3.3	1.5
편입학(학생인 경우)	0.7	1.0	0.7	-	0.9	-	-	0.5	0.9
개인 사업 및 창업	6.3	6.7	6.2	5.9	6.0	9.8	4.2	4.7	7.4
군입대	2.2	1.9	2.4	2.9	2.0	4.9	-	1.4	2.8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3.9	2.4	5.5	-	3.3	6.6	8.3	3.8	4.0
기타	2.6	3.3	1.4	8.8	2.9	1.6	0.0	3.8	1.9
모름	0.4	0.5	0.3	-	0.4	-	-	0.5	0.3

취창업 자립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가능성이 높음’(매우 16.2% + 높은 편 32.5%)이라는 의견이 48.7%로 응답된 반면,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1.3% + 낮은 편 6.2%)이라는 의견은 7.5%로 응답되었다.

〈그림 III-10〉 취창업 자립가능성

(단위 : %)



〈표 III-23〉 취창업 자립가능성(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먼 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취창업 자립가능성	(3.56)	(3.59)	(3.54)	(3.69)	(3.50)	(3.57)	(3.56)	(3.71)	(3.75)	(3.43)	(3.56)

주1) '1점 가능성이 매우높다', '2점-가능성이 높은편이다', '3점-보통이다', '4점-가능성이 낮은편이다', '5점- 가능성이 거의없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함을 의미함

〈표 III-24〉 취창업 자립가능성(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536)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1인가구 여부	
		확대형 (n=210)	표준형 (n=292)	기본형 (n=34)	도시형 (n=451)	도농 복합형 (n=61)	농촌형 (n=24)	1인가구 (n=212)	1인가구 이외 (n=324)	
취창업 자립가능성	(3.56)	(3.66)	(3.48)	(3.62)	(3.59)	(3.49)	(3.21)	(3.60)	(3.54)	

주1) '1점 가능성이 매우높다', '2점-가능성이 높은편이다', '3점-보통이다', '4점-가능성이 낮은편이다', '5점- 가능성이 거의없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함을 의미함

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구직 경험, 욕구 및 구직 노력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구직 경험 및 원하는 일자리 형태는 다음 〈표 III-25〉와 같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17%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외 근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청년들의 약 35%인 187명은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으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인 58.8%는 구직을 하지 못하였으며, 24.1%는 일자리를 구했으나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으며 17.1%는 현재 구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술 부족이 28.9%, 낮은 학력 9.6%로 낮은 인적자본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뒤를 이어 내가 원하는 일자리 부족 12.8%, 가족돌봄 8.6%, 경력단절 8.0%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로는 참여 청년의 41.7%가 규칙적 전일제를 희망하였으며, 뒤를 이어 관계없음, 규칙적 시간제, 자율근무제 등의 순으로 희망하였다.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47.6%의 청년이 200-250만 원의 임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0-200만 원 20.9%, 250-300만 원 15.0% 순이었다.

〈그림 Ⅲ-11〉 1년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



〈표 Ⅲ-2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구직 경험 및 원하는 일자리 형태

(단위 : %)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 먼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사업 외 근로 중 비율(%)	n=91 17.0	15.8	18.0	14.2	18.3	16.8	17.2	14.7	14.3	18.6	17.5
지난 1년간 구직 경험 있음(%)	n=187 34.9	40.2	30.5	41.5	31.7	28.0	42.8	33.8	38.1	33.2	35.7

	전체 (n=187)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 먼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일자리 구했으며 일하고 있음(%) (n=32)	17.1	17.5	16.7	16.4	17.5	13.8	19.6	8.7	25.0	21.9	7.8
일자리 구했으나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음(%) (n=45)	24.1	22.7	25.6	20.5	26.3	18.8	28.0	30.4	20.0	21.9	27.5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사업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 먼트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일자리 구하지 못함 (%)(n=110)	58.8	59.8	57.8	63.0	56.1	67.5	52.3	60.9	55.0	56.2	64.7
희망 하는 고용 형태	규칙적전일제	41.7	41.2	42.2	36.0	50.7	38.3	46.3	52.2	42.5	37.0
	규칙적시간제	18.2	17.5	18.9	18.4	17.8	20.6	13.0	20.0	15.1	23.5
	자율근무제	11.8	10.3	13.3	8.8	16.4	11.2	12.5	8.7	22.5	11.0
	자영업	4.8	4.1	5.6	7.9	0.0	4.7	5.0	0.0	2.5	6.8
	관계없음	19.8	21.6	17.8	24.6	12.3	21.5	17.5	21.7	12.5	23.3
	기타	3.7	5.3	2.2	4.3	2.8	3.7	3.7	4.4	0	6.8
희망 하는 임금 수준	150만원미만	2.7	2.1	3.3	0	4.4	2.5	2.8	4.3	0.0	1.4
	150~200만원	20.9	15.5	26.7	12.3	26.3	22.5	19.6	13.0	20.0	30.1
	200~250만원	47.6	44.3	51.1	53.4	43.9	47.5	47.7	39.1	57.5	45.2
	250~300만원	15.0	22.7	6.7	15.1	14.9	10.0	18.7	21.7	5.0	12.3
	300만원이상	13.9	15.5	12.2	19.2	10.5	17.5	11.2	21.7	17.5	11.0
구직 어려운 이유	기술부족	28.9	33.0	24.4	26.0	30.7	25.0	31.8	26.1	40.0	35.6
	낮은학력	9.6	6.2	13.3	4.1	13.2	8.8	10.3	8.7	10.0	5.5
	나이	6.4	6.2	6.7	9.6	4.4	10.0	3.7	4.3	5.0	6.8
	정보부족	5.9	3.1	8.9	9.6	3.5	5.0	6.5	4.3	2.5	6.8
	가족돌봄	8.6	5.2	12.2	8.2	8.8	10.0	7.5	8.7	7.5	5.5
	건강	7.0	11.3	2.2	4.1	8.8	7.5	6.5	0.0	0.0	12.3
	경력단절	8.0	8.2	7.8	11.0	6.1	8.8	7.5	17.4	7.5	2.7
	내가 원하는 일자리 부족	12.8	15.5	10.0	12.3	13.2	13.8	12.1	8.7	12.5	12.3
	기타	12.8	11.3	14.5	15.1	11.3	11.1	14.1	21.8	1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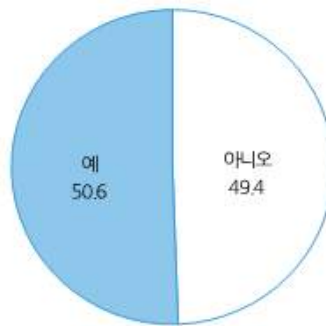
한편,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경험은 다음 <표 III-28>과 같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대다수인 77.8%는 자격증 취득을 하였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5개월 미만이 7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한 자격증 유형으로는 1순위의 경우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 20.9%, 운전면허 15.1% 순이었다.

2순위의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2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바리스타 19.0%, 운전면허 15.7% 등의 순이었다. 3순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바리스타, 운전면허 자격증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 것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의 근로 업종 중 카페가 가장 많은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그림 III-1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기간/종료 후 자격증 취득 여부

(단위 : %)



〈표 III-2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기간/종료 후 자격증 취득 여부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별, 참여유형별)

(단위 : %)

구분	전체 (n=536)	성별		학력수준별		참여기간		참여유형			
		남 (n=241)	여 (n=295)	대졸 이상 (n=176)	고졸 이하 (n=360)	1년 이상 (n=286)	1년 미만 (n=250)	임파워 먼트1 (n=68)	취업 지원형 (n=105)	창업 지원형 (n=220)	자활 근로형 (n=14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	50.6	49.4	51.5	47.7	51.9	58.4	41.6	54.4	55.2	50.9	44.8
아니오	49.4	50.6	48.5	52.3	48.1	41.6	58.4	45.6	44.8	49.1	55.2

〈표 Ⅲ-27〉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기간/종료 후 자격증 취득 여부
(센터 규모별, 유형별, 1인가구 여부별)

(단위 : %)

구분	전체 (n=536)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1인가구 여부	
		확대형 (n=210)	표준형 (n=292)	기본형 (n=34)	도시형 (n=451)	도농 복합형 (n=61)	농촌형 (n=24)	1인가구 (n=212)	1인가구 이외 (n=3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	50.6	57.6	45.9	47.1	50.8	52.5	41.7	50.5	50.6
아니오	49.4	42.4	54.1	52.9	49.2	47.5	58.3	49.5	49.4

〈표 Ⅲ-28〉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경험 (도움되는 순)

(단위 : %)

		빈도		백분율			
자격증 취득 소요시간 (n=417)	5개월 미만	299		71.7			
	5개월 이상	118		28.3			
		1순위 (n=417)		2순위 (n=216)		3순위 (n=141)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취득한 자격증 유형	바리스타	128	30.7	41	19.0	19	13.5
	컴퓨터	87	20.9	50	23.1	37	26.2
	운전면허	63	15.1	34	15.7	18	12.8
	사회복지사	29	7.0	10	4.6	12	8.5
	기능사	21	5.0	23	5.6	6	4.3
	교육/공무원 관련	21	5.0	13	6.0	6	4.3
	세무회계	17	4.1	6	2.8	8	5.7
	간호조무	9	2.2	2	.9	2	1.4
	이미용사	7	1.7	4	1.9	3	2.1
	공예	6	1.4	6	2.8	5	3.5
	마케터	6	1.4	1	.5	2	1.4
	안전관리	5	1.2	8	3.7	4	2.8
	어학	5	1.2	7	3.2	5	3.5
	심리상담	5	1.2	4	1.9	3	2.1
	가정복지사	5	1.2	8	3.7	3	2.1
	반려동물	2	.5	7	3.2	1	.7
	정리수납	1	.2	3	1.4	7	5.0

주: 취득한 자격증 유형 각 순위별 백분율은 해당 순위 내에서의 비율임

2.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

(1)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소속 센터 특성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III-29>와 같다. 조사에 참여한 실무자는 총 78명으로, 2021년 11월 기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운영 중인 지역자활센터의 담당자 전원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소속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사업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5.1%)이며, 전체 실무자의 82.1%가 사회복지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 소속 지역자활센터의 규모별 현황은 표준형 56.4%, 확대형 34.6%, 기본형 9.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여건 유형별로는 도시형 지역자활센터 소속 실무자 비중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9>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사례수(명)	백분율(%)
전체		78	100.0
해당 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경력	1년 미만	35	44.9
	1년 이상	43	55.1
자격/경력	직업상담사 자격/업무 경력 보유	19	24.4
	민간 기업재직 경험	29	37.2
	전산관련 자격 보유	21	26.9
	사회복지 관련 경력 보유	64	82.1
	기타	14	17.9
	확대형	27	34.6
지역자활센터 규모	표준형	44	56.4
	기본형	7	9.0
	도시형	60	76.9
지역여건 유형	도농복합형	12	15.4
	농촌형	6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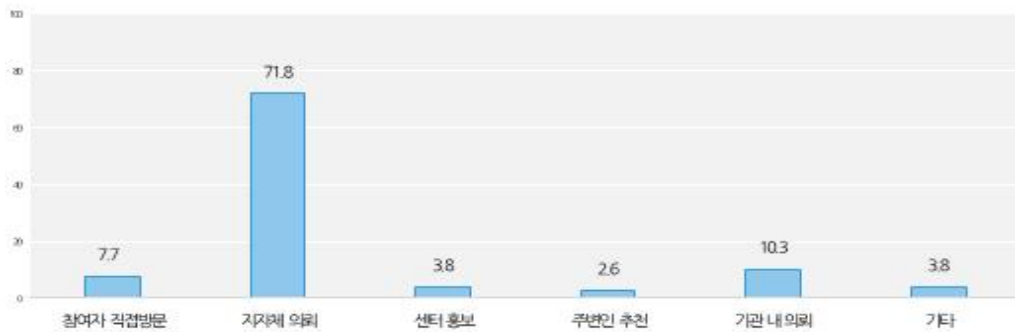
주: 자격/경력 보유여부는 다중응답 항목임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발굴 주요 경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대상자 발굴 주요 경로는 ‘지자체의뢰’가 7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기관 내 의뢰’(10.3%), ‘참여자 직접 방문’(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굴경로는 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지역여건 유형에 따라 달랐는데, 지역자활센터 규모별로는 확대형 센터의 기관 내 의뢰 비중이 18.5%로 여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기본형의 경우 참여자 직접방문 및 주변인 추천 비중이 각각 14.3%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여건 유형별로는 농촌형의 경우, 센터홍보나 지자체 의뢰 비율(16.7%)이 여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대상자 발굴 주요 경로(종합)

(단위 : %)



〈표 Ⅲ-30〉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대상자 발굴 주요 경로(센터 규모별, 유형별)

(단위 : %)

구분	전체 (n=78)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확대형 (n=27)	표준형 (n=44)	기본형 (n=7)	도시형 (n=60)	도농복합형 (n=12)	농촌형 (n=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참여자 직접방문	7.7	7.4	6.8	14.3	8.3	8.3	-
지자체 의뢰	71.8	70.4	72.7	71.4	70.0	83.3	66.7
센터 홍보	3.8	-	6.8	-	3.3	-	16.7
주변인 추천	2.6	-	2.3	14.3	1.7	-	16.7
기관 내 의뢰	10.3	18.5	6.8	-	11.7	8.3	-
기타	3.8	3.7	4.5	-	5.0	-	-

2) 업무 단계별 실무자 업무 수행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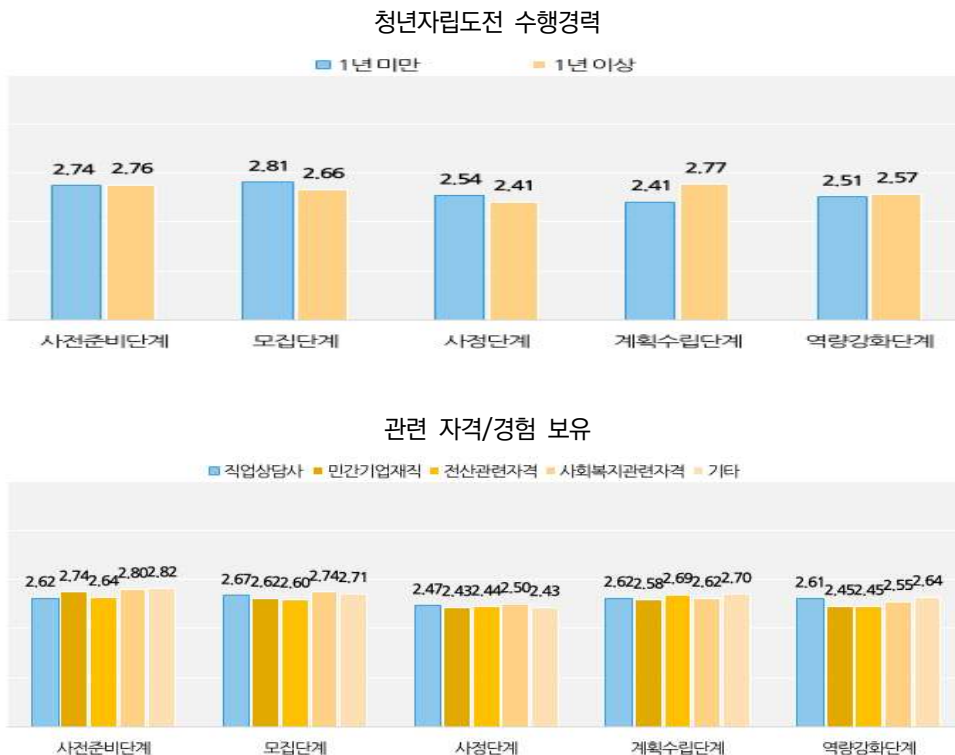
(1) 임파워먼트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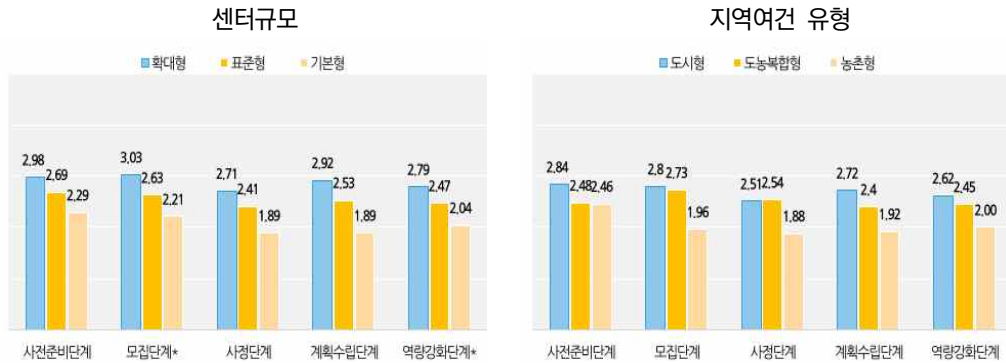
임파워먼트 1단계는 사전준비단계, 모집단계, 사정단계, 계획수립단계, 역량강화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의 업무 수행빈도를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III-14>와 같다. 2점이 연 1~4회 수행하는 정도로 업무 단계별 수행빈도는 대체로 그 이상인 2.5점 내외로 나타났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수행경력 별로는, 직업심리검사, ISP, IAP 등의 수립이 이루어지는 계획수립단계에서 업무 경력별 수행빈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청년자립도전 업무 경력이 높을수록 계획수립단계 업무를 더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규모 별로는 임파워먼트1 모든 단계에서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순으로 수행빈도가 높았다.

<그림 III-14> [임파워먼트1] 업무 단계별 수행빈도(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단위 : 점)





〈표 III-31〉 임파워먼트1] 단계별 업무수행빈도
(실무자 수행경력별, 관련업무 자격/경험 보유 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78)	자립도전 수행 경력		관련업무 자격/경험 보유				
		1년 미만 (n=35)	1년 이상 (n=43)	직업 상담사 자격/업무 경력 보유 (n=19)	민간 기업재직 경력 (n=29)	전산관련 자격 보유 (n=21)	사회복지 관련 경력 보유 (n=64)	기타 (n=14)
사전준비단계	(2.75)	(2.74)	(2.76)	(2.62)	(2.74)	(2.64)	(2.80)	(2.82)
		t=-0.103						
모집단계	(2.73)	(2.81)	(2.66)	(2.66)	(2.67)	(2.62)	(2.60)	(2.74)
		t=0.824						
사정단계	(2.47)	(2.54)	(2.41)	(2.41)	(2.47)	(2.43)	(2.44)	(2.50)
		t=0.724						
계획수립단계	(2.61)	(2.41)	(2.77)	(2.77)	(2.62)	(2.58)	(2.69)	(2.62)
		t=-1.636						
역량강화단계	(2.54)	(2.51)	(2.57)	(2.61)	(2.45)	(2.45)	(2.55)	(2.64)
		t= -0.907						

주: '1점-거의 수행하지 않음', '2점-년 1~4회 정도 수행함', '3점-월 1~3회 정도 수행함', '4점-주 1~2회 정도 수행함', '5점-주 3회 이상 거의 매일 수행함'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직무의 수행빈도가 잦음(이하 동일)

〈표 III-32〉 [임파워먼트1] 단계별 업무수행빈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78)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확대형 (n=27)	표준형 (n=44)	기본형 (n=7)	도시형 (n=60)	도농복합형 (n=12)	농촌형 (n=6)
사전준비단계	(2.75)	(2.98)	(2.69)	(2.29)	(2.84)	(2.48)	(2.46)
		f=2.567			f=1.477		
모집단계	(2.73)	(2.81)	(2.66)	(2.67)	(2.62)	(2.60)	(2.74)
		f=3.616*			f=2.927		
사정단계	(2.47)	(2.71)	(2.41)	(1.89)	(2.51)	(2.54)	(1.88)
		f=3.197*			f=1.729		
계획수립단계	(2.61)	(2.92)	(2.53)	(1.89)	(2.72)	(2.40)	(1.92)
		f=3.728*			f=2.351		
역량강화단계	(2.54)	(2.51)	(2.57)	(2.61)	(2.45)	(2.45)	(2.55)
		f=4.502*			f=2.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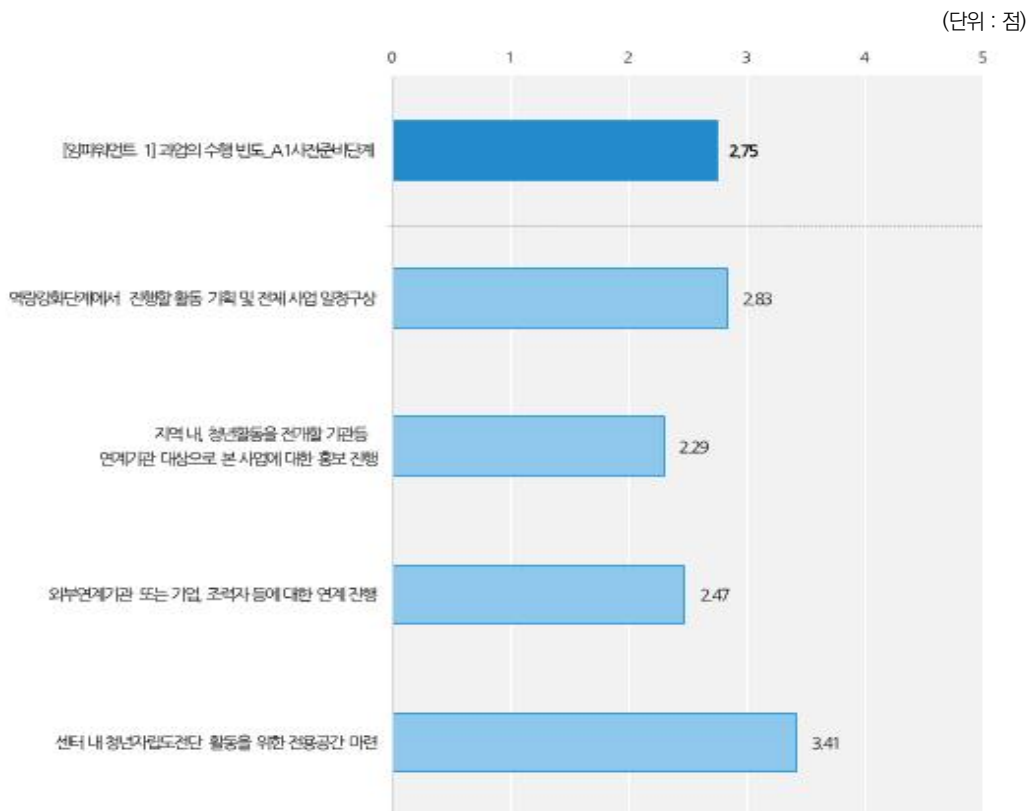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① 임파워먼트1: 사전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 과업 수행빈도의 종합 점수는 2.75점이며, 전반적으로 2점(연 1~4회 정도 수행함)과 3점(월 1~3회 정도 수행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센터 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3.4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량강화단계에서 진행할 활동 기획 및 전체 사업 일정구상(2.83점)이 상대적으로 수행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 내 청년활동을 전개할 기관 등 연계기관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홍보 진행(2.29점), 외부연계기관 또는 기업, 조력자 등에 대한 연계 진행(2.47점)의 수행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15〉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사전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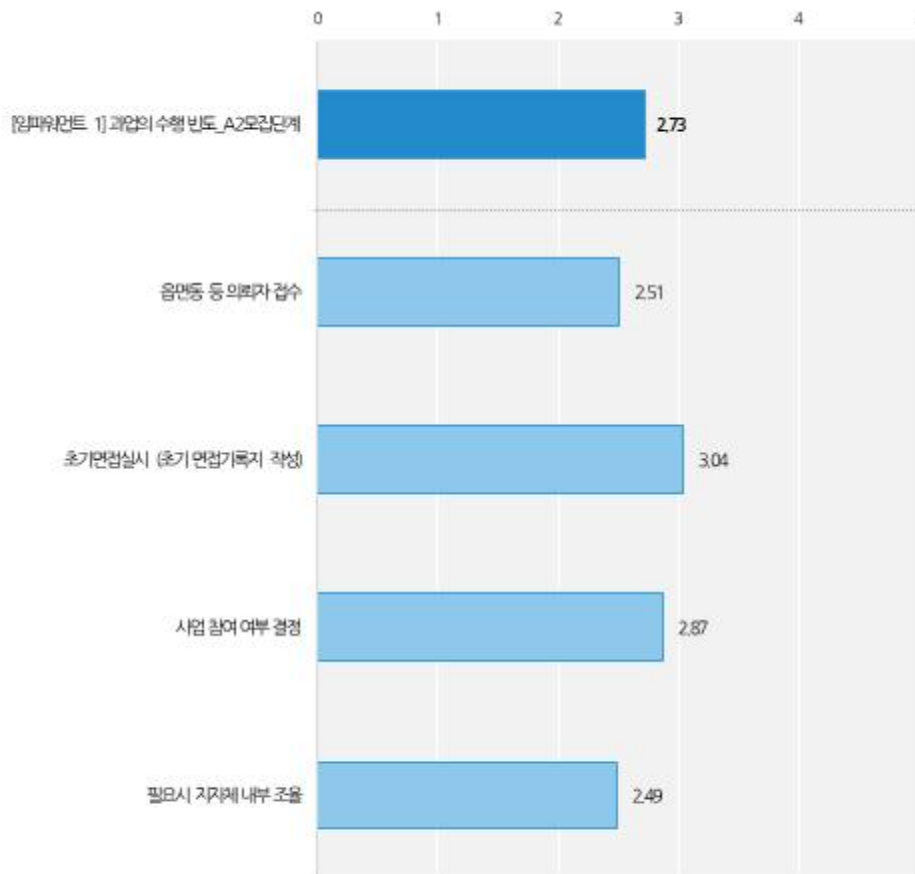


② 임파워먼트1: 모집단계

모집단계 과업 수행빈도는 아래 <그림 III-16>과 같다. 3점이 월 1~3회 정도 수행으로 모집업무 수행빈도는 이보다 조금 낮은 2.72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초기면접 실시가 가장 자주 이루어지고, 필요시 지자체 내부 조율 관련 업무 수행은 가장 적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6>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모집단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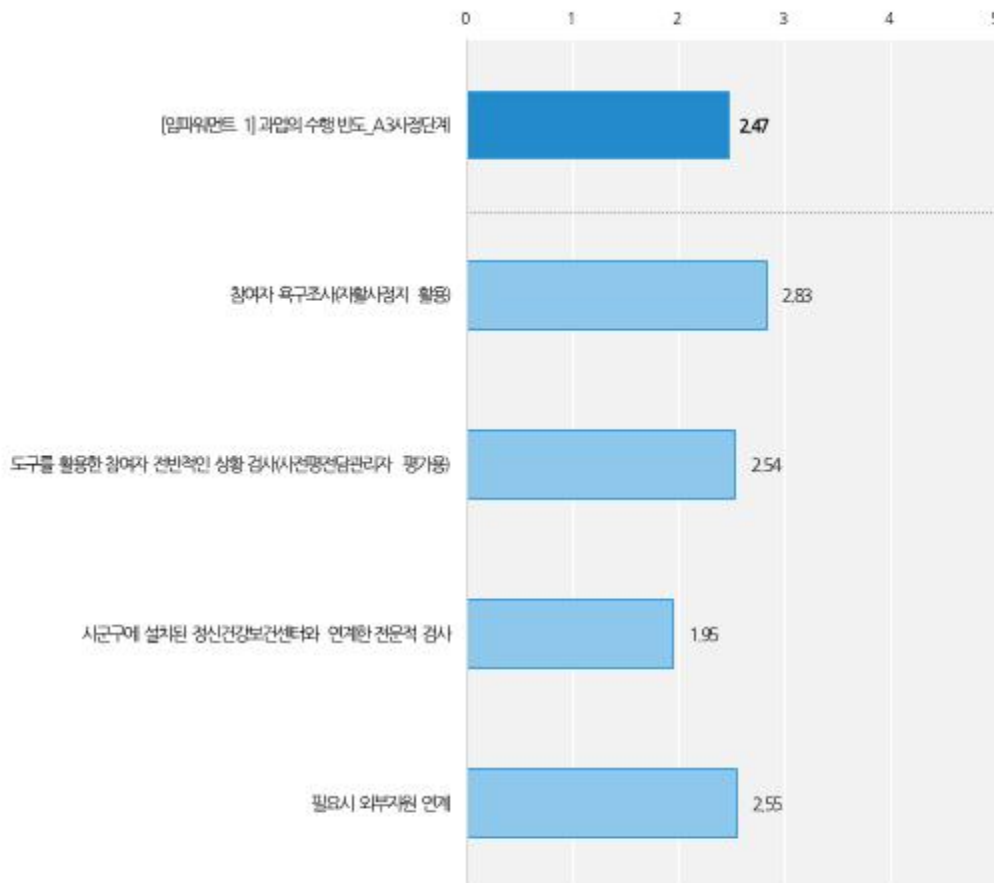
③ 임파워먼트1: 사정단계

사정단계 과업 수행빈도는 아래 <그림 Ⅲ-17>과 같다. 2점이 연 1~4회, 3점이 월 1~3회 사이로, 사정업무 수행빈도는 그 사이인 2.47점으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참여자 욕구조사(자활사정지 활용)(2.83점)의 수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연계한 전문적 검사(1.95점)의 수행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17>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사정단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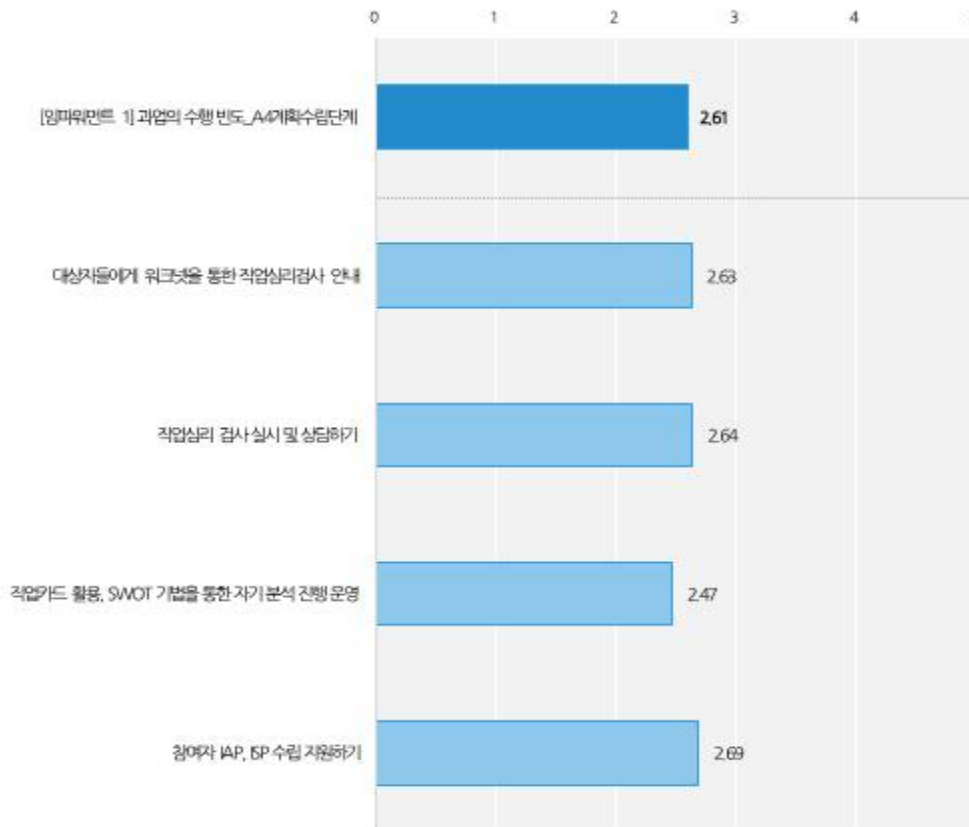
④ 임파워먼트1: 계획수립단계

계획수립단계 과업 수행빈도의 종합 점수는 2.61점이며, 전반적으로 2점(연 1~4회 정도 수행함)과 3점(월 1~3회 정도 수행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참여자 IAP, ISP 수립 지원하기(2.69점)의 수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업카드 활용, SWOT 기법을 통한 자기 분석 진행 운영(2.47점)의 수행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18〉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계획수립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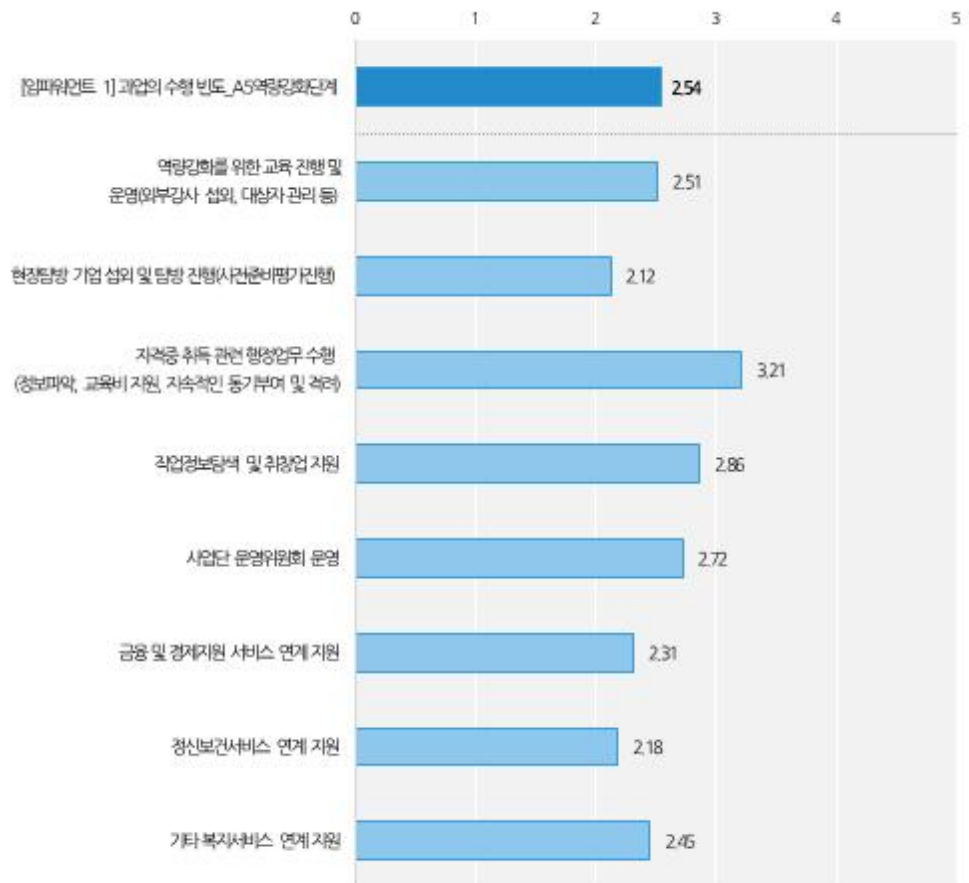
(단위 : 점)



⑤ 임파워먼트1: 역량강화단계

역량강화단계 과업 수행빈도는 평균 2.54점으로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특히 자격증 취득 관련 행정업무 (정보파악, 교육비 지원,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격려)를 가장 많이 수행했고, 그 밖에도 직업정보탐색 및 취창업지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진행 및 운영 업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역량강화단계에서 실무자들의 과업은 정서적 자활보다는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격과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림 Ⅲ-19〉 [임파워먼트1] 과업의 수행빈도_역량강화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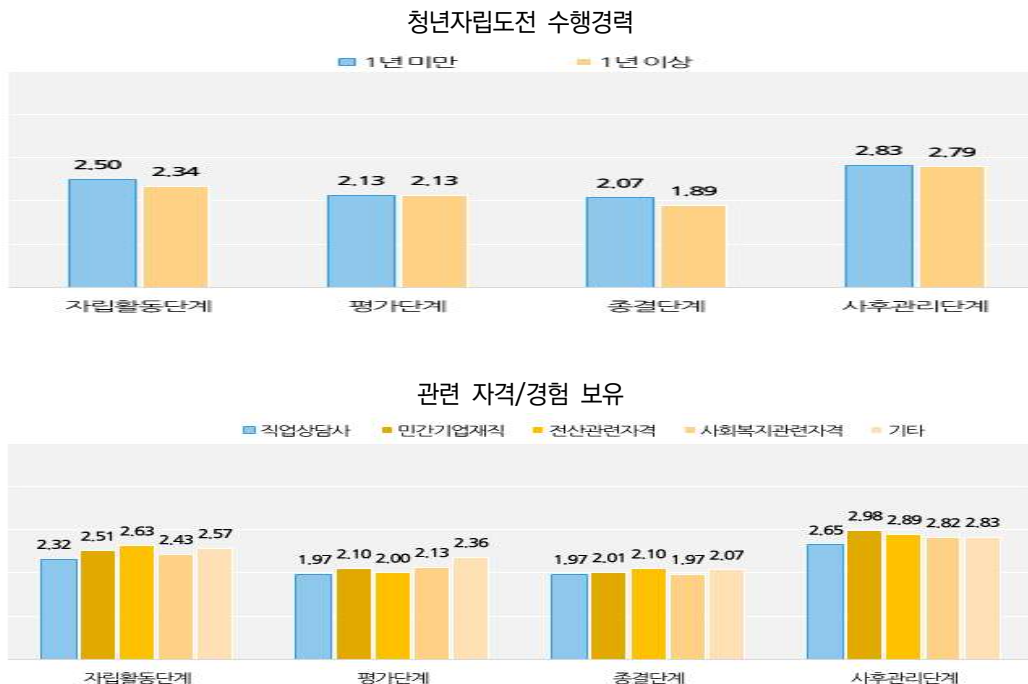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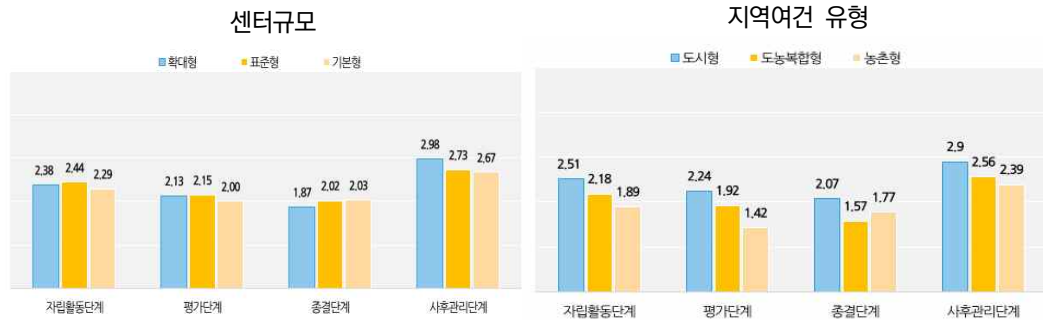
(2) 임파워먼트 2단계

임파워먼트 2단계는 자립활동단계, 평가단계, 종결단계, 사후관리단계로 구분된다. 자립활동단계에서 참여자는 본격적으로 근로활동을 시작하며, 실무자는 참여자의 근로활동관리, 중간점검 등을 통해 참여자의 적응 및 지속적 참여를 독려한다. 평가단계에서는 참여자 개별 상태 및 태도변화를 측정하여 참여자의 성장추이를 확인하는데, 사업 참여시점에서의 평가를 포함하여 총 4회 평가를 거친 후 참여자들의 종결여부가 결정된다. 종결 과정에서 수립한 사후관리 계획은 종결 후 최대 12개월 동안 실시한다. 위와 같은 임파워먼트 2단계 각 업무 단계별 수행빈도를 실무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III-20>과 같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수행경력별로 살펴보면, 임파워먼트2 모든 단계에서 경력이 짧은 경우에 과업 수행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경력에 상관없이 사후관리업무를 타 업무에 비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여건 유형별로는 종결 단계에서 유일하게 농촌형이 도농복합형보다 수행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0> [임파워먼트2] 업무 단계별 수행빈도(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표 III-33〉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자립도전 수행 경력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				
	전체 (n=78)	1년 미만 (n=35)	1년 이상 (n=43)	직업 상담사 자격/업무 경력 보유 (n=19)	민간 기업재직 경력 (n=29)	전산관련 자격 보유 (n=21)	사회복지 관련 경력 보유 (n=64)	기타 (n=14)
자립활동단계	(2.41)	(2.50)	(2.34)	(2.32)	(2.51)	(2.63)	(2.43)	(2.57)
		1.082						
평가단계	(2.13)	(2.13)	(2.13)	(1.97)	(2.10)	(2.00)	(2.13)	(2.36)
		0.004						
종결단계	(1.97)	(2.07)	(1.89)	(1.97)	(2.01)	(2.10)	(1.97)	(2.07)
		1.353						
사후관리	(2.81)	(2.83)	(2.79)	(2.65)	(2.98)	(2.89)	(2.82)	(2.83)
		0.165						

〈표 III-34〉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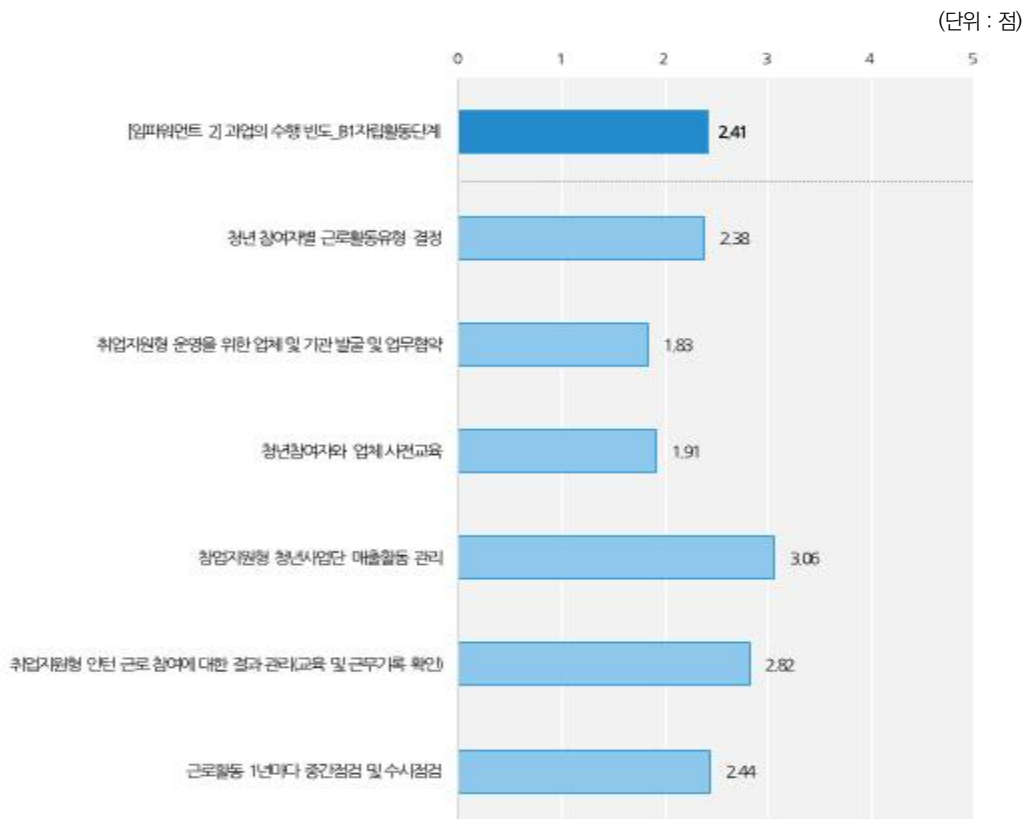
구분	전체 (n=78)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확대형 (n=27)	표준형 (n=44)	기본형 (n=7)	도시형 (n=60)	도농복합형 (n=12)	농촌형 (n=6)
자립활동단계	(2.41)	(2.38)	(2.44)	(2.29)	(2.51)	(2.18)	(1.89)
		f=0.209			f=3.638*		
평가단계	(2.13)	(2.13)	(2.15)	(2.00)	(2.24)	(1.92)	(1.42)
		f=0.122			f=4.482*		
종결단계	(1.97)	(1.87)	(2.02)	(2.03)	(2.07)	(1.57)	(1.77)
		f=0.535			f=4.403*		
사후관리	(2.81)	(2.98)	(2.73)	(2.67)	(2.90)	(2.56)	(2.39)
		f=0.583			f=1.165		

*p < .05, **p < .01, ***p < .001

① 임파워먼트1: 자립활동단계

자립활동단계 수행빈도평균점수는 2.41점으로 연 1~4회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과업별로는 창업지원형 청년사업단 매출활동 관리, 취업지원형 인턴 근로 참여에 대한 결과와 관리(교육 및 근무기록 확인), 근로활동 중간점검 순으로 수행빈도가 높았고, 청년참여자와 업체 사전교육, 취업지원형 운영을 위한 업체 및 기관 발굴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활동단계에서 실무자들의 업무 우선순위가 사업단 참여자의 근태 및 활동결과 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1〉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_자립활동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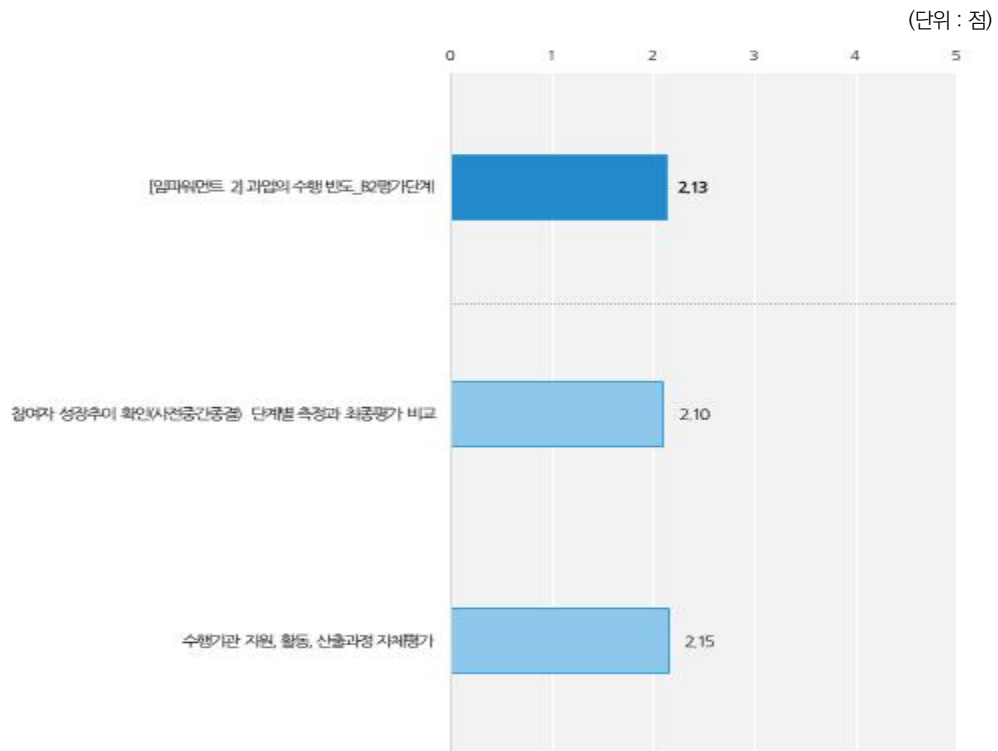


② 임파워먼트2: 평가단계

평가단계 과업 수행빈도의 종합 점수는 2.13점이며, 전반적으로 2점(연 1~4회 정도 수행함)과 3점(월 1~3회 정도 수행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수행기관 지원, 활동, 산출과정 자체평가(2.15점)의 수행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자 성장추이 확인(사전중간종결) 단계별 측정과 최종평가 비교(2.1점)의 수행빈도는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22〉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_평가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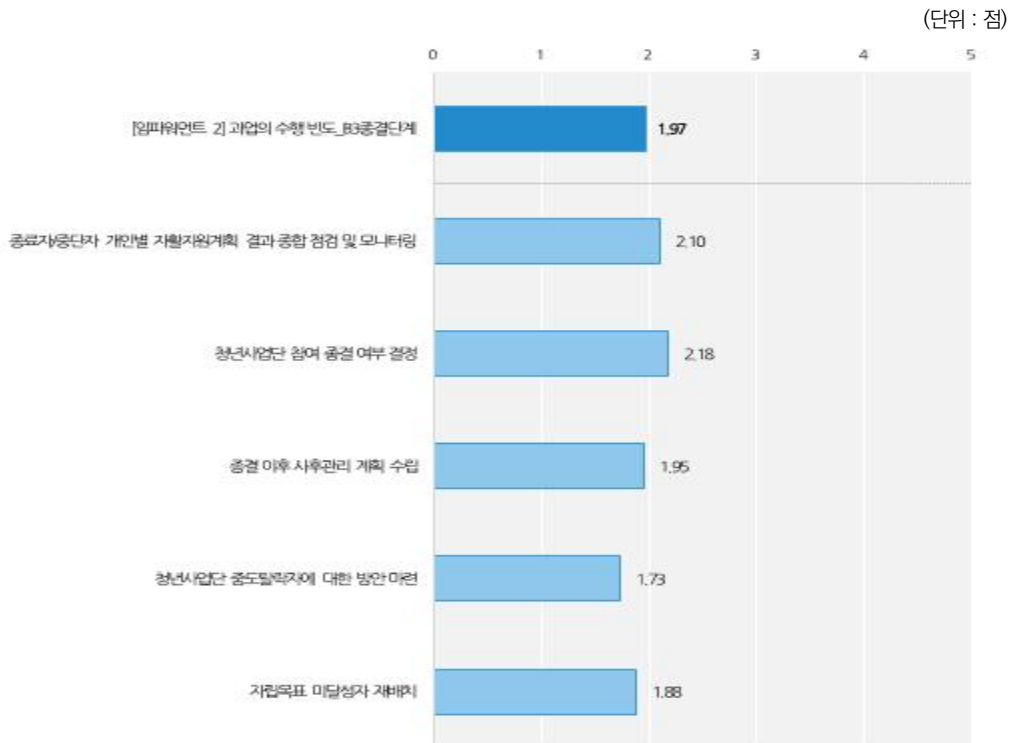


③ 임파워먼트2: 종결단계

종결단계 과업 수행빈도의 종합 점수는 1.97점이며, 전반적으로 1점(거의 수행하지 않음)과 2점(연 1~4회 정도 수행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청년사업단 참여 종결 여부 결정(2.18점), 종료자/중단자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결과 종합 점검 및 모니터링(2.1점)의 수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사업단 중도탈락자에 대한 방안 마련(1.73점), 자립목표 미달성자 재배치(1.88점)의 수행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23〉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_종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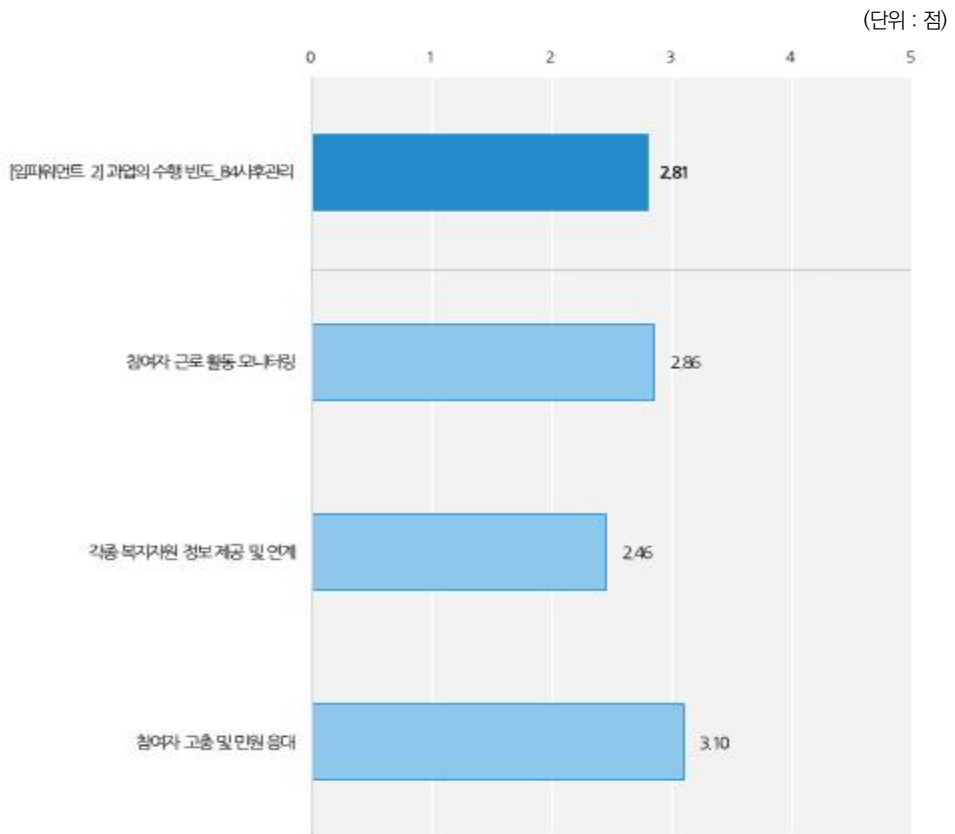


④ 임파워먼트2: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과업 수행빈도종합 점수는 2.81점이며, 전반적으로 2점(연 1~4회 정도 수행함)과 3점(월 1~3회 정도 수행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참여자 고충 및 민원 응대(3.1점)의 수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각종 복지자원 정보 제공 및 연계(2.46점)의 수행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24〉 [임파워먼트2] 과업의 수행빈도_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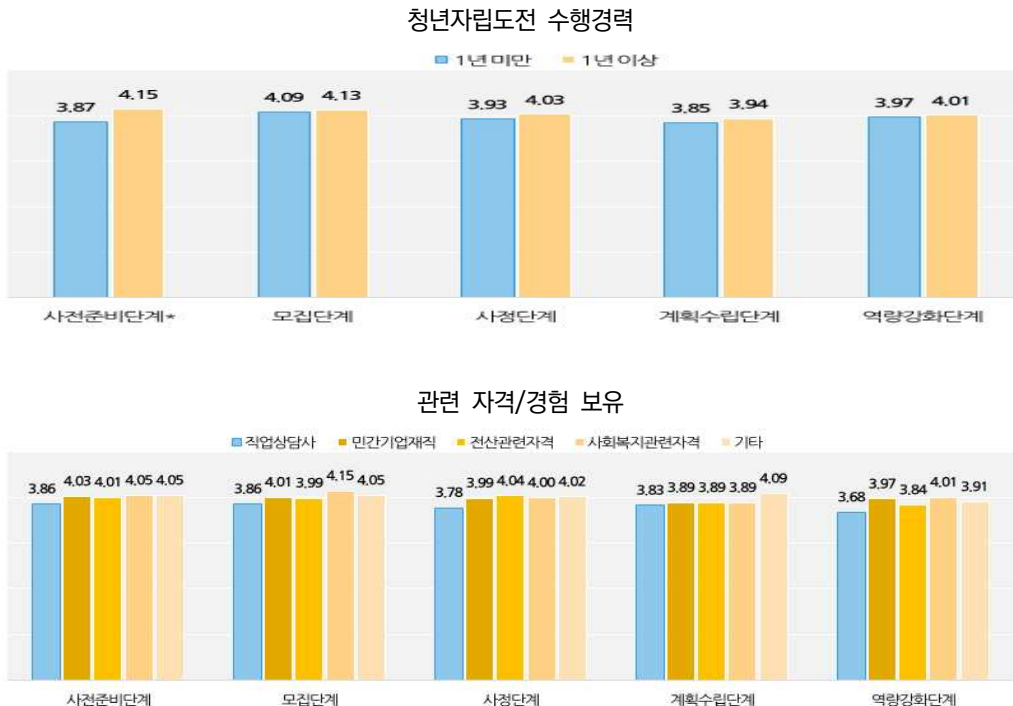
3) 업무 단계별 실무자 업무수행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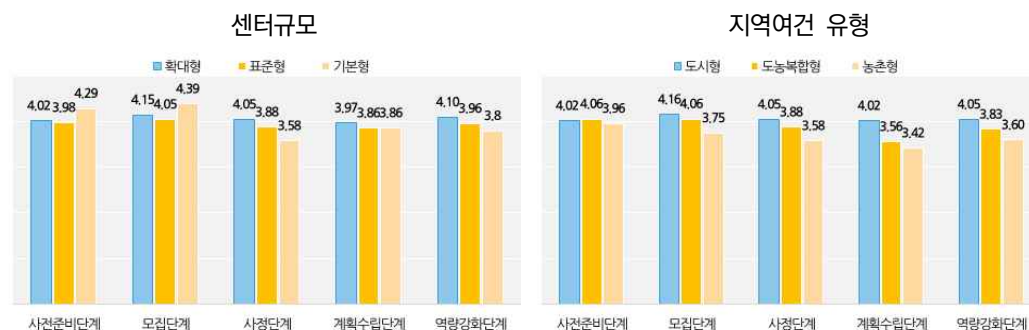
(1) 임파워먼트 1단계

임파워먼트 1단계 세부 업무단계별 과업중요도의 차이를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III-25>와 같다. 3점이 보통수준으로, 임파워먼트1의 모든 단계에서 보통수준 이상으로 과업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1년 이상 실무자가 1년 미만 경력자에 비해 각 업무 단계의 중요도를 대체로 더 높게 인식하였고, 사전준비단계에서 경력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로는 직업상담자격 보유자가 타 경험 보유자에 비해 과업중요도를 대체로 더 낮게 인식하였다. 센터 규모별로는 기본형센터가 사전준비 및 모집단계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고, 지역 유형별로는 도시형 센터의 과업중요도 인식정도가 모든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5> [임파워먼트1] 업무 단계별 중요도 (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단위 : 점)





〈표 III-35〉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자립도전 수행 경력			관련업무 수행 경력				
	전체 (n=78)	1년 미만 (n=35)	1년 이상 (n=43)	직업 상담사 자격/업무 경력 보유 (n=19)	민간 기업재직 경력 (n=29)	전산관련 자격 보유 (n=21)	사회복지 관련 경력 보유 (n=64)	기타 (n=14)
사전준비단계	(4.02)	(3.87)	(4.15)	(3.86)	(4.03)	(4.01)	(4.05)	(4.05)
		t=-2.143*						
모집단계	(4.11)	(4.09)	(4.13)	(3.86)	(4.01)	(3.99)	(4.15)	(4.05)
		t=-0.216						
사정단계	(3.98)	(3.93)	(4.03)	(3.78)	(3.99)	(4.04)	(4.00)	(4.02)
		t=-0.717						
계획수립단계	(3.90)	(3.85)	(3.94)	(3.83)	(3.89)	(3.89)	(3.89)	(4.09)
		t=-0.521						
역량강화단계	(3.99)	(3.97)	(4.01)	(3.68)	(3.97)	(3.84)	(4.01)	(3.91)
		t=-0.436						

*p < .05, **p < .01, ***p < .001

〈표 Ⅲ-36〉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78)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확대형 (n=27)	표준형 (n=44)	기본형 (n=7)	도시형 (n=60)	도농복합형 (n=12)	농촌형 (n=6)
사전준비단계	(4.02)	(4.02)	(3.98)	(4.29)	(4.02)	(4.06)	(3.96)
		f=0.837			f=0.065		
모집단계	(4.11)	(4.15)	(4.05)	(4.39)	(4.16)	(4.06)	(3.75)
		f=0.776			f=0.941		
사정단계	(3.98)	(4.03)	(3.95)	(4.04)	(4.05)	(3.88)	(3.58)
		f=0.162			f=1.807		
계획수립단계	(3.90)	(3.97)	(3.86)	(3.86)	(4.02)	(3.56)	(3.42)
		f=0.174			f=3.185*		
역량강화단계	(3.99)	(4.10)	(3.96)	(3.80)	(4.06)	(3.83)	(3.60)
		f=0.594			f=3.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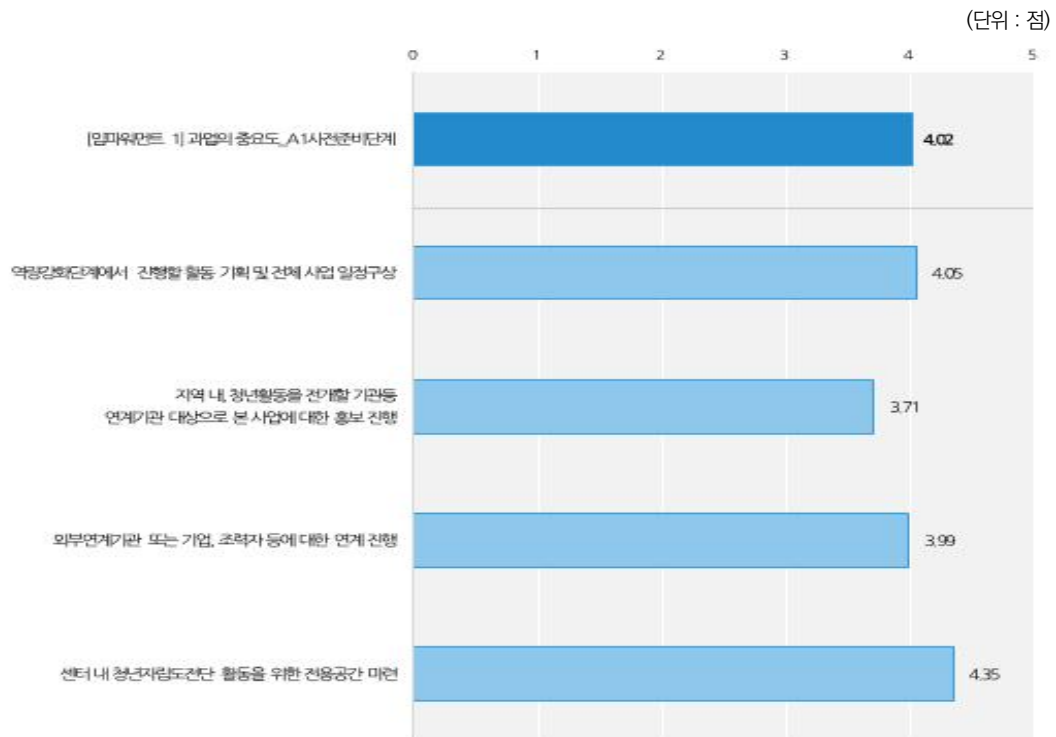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① 임파워먼트1: 사전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 과업 중요도의 종합 점수는 4.02점이며, 전반적으로 4점(어느 정도 중요함)과 5점(매우 중요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센터 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4.35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 내, 청년활동을 전개할 기관 등 연계기관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홍보 진행(3.71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26〉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사전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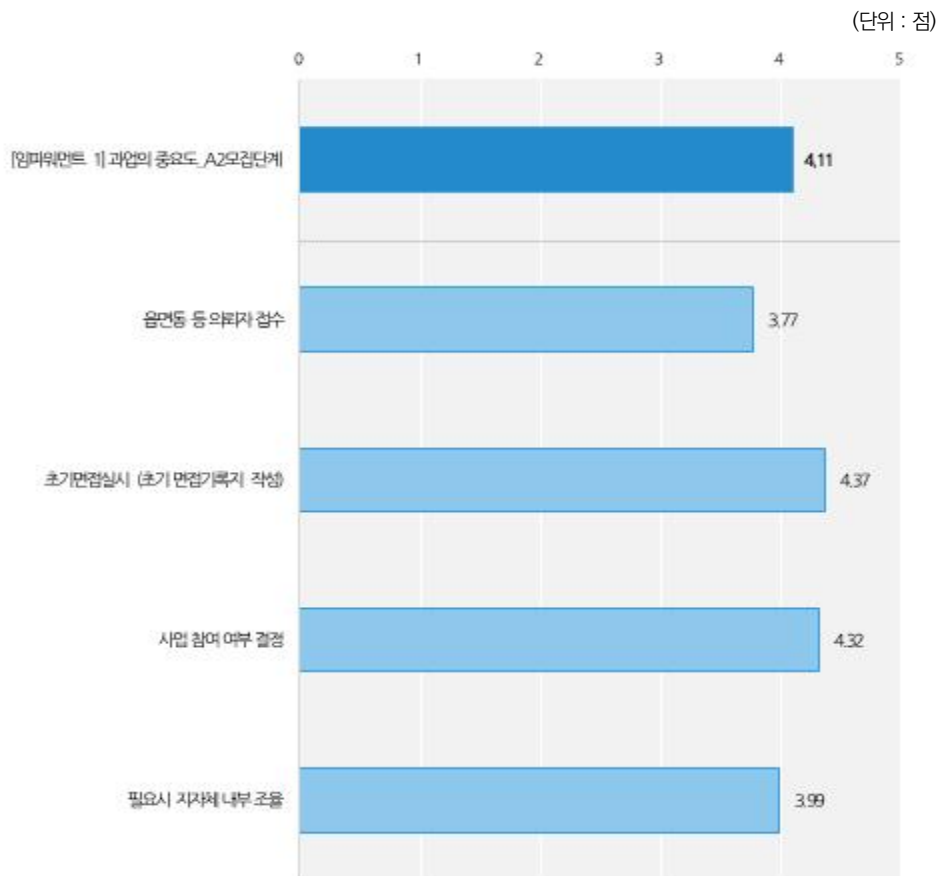


② 임파워먼트2: 모집단계

모집단계 과업 중요도 평균은 4.11점이며, 4점(어느정도 중요함)과 5점(매우 중요함) 사이로 나타났다.

모든 과업요소에서 보통이상 수준으로 과업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면접실시(초기 면접기록지 작성)(4.37점), 사업 참여여부 결정(4.32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읍면동 등 의뢰자 접수(3.77점), 필요시 지자체 내부 조율(3.99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27〉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모집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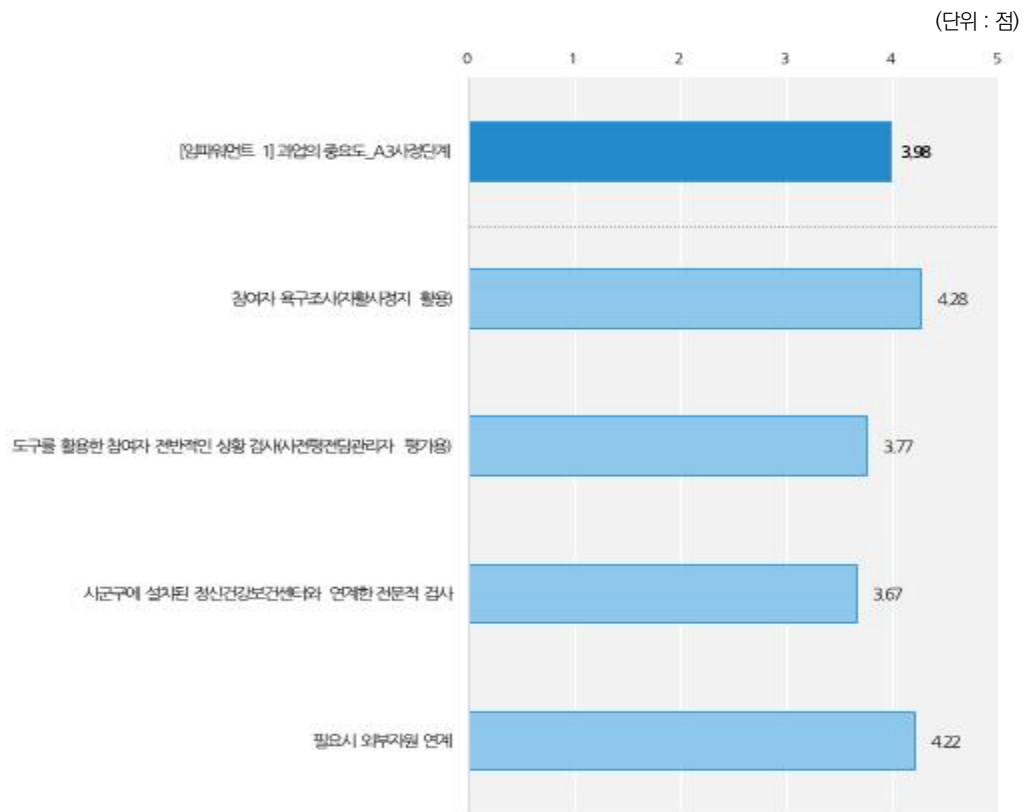


③ 임파워먼트1: 사정단계

사정단계 과업 중요도의 종합 점수는 3.98점이며, 대체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참여자 욕구조사(자활사정지 활용)(4.28점), 필요시 외부자원 연계(4.22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보건 센터와 연계한 전문적 검사(3.67점), 도구를 활용한 참여자 전반적인 상황 검사(사전 평전담관리자 평가용)(3.77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28〉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사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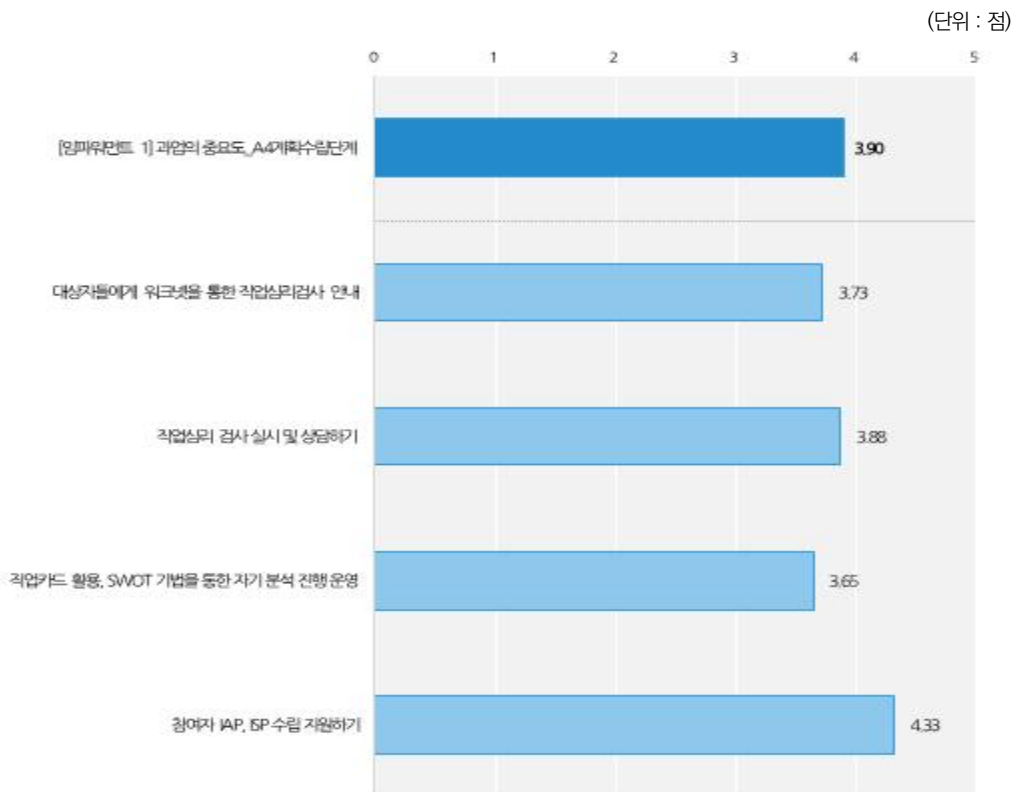


④ 임파워먼트1: 계획수립단계

계획수립단계 과업 중요도의 종합 점수는 3.90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어느 정도 중요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참여자 IAP, ISP 수립 지원하기(4.33점), 직업심리 검사 실시 및 상담하기(3.88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업카드 활용, SWOT 기법을 통한 자기 분석 진행 운영(3.65점), 대상자들에게 워크넷을 통한 직업심리검사 안내(3.73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29〉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계획수립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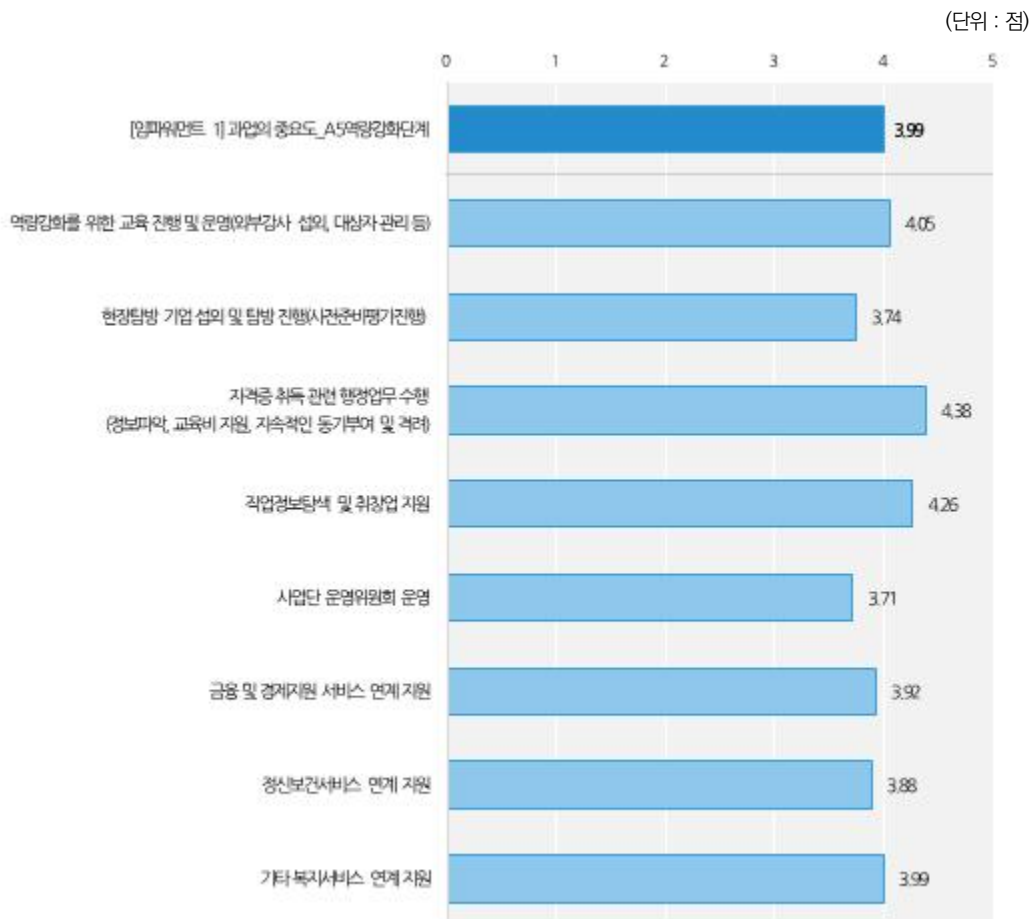


⑤ 임파워먼트1: 역량강화단계

역량강화단계 과업 중요도의 종합 점수는 3.99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어느 정도 중요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자격증 취득 관련 행정업무 수행 (정보파악, 교육비 지원,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격려)(4.38점), 직업정보탐색 및 취창업 지원(4.26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업단 운영위원회 운영(3.71점), 현장탐방 기업 섭외 및 탐방 진행(사전 준비평가 진행)(3.74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30〉 [임파워먼트1] 과업의 중요도_역량강화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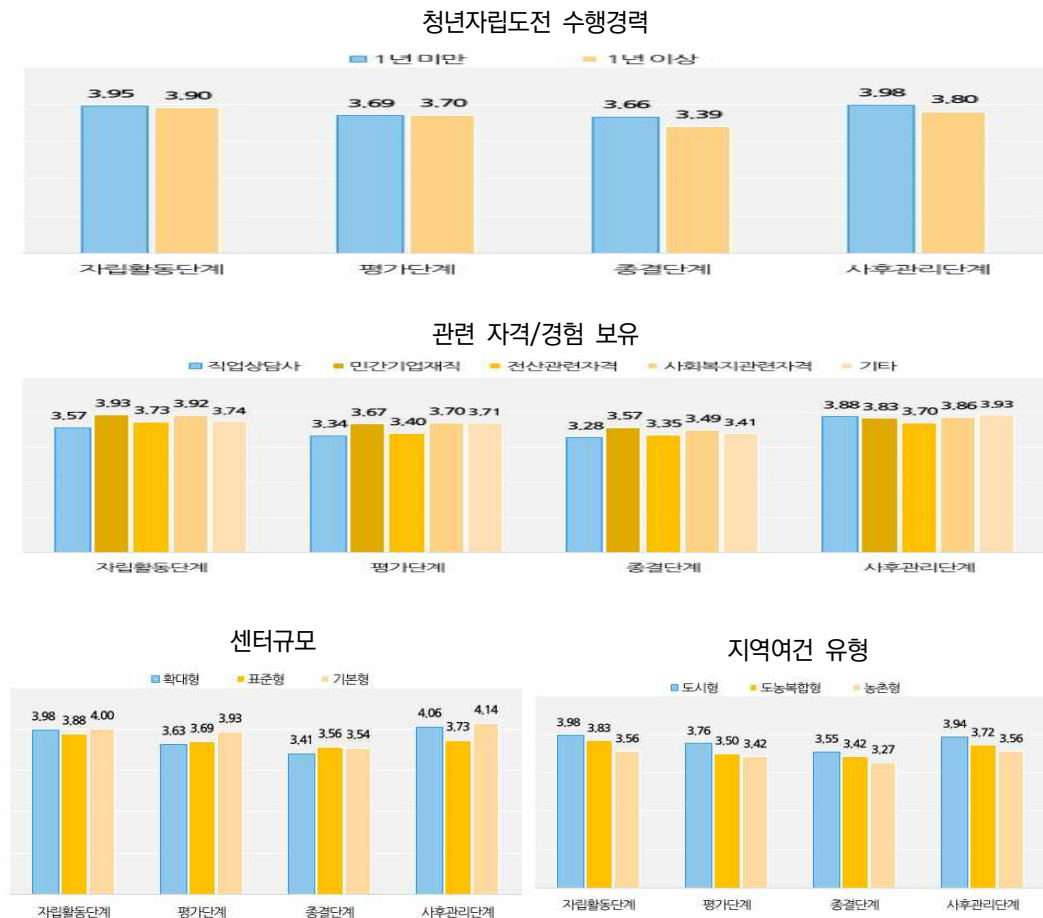


(2) 임파워먼트 2단계

임파워먼트2 세부 단계별 과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 차이를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Ⅲ-31>과 같다. 4점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임파워먼트2의 모든 단계에서 4점에 가까운 정도로 응답하였다. 경력별로는, 1년 미만 실무자가 상대적으로 임파워먼트 2단계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역 유형별로는 도시형센터의 과업중요도가 도농복합형 및 농촌형센터에 비해 모든 단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31> [임파워먼트2] 업무 단계별 중요도 (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단위 : 점)



〈표 III-37〉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78)	자립도전 수행 경력		관련업무 수행 경력				
		1년 미만 (n=35)	1년 이상 (n=43)	직업 상담사 자격/업무 경력 보유 (n=19)	민간 기업재직 경험 (n=29)	전산관련 자격 보유 (n=21)	사회복지 관련 경력 보유 (n=64)	기타 (n=14)
자립활동단계	(3.92)	(3.95)	(3.90)	(3.57)	(3.93)	(3.73)	(3.92)	(3.74)
		t=0.406						
평가단계	(3.69)	(3.69)	(3.70)	(3.34)	(3.67)	(3.40)	(3.70)	(3.71)
		t=-0.063						
종결단계	(3.51)	(3.66)	(3.39)	(3.28)	(3.57)	(3.35)	(3.49)	(3.41)
		t=1.536						
사후관리	(3.88)	(3.98)	(3.80)	(3.88)	(3.83)	(3.70)	(3.86)	(3.93)
		t=0.884						

〈표 III-38〉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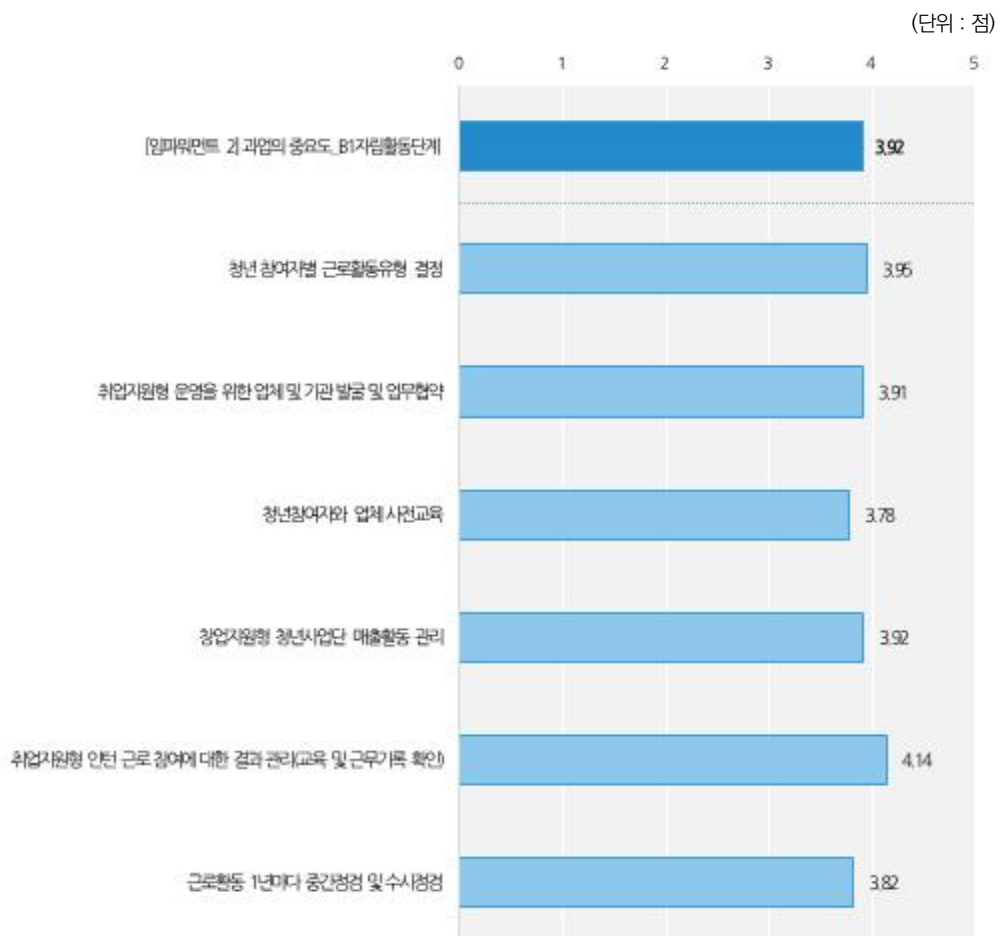
구분	전체 (n=78)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확대형 (n=27)	표준형 (n=44)	기본형 (n=7)	도시형 (n=60)	도농복합형 (n=12)	농촌형 (n=6)
자립활동단계	(3.92)	(3.98)	(3.88)	(4.00)	(3.98)	(3.83)	(3.56)
		f=0.282			f=1.435		
평가단계	(3.69)	(3.63)	(3.69)	(3.93)	(3.76)	(3.50)	(3.42)
		f=0.361			f=0.855		
종결단계	(3.51)	(3.41)	(3.56)	(3.54)	(3.55)	(3.42)	(3.27)
		f=0.315			f=0.478		
사후관리	(3.88)	(3.98)	(3.80)	(3.88)	(3.83)	(3.70)	(3.86)
		t=1.484			f=0.714		

① 임파워먼트2: 자립활동단계

자립활동단계 과업 중요도 종합 점수는 3.92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어느 정도 중요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취업지원형 인턴 근로 참여에 대한 결과 관리(교육 및 근무기록 확인)(4.14점), 청년 참여자별 근로활동유형 결정(3.95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참여자와 업체 사전교육(3.78점), 근로활동 1년마다 중간점검 및 수시점검(3.82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32〉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_자립활동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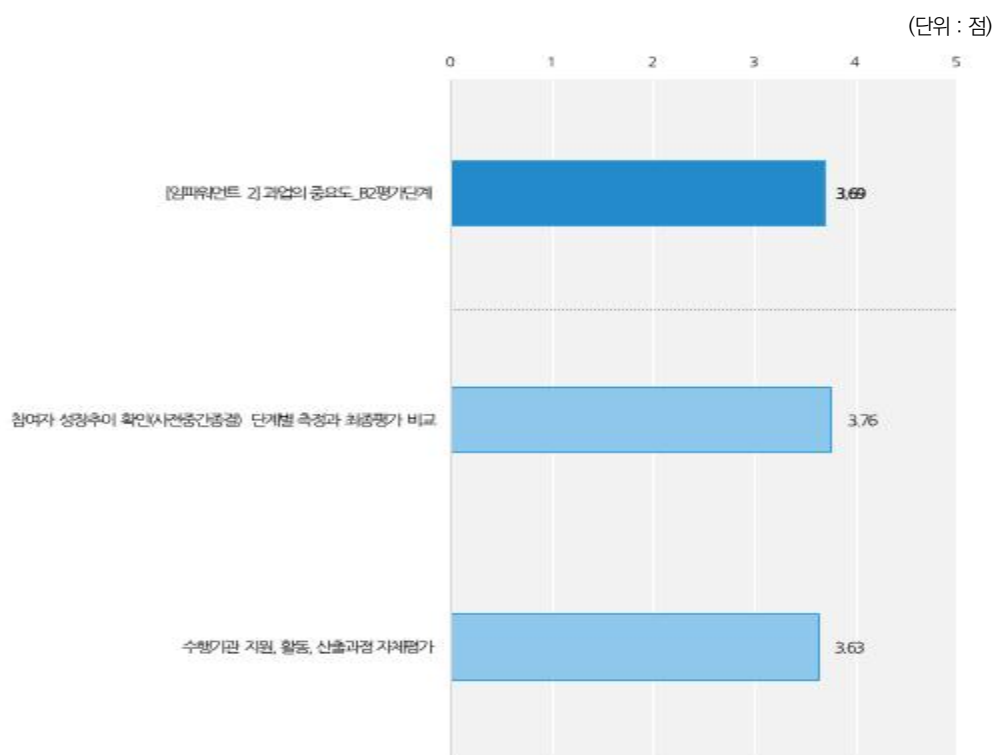


② 임파워먼트2: 평가단계

평가단계 과업 중요도의 종합 점수는 3.69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어느 정도 중요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참여자 성장추이 확인(사전중간종결) 단계별 측정과 최종평가 비교(3.76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수행기관 지원, 활동, 산출과정 자체평가(3.63점)의 중요도는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33〉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_평가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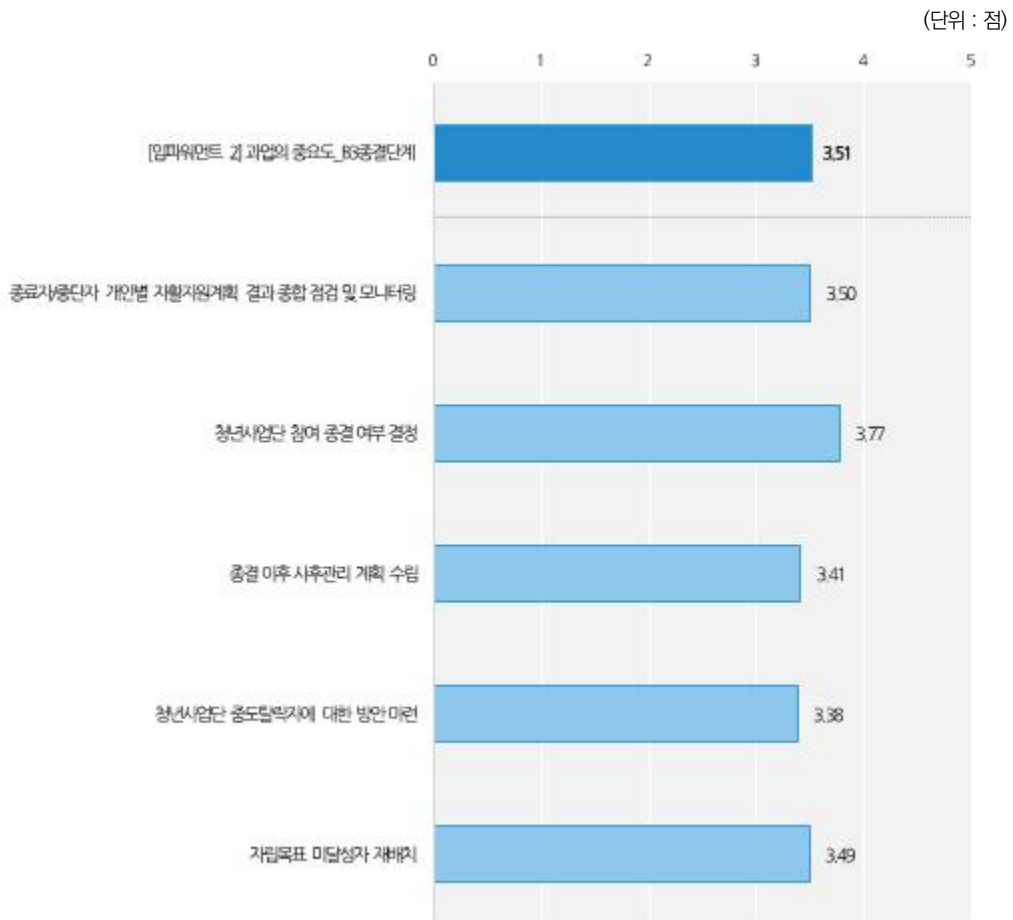


③ 임파워먼트2: 종결단계

종결단계 과업 중요도 종합 점수는 3.51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어느 정도 중요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청년사업단 참여 종결 여부 결정(3.77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사업단 중도탈락자에 대한 방안 마련(3.38점), 종결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3.41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34〉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_종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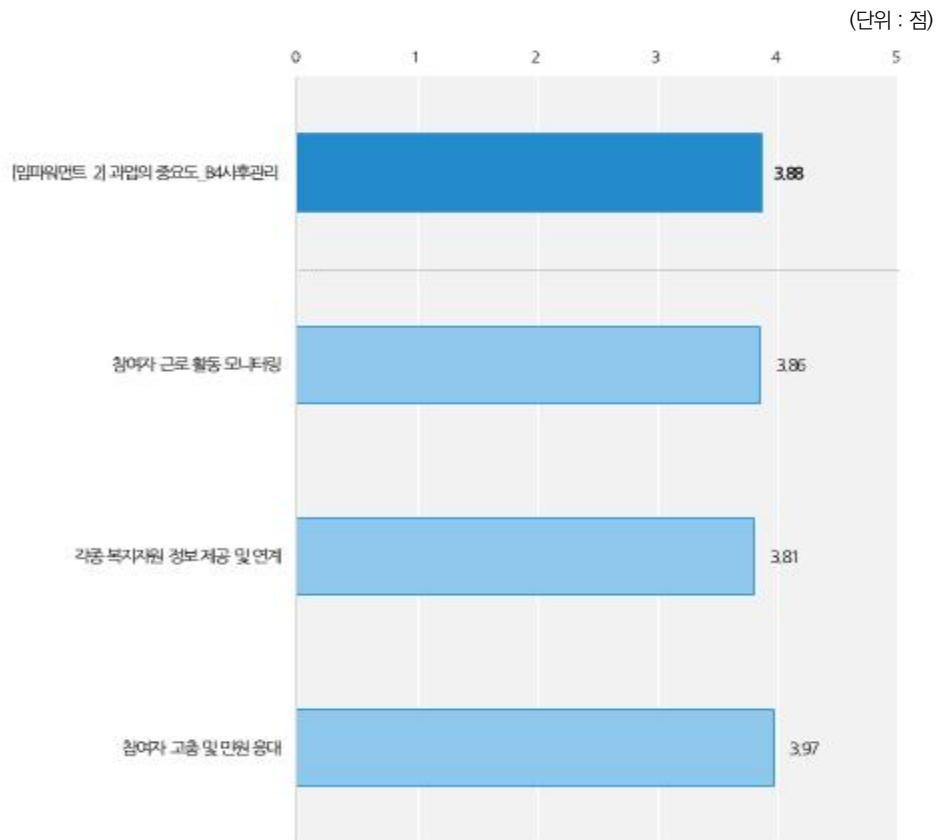


④ 임파워먼트2: 사후관리

사후관리 과업 중요도 종합 점수는 3.88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어느 정도 중요함)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참여자 고충 및 민원 응대(3.97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각종 복지자원 정보 제공 및 연계(3.81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35〉 [임파워먼트2] 과업의 중요도_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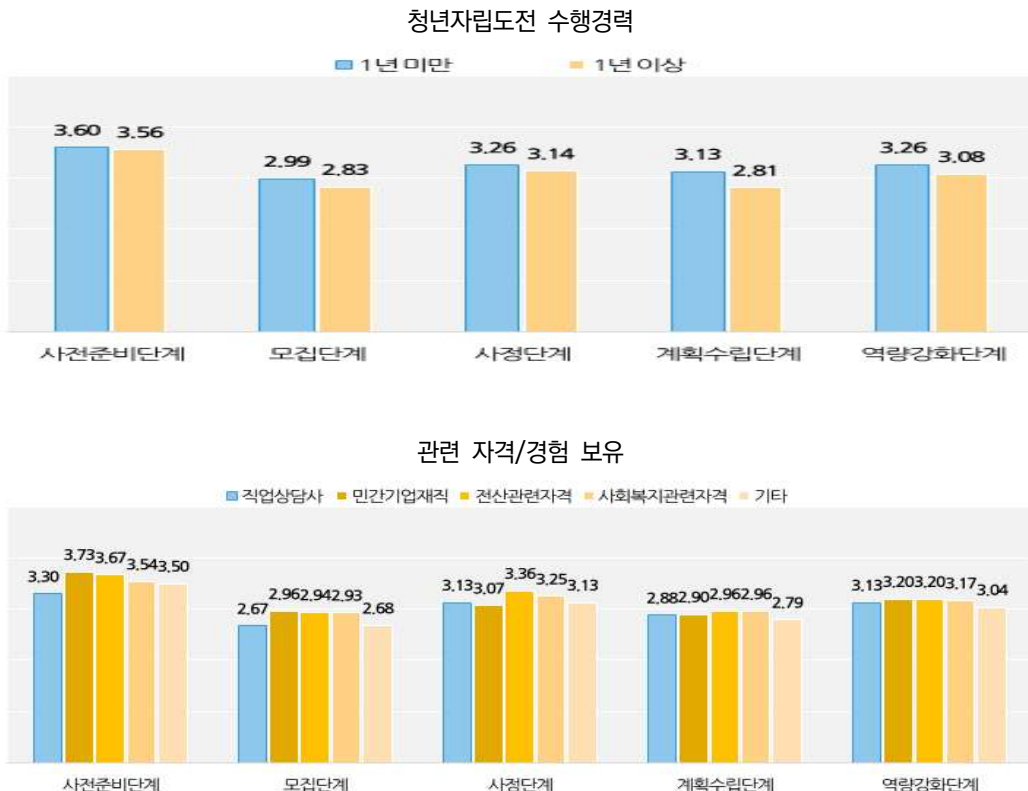
4) 업무 단계별 실무자 체감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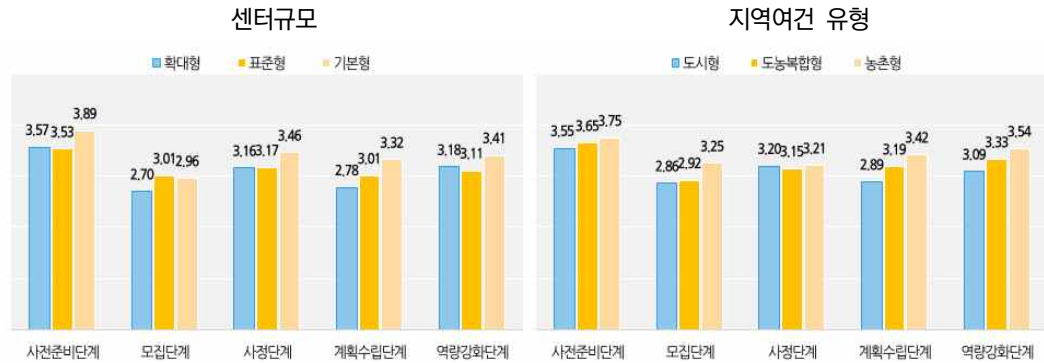
(1) 임파워먼트 1단계

임파워먼트 1단계 세부 업무 단계에 대한 특성별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Ⅲ-36>과 같다. 사업일정 계획 및 사업 홍보 등의 과업을 포괄하는 사전준비단계는 모든 특성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반 자활근로사업단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 모집단계의 난이도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경력별로는 1년 미만 실무자가 모든 단계에서 업무 난이도를 1년 이상 실무자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센터규모별로는 기본형 센터가, 지역여건 유형별로는 농촌형 센터가 타 유형에 비해 업무 난이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6> [임파워먼트1] 업무 단계별 난이도 (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단위 : 점)





〈표 III-39〉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78)	자립도전 수행 경력		관련업무 수행 경력				
		1년 미만 (n=35)	1년 이상 (n=43)	직업 상담사 자격/업무 경력 보유 (n=19)	민간 기업재직 경력 (n=29)	전산관련 자격 보유 (n=21)	사회복지 관련 경력 보유 (n=64)	기타 (n=14)
사전준비단계	(3.58)	(3.60)	(3.56)	(3.30)	(3.73)	(3.67)	(3.54)	(3.50)
		t=0.221						
모집단계	(2.90)	(2.99)	(2.83)	(2.67)	(2.96)	(2.94)	(2.93)	(2.68)
		t=1.268						
사정단계	(3.19)	(3.26)	(3.14)	(3.13)	(3.07)	(3.36)	(3.25)	(3.13)
		t=0.899						
계획수립단계	(2.96)	(3.13)	(2.81)	(2.88)	(2.90)	(2.96)	(2.96)	(2.79)
		t=1.947						
역량강화단계	(3.16)	(3.26)	(3.08)	(3.13)	(3.20)	(3.20)	(3.17)	(3.04)
		t=1.715						

〈표 Ⅲ-40〉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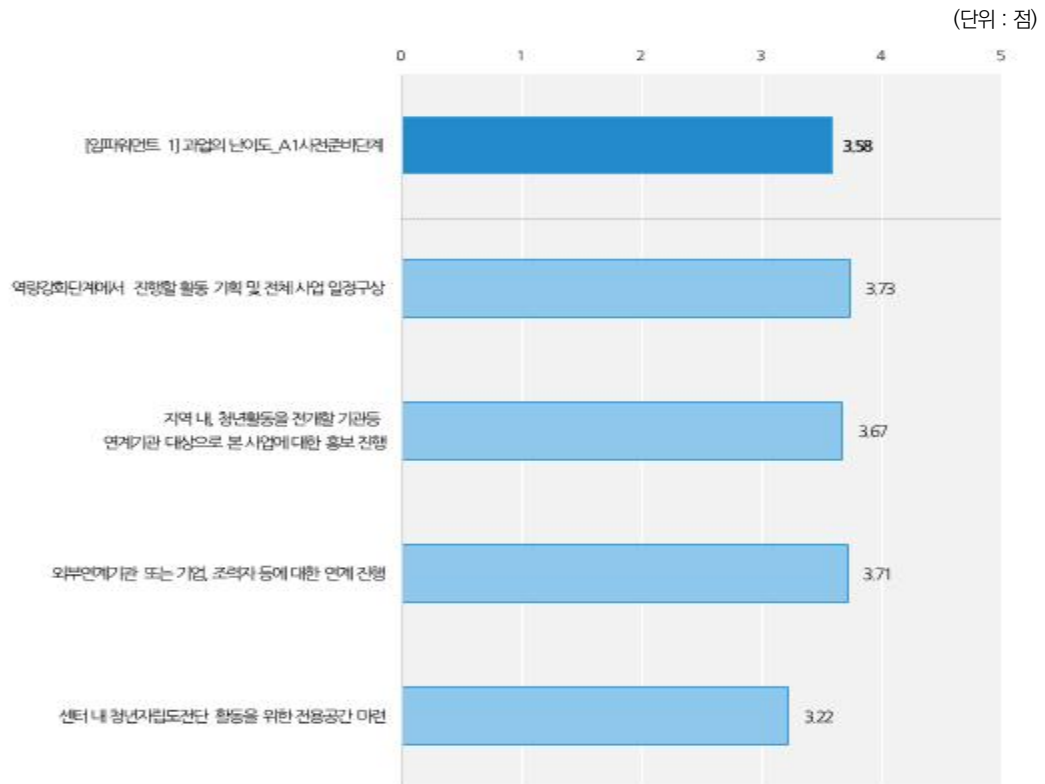
구분	전체 (n=78)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확대형 (n=27)	표준형 (n=44)	기본형 (n=7)	도시형 (n=60)	도농복합형 (n=12)	농촌형 (n=6)
사전준비단계	(3.58)	(3.57)	(3.53)	(3.89)	(3.55)	(3.65)	(3.75)
		f=0.760			f=0.269		
모집단계	(2.90)	(2.70)	(3.01)	(2.96)	(2.86)	(2.92)	(3.25)
		f=2.479			f=1.223		
사정단계	(3.19)	(3.16)	(3.17)	(3.46)	(3.20)	(3.15)	(3.21)
		f=0.865			f=0.046		
계획수립단계	(2.96)	(2.78)	(3.01)	(3.32)	(2.86)	(3.19)	(3.42)
		f=1.860			f=2.423		
역량강화단계	(3.16)	(3.18)	(3.11)	(3.41)	(3.09)	(3.33)	(3.54)
		f=0.982			f=2.852		

① 임파워먼트1: 사전준비단계(난이도)

사전준비단계 과업 난이도의 종합 점수는 3.58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약간 어려움)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역량강화단계에서 진행할 활동 기획 및 전체 사업 일정구상(3.73점), 외부연계 기관 또는 기업, 조력자 등에 대한 연계 진행(3.71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센터 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3.22점)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37〉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사전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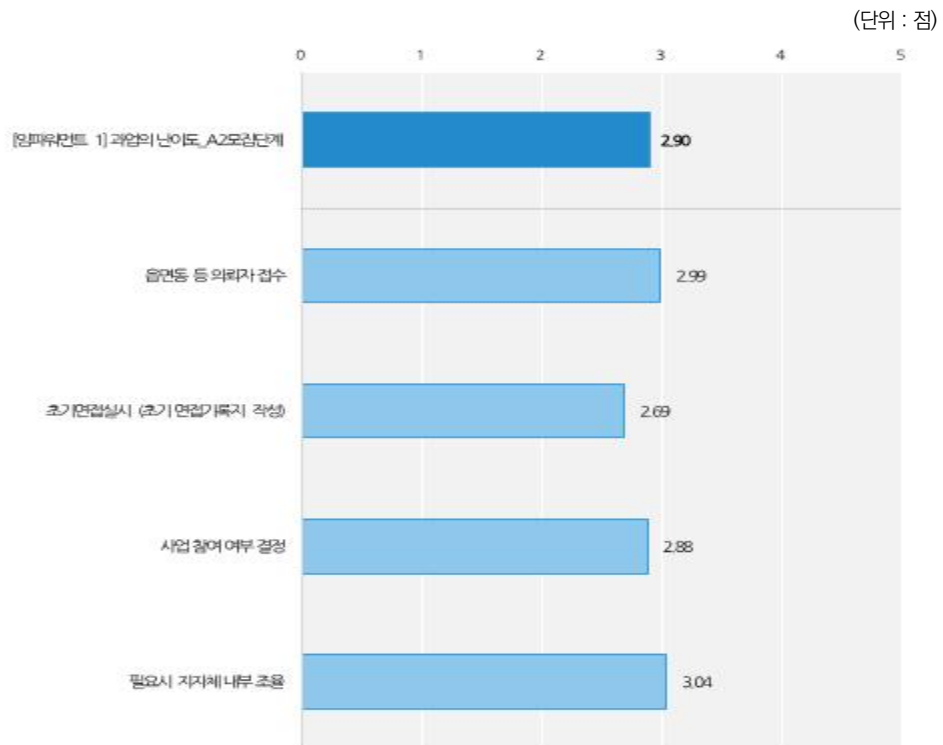


② 임파워먼트1: 모집단계(난이도)

모집단계 과업 난이도의 종합 점수는 2.9점이며, 전반적으로 2점(약간 쉬움)과 3점(보통임)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필요시 지자체 내부 조율(3.04점), 읍면동 등 의뢰자 접수(2.99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초기면접실시 (초기 면접기록지 작성)(2.69점), 사업 참여 여부 결정(2.88점)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38〉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모집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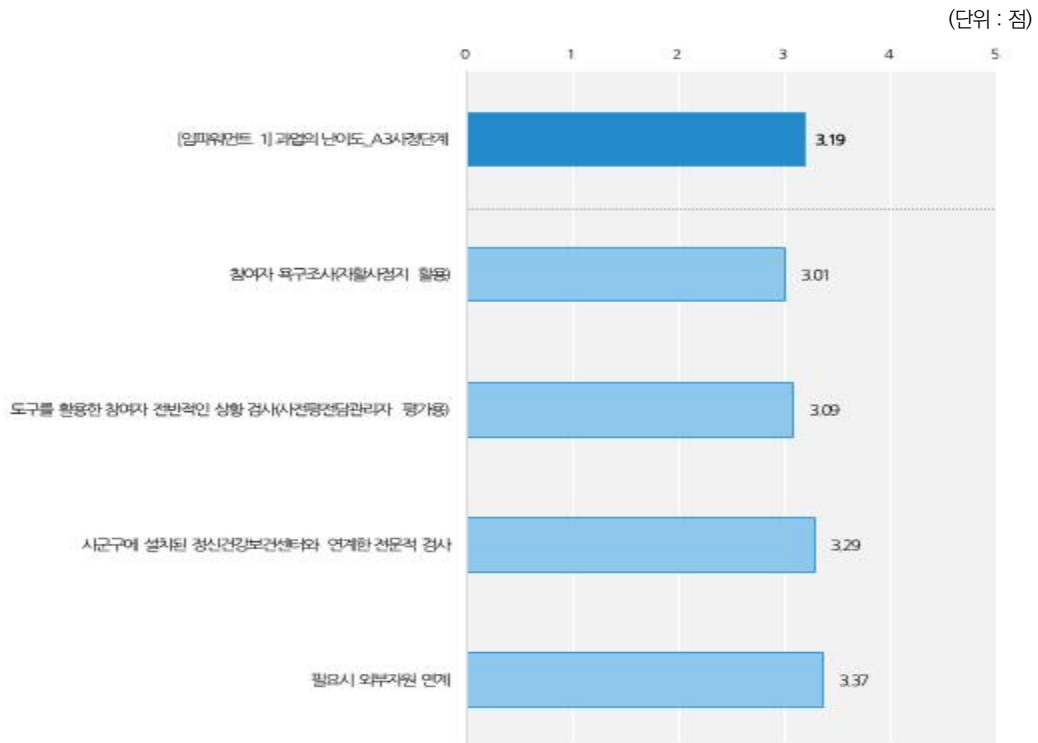


③ 임파워먼트1: 사정단계(난이도)

사정단계 과업 난이도의 종합 점수는 3.19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약간 어려움)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필요시 외부자원 연계(3.37점),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연계한 전문적 검사(3.29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자 욕구조사(자활사정지 활용)(3.01점), 도구를 활용한 참여자 전반적인 상황 검사(사전평전담관리자 평가용)(3.09점)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39〉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사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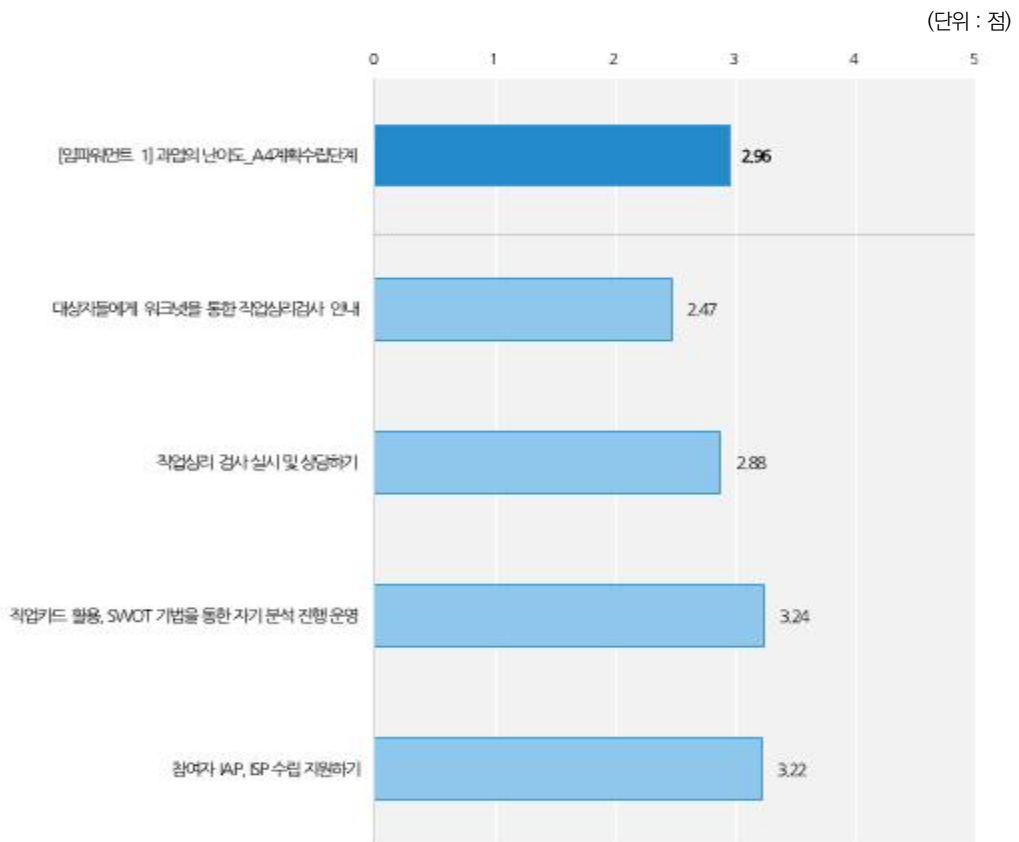


④ 임파워먼트1: 계획수립단계 난이도

계획수립단계 과업 난이도의 종합 점수는 2.96점이며, 전반적으로 2점(약간 쉬움)과 3점(보통임)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직업카드 활용, SWOT 기법을 통한 자기 분석 진행 운영(3.24점), 참여자 IAP, ISP 수립 지원하기(3.22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상자들에게 워크넷을 통한 직업심리검사 안내(2.47점), 직업심리 검사 실시 및 상담하기(2.88점)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40〉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계획수립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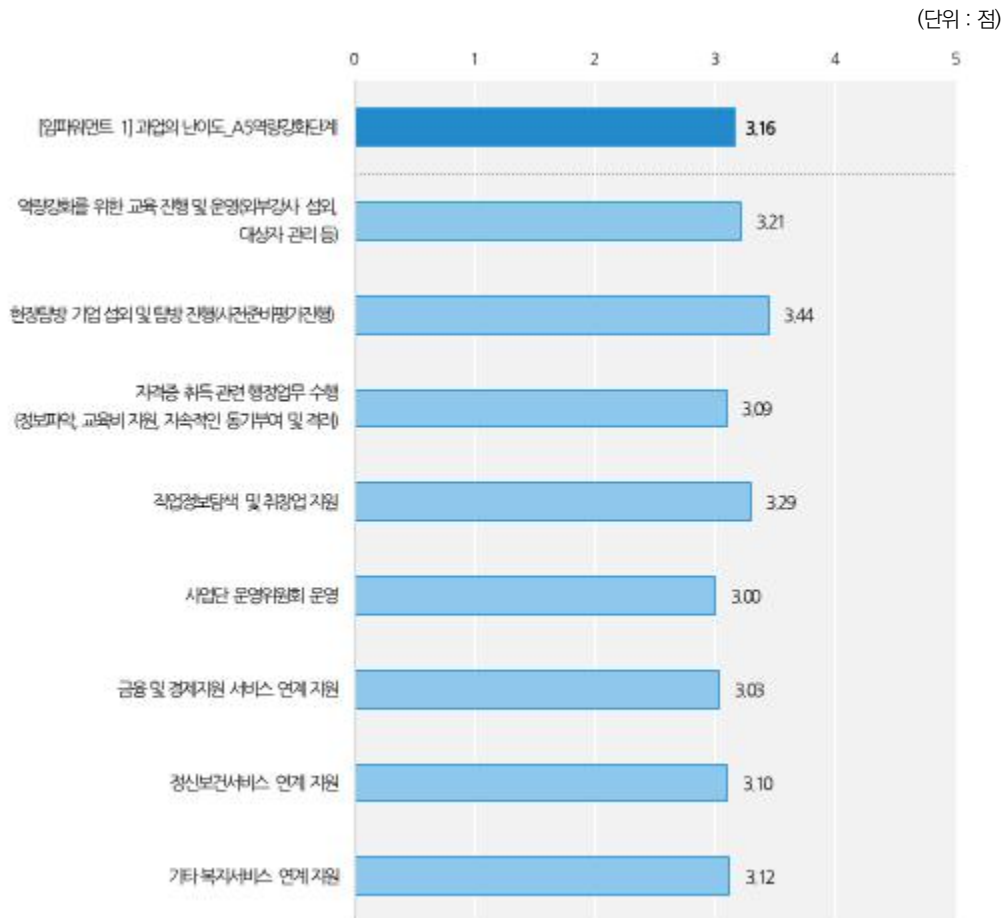


⑤ 임파워먼트1: 역량강화단계(난이도)

역량강화단계 과업 난이도의 종합 점수는 3.16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약간 어려움)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현장탐방 기업 섭외 및 탐방 진행(사전준비평가진행)(3.44점), 직업정보탐색 및 취창업 지원(3.29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업단 운영위원회 운영(3점), 금융 및 경제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3.03점)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41〉 [임파워먼트1] 과업의 난이도_역량강화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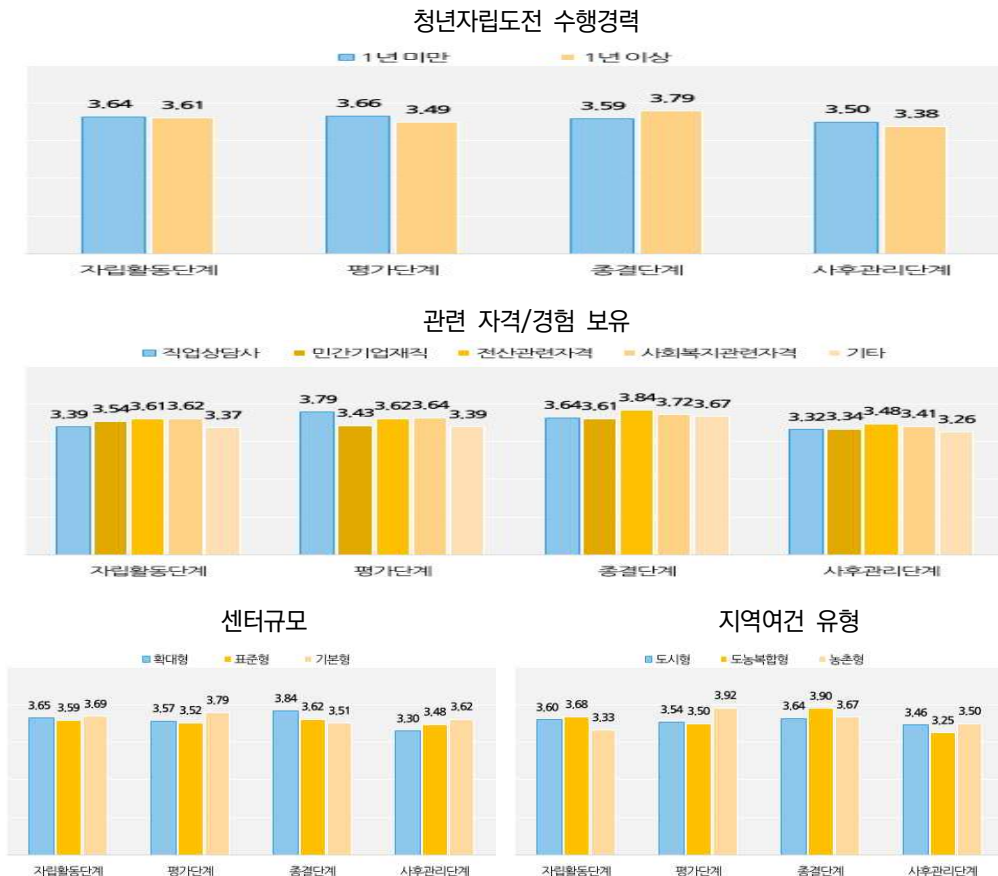


(2) 임파워먼트2단계

실무자 특성별 임파워먼트2 업무 단계별 업무난이도 인식 수준은 다음 <그림 Ⅲ-42>과 같다. 3점이 보통 수준으로 모든 단계에서 업무난이도를 보통에서 약간 더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임파워먼트1단계 세부 응답결과가 대체로 3점 전후인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실무자들은 임파워먼트1단계에 비해 2단계 업무를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년 이상 청년자립도전업무 경력자와 사회복지관련 자격보유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종결단계를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규모별로는 종결단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 단계에서 기본형 센터가 업무의 난이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림 Ⅲ-42> [임파워먼트2] 업무 단계별 난이도(자립도전 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보유여부별, 센터규모별, 지역여건유형별)

(단위 : 점)



〈표 III-41〉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

(단위 : 점)

구분	전체 (n=78)	자립도전 수행 경력		관련업무 수행 경력				
		1년 미만 (n=35)	1년 이상 (n=43)	직업 상담사 자격/업무 경력 보유 (n=19)	민간 기업재직 경력 (n=29)	전산관련 자격 보유 (n=21)	사회복지 관련 경력 보유 (n=64)	기타 (n=14)
자립활동단계	(3.62)	(3.64)	(3.61)	(3.39)	(3.54)	(3.61)	(3.62)	(3.37)
		t=0.254						
평가단계	(3.56)	(3.66)	(3.49)	(3.79)	(3.43)	(3.62)	(3.64)	(3.39)
		t=0.936						
종결단계	(3.68)	(3.59)	(3.76)	(3.64)	(3.61)	(3.84)	(3.72)	(3.67)
		t=-1.034						
사후관리	(3.43)	(3.50)	(3.38)	(3.32)	(3.34)	(3.48)	(3.41)	(3.26)
		t=0.614						

〈표 III-42〉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센터 규모별, 유형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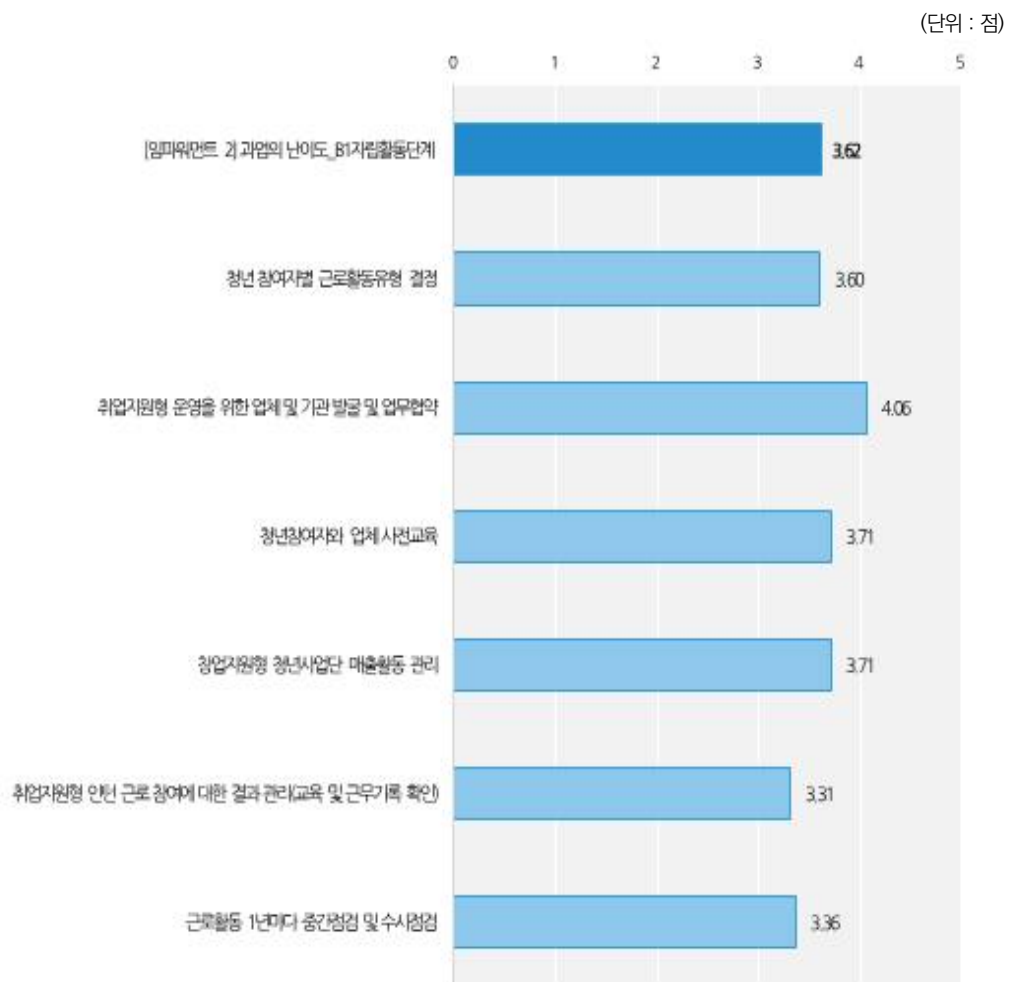
구분	전체 (n=78)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확대형 (n=27)	표준형 (n=44)	기본형 (n=7)	도시형 (n=60)	도농복합형 (n=12)	농촌형 (n=6)
자립활동단계	(3.62)	(3.65)	(3.59)	(3.69)	(3.60)	(3.68)	(3.72)
		f=0.131			f=0.173		
평가단계	(3.56)	(3.57)	(3.52)	(3.79)	(3.54)	(3.50)	(3.92)
		f=0.331			f=0.654		
종결단계	(3.68)	(3.59)	(3.76)	(3.64)	(3.61)	(3.84)	(3.72)
		f=0.933			f=0.597		
사후관리	(3.43)	(3.30)	(3.48)	(3.62)	(3.46)	(3.25)	(3.50)
		f=0.634			f=0.346		

① 임파워먼트2 : 자립활동단계(난이도)

자립활동단계 과업 난이도의 종합 점수는 3.62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약간 어려움)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취업지원형 운영을 위한 업체 및 기관 발굴 및 업무협약(4.06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지원형 인턴 근로 참여에 대한 결과 관리(교육 및 근무기록 확인)(3.31점), 근로활동 1년마다 중간점검 및 수시점검(3.36점)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43〉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_자립활동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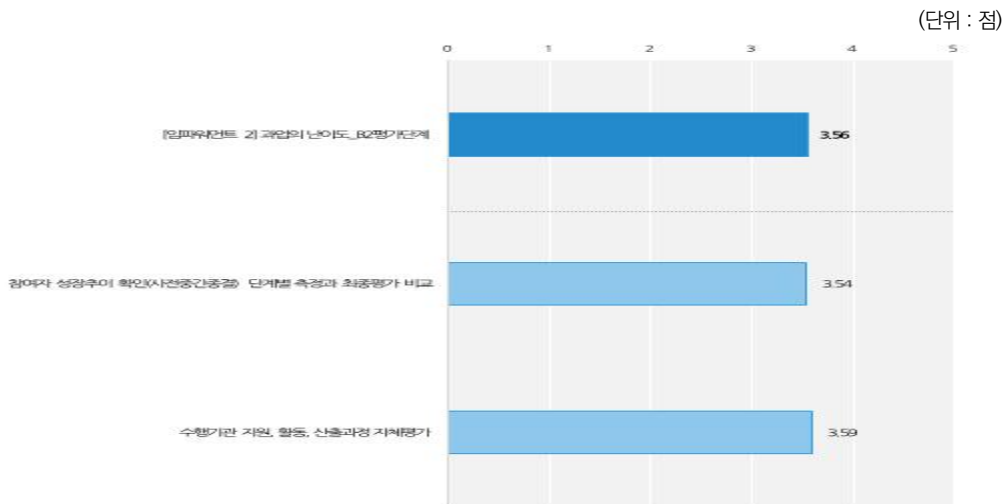


② 임파워먼트2: 평가단계(난이도)

평가단계 과업 난이도 종합 점수는 3.56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약간 어려움)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수행기관 지원, 활동, 산출과정 자체평가(3.59점)의 난이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자 성장추이 확인(사전중간종결) 단계별 측정과 최종평가 비교(3.54점)의 난이도는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III-44〉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_평가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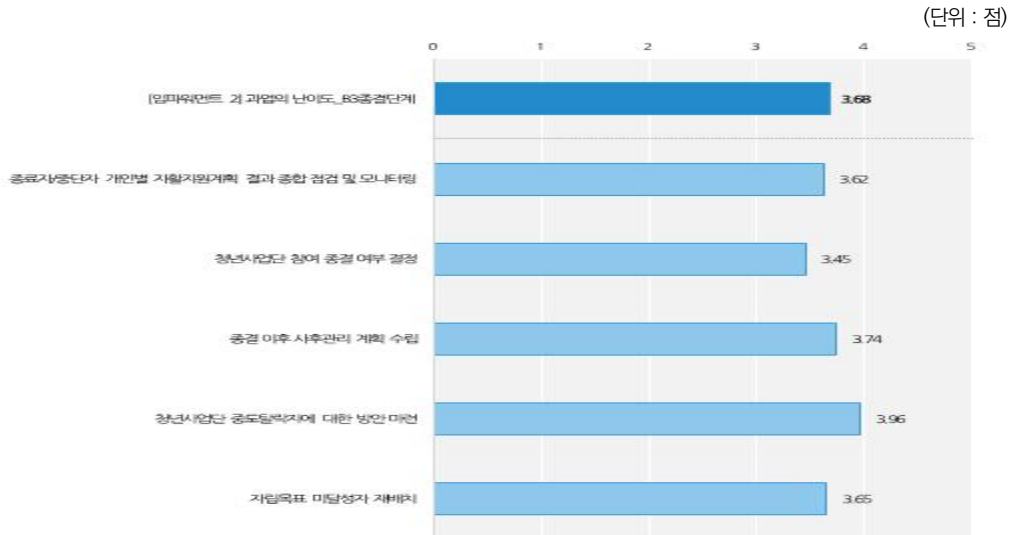


③ 임파워먼트2: 종결단계(난이도)

종결단계 과업 난이도 종합 점수는 3.68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약간 어려움)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청년사업단 중도탈락자에 대한 방안 마련(3.96점), 종결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3.74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사업단 참여 종결 여부 결정(3.45점), 종료자/중단자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결과 종합 점점 및 모니터링(3.62점)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45〉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_종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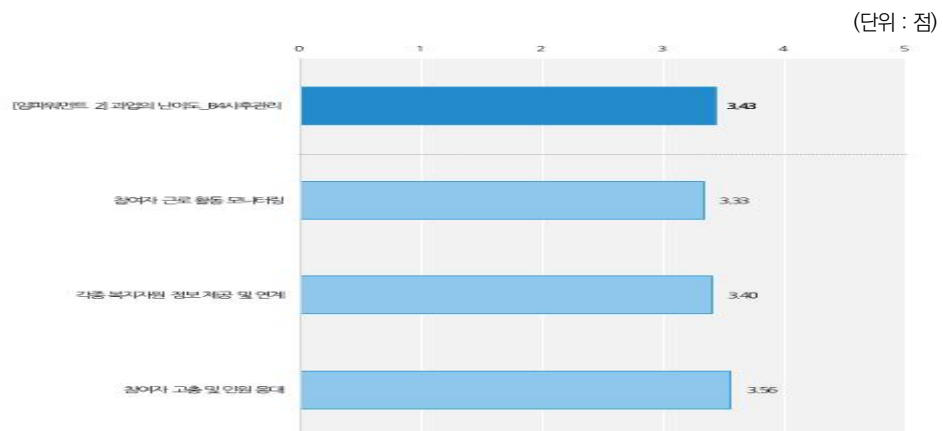


④ 임파워먼트2: 사후관리단계(난이도)

사후관리 과업 난이도의 종합 점수는 3.43점이며,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약간 어려움) 사이로 나타났다.

과업 요소별로는, 참여자 고충 및 민원 응대(3.56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자 근로 활동 모니터링(3.33점)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46〉 [임파워먼트2] 과업의 난이도_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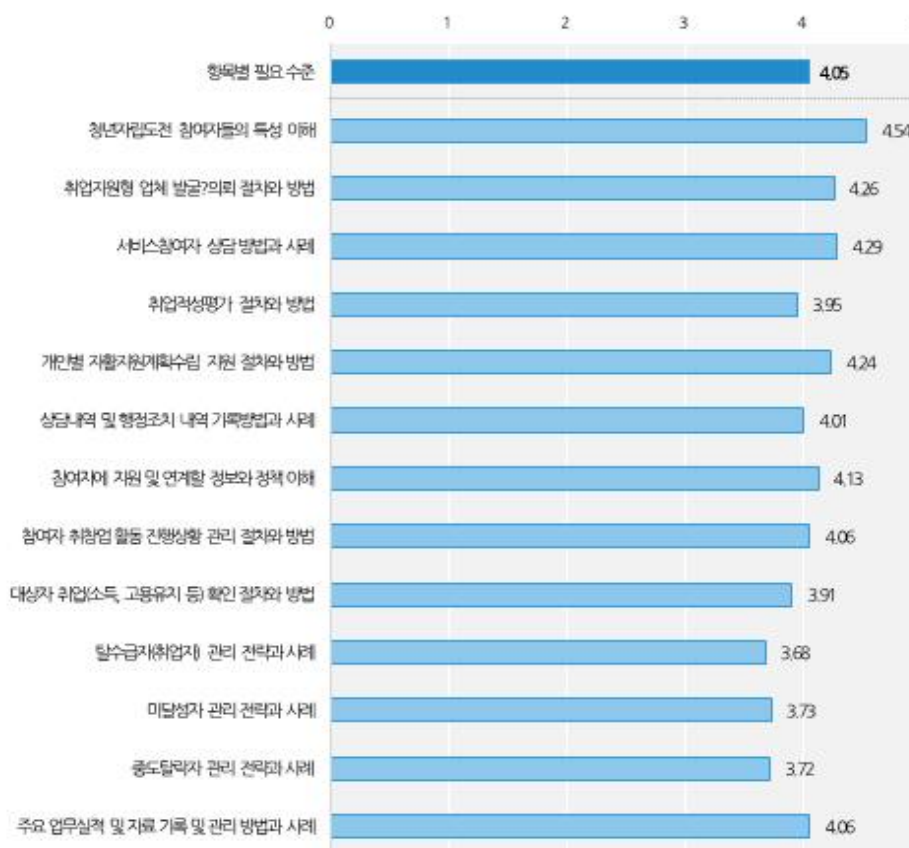
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위해 필요한 업무 수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요소별 필요수준은 다음 <그림 III-47>와 같다. 조금 필요하다 수준이 4점으로, 제시된 과업 요소의 필요수준 평균점수는 이보다 약간 더 높은 4.05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청년자립도전 참여자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참여자 상담 방법과 사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취업자) 관리 전략과 사례, 중도탈락자 관리 전략과 사례 필요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47> 항목별 필요 수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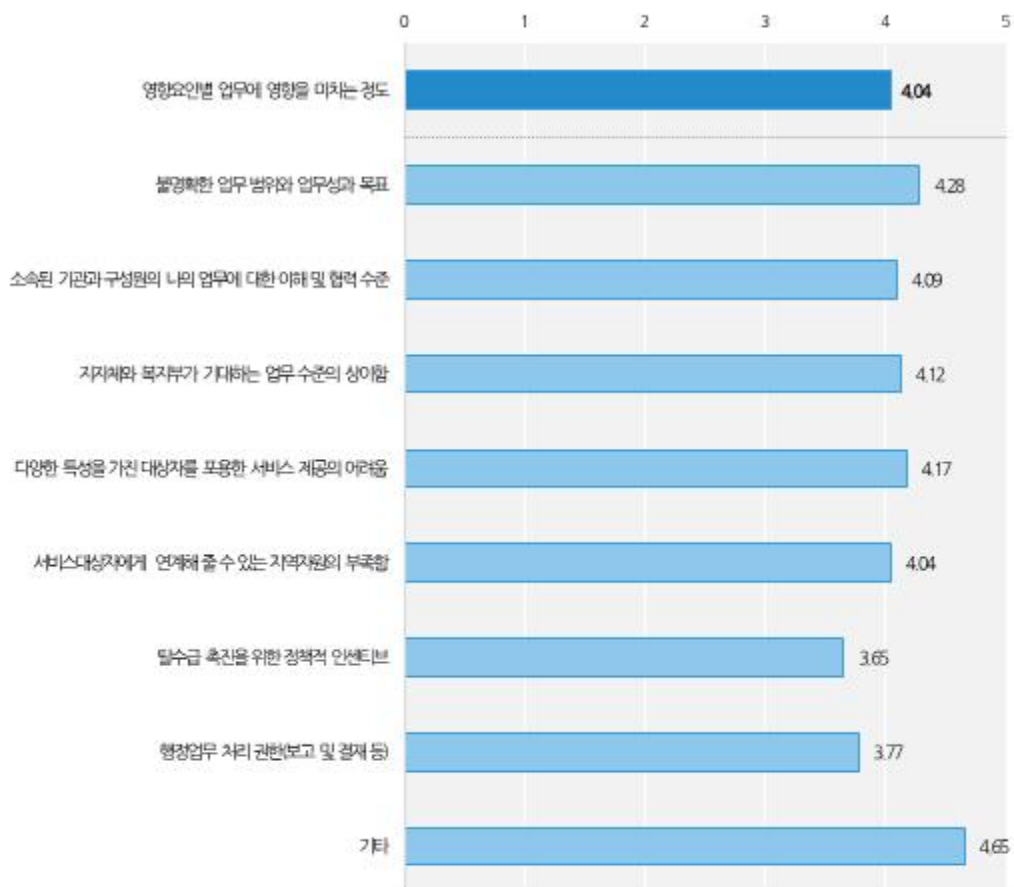


6)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Ⅲ-48>과 같다. 4점이 ‘영향을 미침’ 수준으로, 업무방해요인별 영향 정도의 평균 점수는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인 4.04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로는,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업무성과 목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포용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기타’의 영향정도가 4.1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Ⅲ-48> 영향요인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표 III-43〉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실무자 사업수행경력별,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체 (n=78)	자립도전 수행 경력		관련자격/경험 보유여부				
		1년 미만 (n=35)	1년 이상 (n=43)	직업 상담사 자격/업무 경력 보유 (n=19)	민간 기업재직 경력 (n=29)	전산관련 자격 보유 (n=21)	사회복지 관련 경력 보유 (n=64)	기타 (n=14)
영향요인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종합)	(4.04)	(3.97)	(4.11)	(3.96)	(4.19)	(4.22)	(4.03)	(4.22)
		t=-0.862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업무성과 목표	(4.28)	(4.09)	(4.44)	(4.42)	(4.34)	(4.29)	(4.25)	(4.29)
		t=-1.770						
소속된 기관과 구성원의 나의 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력 수준	(4.09)	(3.97)	(4.19)	(3.95)	(4.17)	(4.29)	(4.05)	(4.14)
		t=-0.959						
지자체와 복지부가 기대하는 업무 수준의 상이함	(4.12)	(3.94)	(4.26)	(4.05)	(4.17)	(4.33)	(4.14)	(4.36)
		t=-1.497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포용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4.17)	(4.00)	(4.30)	(4.16)	(4.24)	(4.52)	(4.16)	(4.21)
		t=-1.414						
서비스대상자에게 연계해 줄 수 있는 지역자원의 부족함	(4.04)	(4.03)	(4.05)	(4.05)	(4.38)	(4.38)	(4.02)	(4.36)
		t=-0.079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3.65)	(3.77)	(3.56)	(3.42)	(3.79)	(3.76)	(3.69)	(4.07)
		t=0.783						
행정업무 처리 권한(보고 및 결재 등)	(3.77)	(3.89)	(3.67)	(3.42)	(4.03)	(3.76)	(3.75)	(3.79)
		t=0.899						
기타	(4.65)	(4.56)	(4.71)	(4.67)	(4.73)	(4.67)	(4.67)	(5.00)
		t=-0.521						

〈표 III-44〉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센터 규모별,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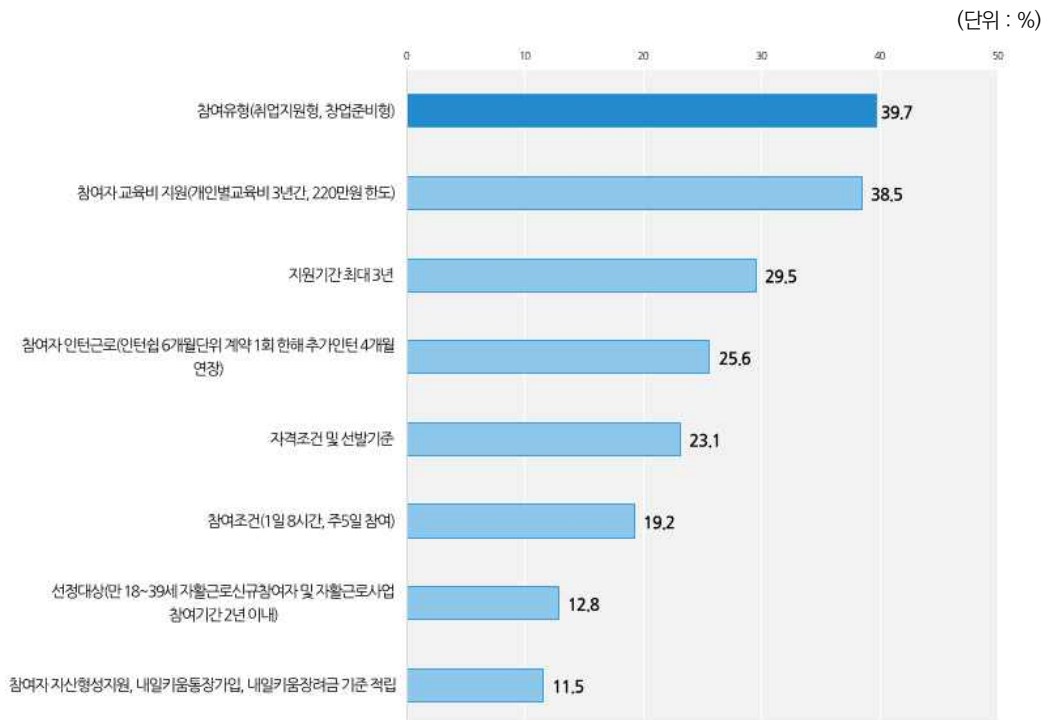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전체 (n=78)	지역자활센터 규모			지역여건 유형		
		확대형 (n=27)	표준형 (n=44)	기본형 (n=7)	도시형 (n=60)	도농복합형 (n=12)	농촌형 (n=6)
영향요인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종합)	(4.04)	(4.17)	(3.97)	(4.04)	(4.18)	(3.45)	(3.85)
		f=0.673			f=1.845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업무성과 목표	(4.28)	(4.52)	(4.14)	(4.29)	(4.40)	(3.83)	(4.00)
		f=1.544			f=2.408		
소속된 기관과 구성원의 나의 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력 수준	(4.09)	(4.15)	(4.00)	(4.43)	(4.15)	(3.75)	(4.17)
		f=0.641			f=0.845		
지자체와 복지부가 기대하는 업무 수준의 상이함	(4.12)	(4.11)	(4.11)	(4.14)	(4.23)	(3.58)	(4.00)
		f=0.003			f=2.623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포용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4.17)	(4.37)	(4.05)	(4.14)	(4.35)	(3.50)	(3.67)
		f=0.990			f=5.533**		
서비스대상자에게 연계해 줄 수 있는 지역자원의 부족함	(4.04)	(4.22)	(3.91)	(4.14)	(4.20)	(3.17)	(4.17)
		f=0.884			f=6.309**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3.65)	(3.63)	(3.70)	(3.43)	(3.88)	(2.67)	(3.33)
		f=0.166			f=6.160**		
행정업무 처리 권한(보고 및 결재 등)	(3.77)	(3.89)	(3.73)	(3.57)	(3.83)	(3.58)	(3.50)
		f=0.341			f=0.509		
기타	(4.65)	(5.00)	(4.50)	(4.00)	(4.86)	(3.67)	(4.00)
		f=1.472			f=1.243		

7)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중 개선되어야 할 항목

다음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1+2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참여유형(취업지원형, 창업준비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참여자 교육비 지원(개인별 교육비 3년간, 220만 원 한도)과 지원기간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참여조건 및 선정대상, 참여자 자산형성 지원, 내일키움통장 가입, 내일키움장려금 기준 적립 관련 항목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49〉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선 필요 항목



IV

사업효과성 질적 평가

1. 참여자 FGI 결과
2. 실무자 FGI 결과

IV

사업효과성 질적 평가 <<

1. 참여자 FGI 결과

〈표 IV-1〉 참여자 FGI 결과 의미분석

영역	범주	속성(의미)
사업참여 계기	조건부과	부모님의 질병, 형제의 장애등으로 인해 탈수급을 하기에는 가구여건상 어려움이 많음
	취성패 이후 취업이 안되어서 자활사업 참여	취성패 이후 취업이 안되어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에 연계됨
	타인의 추천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아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중 지인과 홍보물을 통해 참여 함
사업단 참여 활동과정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인터넷 강의등 교육기회를 제공 받고 있음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이력관리	우울한 자신과 대인기피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바라며,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교육을 제한없이 받고 있음
	동질감과 안정감	친구를 만나게 되고 사업 참여시간 동안 서로 챙겨 주고 받음으로 인해 상호의존하며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됨. 그리고 청년자립도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안정감 있게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생활의 안정감을 찾게 됨
	삶의 의미를 더하는 성취감	자신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고 실천하는 경험이 시작됨. 이 경험의 반복은 자신의 습으로 남도록 실패든 성공이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찾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됨

영역	범주	속성(의미)
사업 참여 전과 현재의 변화	자랑할 만한 자활사업	기초수급자라고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들 일은 아니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만한 사업으로 인식함
	탈바꿈과 자기자극	이전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 탈바꿈 했다고 하며 이전과 다른 분주함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스스로를 자극하는 건강한 긴장감으로 다가옴
	밝아짐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과 진로 목표가 생겼다는 것
	계획과 진로목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과 작은 일에서 얻는 성취감은 꿈을 갖 게 함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	자활사업을 통한 일정한 수입은 생활의 안정감이 주어지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짐. 힘겨운 상황속에서 새로운 계기를 만나게 됨
사업단 참여의 의미	구원, 안정, 치료,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곳, 다양한 경험과 기회	우울해지고 패배감에 젖게 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살게 하는 시간, 적지만 일정한 급여는 밥을 굶지 않게 하고 생활의 규모를 계획 할 수 있게 함. 서로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는 것,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곳이라 생각함
	자신과의 싸움	새로운 일에 대한 긴장과 불안은 자신이 넘어야 할 과제임.
	환경조성의 미비	자립역량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불편하며 사업 매뉴얼의 변경으로 참여 청년은 일하며 공부하고 학원 다니기 벅차기도 함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어려움	3년, 길지 않은 시간	출발이 달랐던 빈곤 청년에게는 자활사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축적하고 있지만 지나온 긴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촉박함
	청년을 위한 정책 부재	갑작스럽고 잦은 정책이 변화는 적응하기 어려움
	사업중심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변화는 청년 자활사업의 긍정적 의의 퇴색 됨.
사업단 운영의 기대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	해마다 달라지는 지침과 업무 매뉴얼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과 실무자에게 혼란스럽게 함
	정합성 있는 사업운영	청년빈곤문제를 직면함으로써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촉진제역할을 수행해야 함
	효율성 있는 사업운영	취업을 목적으로 인턴을 하기도 하지만 청년사업단에 머물기 위해 인턴을 어쩔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참여주인 주도성에 기반한 사업운영 방 안 필요

1) 사업참여 계기

(1) 조건부과

개인의 수급 자격유지 혹은 가구의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자활사업을 선택해야 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부모님의 질병, 형제의 장애등으로 인해 탈수급을 하기에는 가구여건상 어려움이 많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성인 때 탈수급에 얽매어있었어요. 저와 오빠는 건강한데 어머니가 너무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가 있어서 병원비용이 너무 부담이 됐거든요. 타 회사에 들어가면 탈수급이 되고 급여에서 어머니 주거랑 병원비용이 나가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을 하니깐 그게 유지가 되어서 많이 안정감을 느껴요.(참여자11)”

“어머니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고 마침 청년사업단에 자리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카페일이 잘 맞아서 지금도 계속 하고있습니다.(참여자10)”

(2) 취업패 이후 취업이 안되어 자활사업 참여

취업성공패키지를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취업을 위한 역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막상 이 과정 이후에도 취업은 잘되지 않았다.

“취업성공패키지로 원래 제과제빵 쪽으로 배우고 취업을 나가려고 했는데 취업도 잘 안되고 면접도 잘 안 되고 있다가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자활사업얘기를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참여자14)”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취업이 안 되어서 근로능력을 구청에서 판단해서 자활사업단에 연계를 해주셨습니다.(참여자12)”

(3) 타인의 추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준비하던 중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도 안좋아졌고, 나빠진 건강문제는 다른 일을 찾기가 힘들어졌고, 육아 등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생활상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어머니나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추천이 있었고 또 자활센터를 통한 홍보물을 받게 되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는 원래 알바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할 게 없었는데 어머니가 이런 게 있다고 제도가 저희한테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참여자9)”

2) 사업단 참여 활동과정

청년자립도전사업은 참여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 등 진로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하게 된다.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격증 취득과 시험 준비에 적극적이며 일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며, 이는 자신의 자본획득의 과정이다. 관계가 확장되고 사업단 참여주민 서로 간의 상호의존과 실무자 지지는 신뢰감이 형성되고 단절된 사회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1)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

청년자활참여자에게 자활사업의 과정에서 중요한 목표는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이 시기에 획득하고 쌓아야 할 심리·정서·사회적 역량으로 이는 그들의 자본 총량을 넓혀 가는데 기초가 되며 기회의 시간이다.

“카페 사업단에 있고, 저희는 13명 있는데 자격증 취득 우선이라 각자 계획 세워서 자격증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자격증을 목표로요.(참여자1)”

“저는 2년 정도 카페사업단 하면서 지금 대학교 입시준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카페업무하다가 쉬는 날에 따로 저는 수업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참여자8)”

“저는 쇼핑몰에서 주문 전 과정을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일러스트나 그래픽 작업을 못 했는데 사업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교육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그래픽 관련 자격증을 땀고 목표한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고 내일키움아카데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참여자13)”

(2)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이력관리

취업해야 하는데 잘되지 않고 좌절감으로 우울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예도 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 준비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고 한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경제적으로 도

움이 되고 사업단에서의 일 경험은 실무를 배우면서 공부를 병행하니 이력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동안 배운 것이 없었다는 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배우고 경험하며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기르고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이 시간에 최선을 다 한다.

“사업참여 통해서 변화되길 원하는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너무 우울하고 빛도 생기고 대 인기피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참여를 통해 우울과 대 인기피도 벗어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그렇게 변화해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참여자2)

“여기에서 저 혼자 뭔가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니까 제가 자격증을 더 수월하게 딸 수 있어서 좋았어요.(참여자1)”

“시안작업 할 때마다 저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됐고 타 교육을 받으면서도 제한이 없어서 좋았어요. 특히 비용 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다 해주셔서 좋았고 한 자격증 따려고 하면 몇 개 월이 걸리고 공부와 실습을 모두 하는게 어려운데 여기는 그게 가능해서 좋았어요.
(참여자11)”

(3) 동질감과 안정감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서로 자극도 되며 정보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사람 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는 사업단 참여를 통해 알게 되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동료들을 통해 동질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사업 참여시간 동안 참여주민들로부터 챙겨 받음에 의한 상호의존은 인정받는 느낌과 힘내서 무엇이랴도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높여 주기도 한다. 자활사업 참여 전에는 일하면서 자격증이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청년자립도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안정감 있게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생활의 안정감을 찾는다.

“코로나로 알바도 없고 학원도 안다니면서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통장에 돈도 들어오니 심적으로 도움도 많이 되고 그 후로 카페일도 저랑 잘 맞아서 취업 방향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참여자10)”

“사업단 전원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것 관련한 교육을 많이 받았죠. 다들 말도 잘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죠.(참여자7)”

“저는 지금 같이 사업단 하는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전에 알바를 하면서 일 못한다는 소리도 듣고 쌍욕도 듣고 하면서 동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단 참여하면서 동질감도 생기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참여자8)”

“여기 오면서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센터 팀장님이 지지와 격려도 해주셔서 안정감도 얻고 지지도 얻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참여자13)”

“달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감도 느껴서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14)”

(4) 삶의 의미를 더하는 성취감

청년 참여자들이 사업단을 통해 얻는 의미는 친구가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되고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로의 외로운 시간을 상호 이해하며 옆에 있어 주고 위로가 되는 친구가 생겼고, 담당 팀장들의 도움과 주변의 챙김은 인간관계를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 있던 시간 속에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현재 이 시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세히 살피고 실천하는 경험이 시작되었다. 이 경험의 반복은 자신의 습관으로 남도록 실패든 성공이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첫 자격증 딴 게 가장 의미 있었죠. 3년간 계속 패배감에 젖어 있다가 최초로 얻은 성과라 그 령고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이 의미가 있었죠.(참여자2)”

“취업에 도움될 걸 서로 주고받고 서로 위로도 해줬고 팀장님들도 잘 챙겨주셔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참여자3)”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대해 준비하고 면접까지 가면서 사업단 업무도 성실히 하는 과정에 면접까지 가게 된 게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습니다.(참여자2)”

(5) 자랑할 만한 자활사업

기초수급자라고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들 일은 아니며 현재 과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면서 돈 주고도 못 받을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고 한다. 자활센터나 자활사업이라는 규정된 명칭이 아닌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무기력이나 주눅 들기보다 자기 삶에 대한 애정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라고 움츠러들진 않아요. 지금은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서 형과 어머니 외에 대화하는 지인이 없는데 성공한다면 저의 이런 과정과 제가 자활사업 제도를 이용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참여자2)”

“종결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게 없으니까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참여 가능한 기간 동안 참여를 다 하고 싶습니다.(참여자3)”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설명해주면 신기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할 것 같다.(참여자10)”

3) 사업 참여 전과 현재의 변화

(1) 탈바꿈과 자기 자극

청년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 이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탈바꿈했다고 한다. 더는 잃을 게 없으므로 자활사업 참여 전의 자신의 모습은 최악이었고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전과 다른 분주함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자신을 자극하는 건강한 긴장감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건 없어요. 사업 전이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상태라 더 안 좋아진 것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고통도 즐거움도 없는 송장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은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제 자신이 탈바꿈 되었죠. 자활사업 후로.(참가자1)”

“참여 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언가 해보려고 계획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변했고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참가자3)”

“저는 참여 전에는 어두운 느낌이 강했는데 참여 후에는 밝은 느낌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일도하면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참가자5)”

“여기에서 일을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되어서 많이 안정감을 느껴요. 경제적 부분 지원도 해주시고 제가 배울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원래 전화를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부딪혀보니깐 요즘 떨지 않고 전화도 하고 할 말도 다 잘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11)”

(2) 밝아짐

스스로 변화를 감지하면서 그 생활의 변화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스스로 사회성이 결여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기력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무엇이랄도 시작할 계기가 되고 자신의 생활을 짜임새 있게 설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과 진로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다.

“저는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알바나 정직원으로 일할 때 급여를 받고 나서도 저축하는 습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사업단 하면서 내일키움통장도 들고 적금도 두 개 넣고 주택청약도 넣었거든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9)“

“저는 참여 전에는 어두운 느낌이 강했는데 참여 후에는 밝은 느낌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일도 하면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참여자5)“

(3) 계획과 진로 목표

청년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 전과 이후의 생활에서의 변화는 그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며 작은 일에서 얻는 성취감은 꿈을 갖게 된다. 그리고 목표설정과 과정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쌓아간다.

“저는 사회성 결여가 해결됐죠. 사업단 하면서 여러사람과 대화하고 그런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참여 전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 뭐라도 시작할 계기가 되어서 좋았죠.(참여자7)“

“전에는 뭐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와서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적인 측면에서 진로 계획과 진로 목표가 생기게 된 거죠.

(참여자8)“

(4)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이전에 느끼지 못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일정한 수입은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현재보다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자격증 취득, 저축, 관계, 눈빛 교환, 병원 치료 등 삶의 총체적인 역량을 쌓아가며 그 역량을 조금씩 사용하는 순간은 결국, 자신들이 지금 보다 자신의 삶이 자립적이고 이전의 삶과 다른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빈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자기 목표 속에는 혼자가

아닌 부모 혹은 형제의 삶이 얽혀있다. 아픈 가족으로 인해 생활의 압박과 함께 혼자 헤쳐나가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를 때 청년자립도전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알바나 정직원으로 일 할 때 급여를 받고나서도 저축하는 습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사업단 하면서 내일키움통장도 들고 적금도 두 개 넣고 주택청약도 넣었거든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9)”

“그 전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았고 단기알바 정도만 했었거든요. 자활참여하고부터 고정적 수입이 생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진로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예체능계열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실패할 확률이 큰데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것도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10)”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내일 당장 살아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근로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요. 근로를 하니까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일반 기업에 비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병원을 내원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됐죠. (참여자12)”

“저는 원래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경험을 해서 낮가림도 심해지고 성격도 소심해졌는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응대하다보니까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사람들도 좀 더 잘 상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달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감도 느껴서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14)”

“탈수급을 준비하는 과정이요. 여기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나가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과정인거죠. (참여자13)”

4) 사업단 참여의 의미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현재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많은 의미를 부여 하게 되고 두렵지만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간다. 그동안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흘러보낸 시간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그리고 단절된 인간관계는 더욱 사람만나는 일을 두렵게 하고 우울해지고 패배감에 져게 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한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는 자활사업이 든든한

올타리가 되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구원이라 표현하고 있다.

안정.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친구한테 돈 빌리고 밥도 잘 못 먹었는데 매달 일정한 급여는 밥을 굶지 않게 하고 생활의 규모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안정이다.

치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들어오면서 생각이 변했다. 서로 감정과 생각도 나눌 수 있고 속 얘기하는 법도 배우게 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을 알게 되어 마치 치료받는 느낌이다.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곳. 조건부수급이라 다소 강제적으로 시작했지만 학력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자신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경험과 기회.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곳이며,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 간다. 사회에서 주어지지 않는 기회가 이곳에서는 많이 배우고 기회가 주어진다.

“동료와 팀장님과의 유대를 통해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됐고 3년간 혼자 우울하게 지내면서 패배감에 젖어있었는데 첫 자격증을 얻으면서 자신감을 얻는 시작이 되었습니다.(참여자2)”

“기회’입니다. 사회에서는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지만 여기서는 저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와 여러 기회를 줍니다.(참여자4)”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라서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적었어요. 자립지원금으로 공부하기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운 좋게 여기 들어와서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어서 고맙죠.(참여자1)”

5)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어려움

(1) 자신과의 싸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이전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희망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쌓아가며 사업단에서 일을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함께 존재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도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마다 긴장과 불안을 느끼

지만 이 또한 자신이 넘어야 할 과제임을 안다. 그리고 사업 참여 동안 경험하는 일 경험은 사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주문, 제조, 손님 응대 등 만만하지 않은 갈등에 부딪히며 다양한 스킬을 습득한다. 특히, 사업단 업무 속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와 협업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들은 자활사업 참여 전에 겪었던 관계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쌓아간다.

“공무원 시험 준비가 올해까지만 되고 내년부터는 인턴을 들어가야 청년사업단이 유지 되어 서 그 인턴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참여자2)”

“저희는 업무가 카페이다 보니 주말에 쉬기 어렵고 원하는 요일에 쉬기가 어려워요. 편의점 사업단과도 같이 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챙기는 게 조금 힘듭니다.(참여자1)”

(2) 환경조성의 미비

청년자립도전사업은 참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운영 및 교육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센터 내 사업단이 여러 개 있다 보니 청년참여자들이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해한다. 그리고 코로나 등 다양한 상황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학원을 섭외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무엇보다 최근에 사업 매뉴얼이 변경된 이후 참여 청년의 경우에는 일하며 공부하고 학원 다니려니 벅차기도 하다. 또한 센터마다 사업단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개인별 맞춤이나 자체 사업을 구성해서 그 속에서 개인별 진로를 준비해야 하므로 욕구와 어긋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근무하면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공부니까. 학원도 멀고. 사업단 하려면 두, 세 명이 모여서 학원을 등록해야하는데 저밖에 없고 지원하려고 해도 기다려야 하고 제가 일한지 9개월이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걸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학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커피가 아닌데 커피만 하고 있으니까.(참여자4)”

“저희는 한 센터에 사업단이 여러 개 있고 다른 사업단 내에 청년사업단이 같이 있어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벽을 세워 놓은 거라 소음 문제도 있고 다른 사업단에 양해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는 합니다.(참여자3)”

“제가 들어왔을 때 내일배움카드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했다가 한 달 뒤에 갑자기 안 된다고 통보 받아서 아쉬웠어요. 센터에 와서 공부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센터는 공부할 장소도 없고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하는 공부인데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건 인정이 안 되어서 아쉬워요.(참여자10)”

(3) 3년, 길지 않은 시간

출발이 달랐던 빈곤청년에게는 자활사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축적하고 있지만 지나온 긴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간다. 시간의 절대적인 양보다 자활사업 참여 청년에게는 더 질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 청년들은 사업단에서 근로하며 학습을 병행하고 진로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청년이 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 청년 중에는 개인의 여건상 사업 참여 자체가 목적이 되는 때도 있다. 그래서 사업 참여기간은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3년이 종결 기간인데 다른 사업단은 5년이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준비하기에 너무 짧아요. 기간을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9)”

“청년 사업단은 3년이니깐 그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희가 무언가 이루어내고 맞는 사업을 찾아서 창업하는 게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참여자11)”

(4) 청년을 위한 정책 부재

사업단 운영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전에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달리 피로감으로 다가온다.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확장은 이전의 삶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지만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시간과 공간이어야 함에도 갑작스럽고 잦은 정책의 변화는 결국 정책의 부재함으로 다가오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를 구직자 전형으로 했는데 이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지금 사라져서 아쉬워요. 실질적으로 청년사업단이라고 하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해요.(참여자8)”

“저희 센터는 인원수가 충분한데 계속 추가 인원을 넣어서 곤란했어요. 추가인원이 계속 오니까 사업단 돌아가는 게 오히려 어려웠던 것 같아요.(참여자11)”

“저희는 홍보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데 사업 초창기에 명목이 없다고 많이 반려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는 이런 비용이 필요한 걸 예측하고 설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13)”

(5) 사업중심

청년자활사업의 의미는 심리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회복됨으로 자신의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고 빈곤청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 할만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변형이 되고 긍정적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를 현재 참여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운영의 측면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증가, 타 사업단과 다른 조건으로 인한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불만, 청년자활사업의 매뉴얼의 변화 등은 사업단 운영에 있어 산재해 있는 현실적 문제들 속에서 지침을 벗어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므로 딜레마를 겪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는 결국 청년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하게 되고 청년 자활사업을 만나면서 삶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빈곤청년에게는 또다시 제도로 인해 주저앉게 만드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업단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무자들이 좀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사업단 하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지를 않아서.(참여자14)”

“너무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게 아쉽죠. 받을 혜택은 많지만 그 혜택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이 용자가 계획적으로 천천히 준비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해야 하니까. 자격증도 따야 하고 사업단 준비도 하고 너무 피곤했거든요.(참여자12)”

“직원 한 분이 근로하면서 저보다 근로를 오래 하셨음에도 여전히 미숙하세요. (중략) 지금 카페가 일이 잘되니까 하루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해요. (중략) 지금 얻은 건 많은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활근로를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이 커요.(참여자8)”

6) 사업단 운영의 기대

(1)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

청년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과 미래를 설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안전망은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활사업이 잠시 머무는 시간이지만 이 속에서 얻는 새로움과 기대는 크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운영되던 초기에는 기존 자활사업과 달리 청년이라는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운영이 매우 창조적이었고 획기적이었다. 하지만 사업운영과정에서 해마다 달라지는 지침과 매뉴얼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과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시점이 된다.

“제가 팀장님한테 궁금한 걸 여쭙보면 항상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일주일 사이에도 지침이 바뀐 적도 많고 저는 장기적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는 여기 있고 싶은데 (중략) 규칙과 제도, 지침이 어떤 사람은 시험을 6개월 할지 1년 할지 개인의 시험 준비 기간에 맞춘 지원과 계약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이 없고 다 미정인 점이 불안합니다.(참여자1)”

“아쉬운 건 자활센터마다 다 다른 사업단을 가지고 있지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취성패처럼 자기 하고 싶은걸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쉽고 좋은 건 일 한 만큼 돈도 벌어가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14)”

(2) 정합성 있는 사업운영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우리사회가 직면해야 할 청년문제를 직시하며 빈곤대물림의 현상으로 또는 빈곤 장기화로 고착되지 않아야 할 당위성을 두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는 부모가 기초수급자이며 가구의 수급을 유지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조건부과에 의한 참여가 있으며, 막 다른 길에서 선택하게 된 기회인 경우도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을 통해 얻는 효과는 청년빈곤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최초 제안되고 운영하게 된 목적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들의 자활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서인지 이용만 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누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은 차단하고 노력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불만도 줄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략) 그래서 청년사업단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면 사업축소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참여자2)”

“청년사업단에서 성실하게 하기보다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러기가 어렵다보니까(참여자1)”

(3) 효율성 있는 사업운영

사업운영형태가 수시로 변하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혼선을 가중하게 되고 경직되게 된다. 결국, 이 사업 참여를 통해 얻어야 하는 효과는 쇠퇴하게 된다. 자활사업은 주민주도성으로 참여주민의 노동이 존중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순환을 통해 주민의 삶은 존중된다. 그래서 참여주민의 주도성에 기반한 사업운영에 대한 방안이 요청된다.

“취업을 목적으로 인턴을 하는 건 알겠지만 지금 이대로는 청년들이 정말 취업을 위해 인턴을 알아보고 일하기보다 청년사업단 유지만을 하기 위해서 인턴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2)”

“청년사업단이라 연령대가 낮고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근무시간에 담당자가 없으면 나갔다 오는 근무태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한 규칙이나 룰을 만들어서 걸돌고 이 용만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참여자3)”

“카페인데 저희가 물품을 살 때 담당 팀장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비상금도 없으면 팀장님이 근무가 끝난 시간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했고 (중략) 일이 생겨도 저희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사업단 대표님에게 권한이 더 부여되면 좋겠어요.(참여자8)”

“아쉬운 건 그게 모두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요구되는 것이 많아 일정이 빡빡했어요. 근무 환경 자체는 일반기업보다 좋죠. 그래서 복지를 받는다고 보다 근무환경이 조금 좋은 기업의 느낌이 컸어요.(참여자12)”

2. 실무자 FGI 결과

〈표 IV-2〉 실무자 FGI 결과 의미분석

영역	범주	속성(의미)
실무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	센터 내 역할이동	같은 비정규직이지만 좀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함
	청년사업에 대한 관심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함
	청년사업단 구성으로 사업단 운영 업무 추가	업무분장에 의해 업무가 보태짐
실무자의 역할	가려진 가능성 찾기	참여청년들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임
	상담과 사례관리	아픈 청년이 많음으로 인해 상담과 사례관리 업무의 비중이 큼. 그러나 제대로 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음
	촉진하기	참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잘 다루고 해결해가기 위해 촉진자의 역할을 함
	역할이 모호함	실무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지만, 참여 청년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지속됨
사업단 운영목표	취업형과 창업형	참여청년이 목표를 가지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등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창업지원으로 참여청년 전체가 카페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정서회복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분노조절 장애 등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하게 됨
	성취감과 도전	자격증취득과 사업구성에 있어 상호 간에 의견교환의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활력을 얻게 됨
	역량강화	청년들 개인의 역량을 쌓아가며 부족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주어진 시간 안에 도달	다소 역량 있는 청년은 시간이 많고 적응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과정과 도달을 이룸. 반면에 의존성이 우려됨으로 주어진 시간에 무엇이라도 도달할 필요 있음
참여청년의 특징	건강하지 않음	사업초기에 종합심리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수 참여자들이 경계선인 경우가 많은데 어릴 때부터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고 성장했음.
	부족한 사회경험	경험이 없다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안 하거나 못해본 것이 특징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함.
	욕석 같은 친구	하고 싶은 자격증 공부를 그동안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해서 취업까지 도달하지 못했음. 역량이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함
	빈곤대물림	현재 부모님이 수급자여서 참여하게 됨.
	다양한 삶의 배경	시설보호종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등 다양한 삶의 배경이 있음.

영역	범주	속성(의미)
사업단 운영의 의미와 보람	성장하고 있을 때	학습과 일등을 연결해줌으로써 참여청년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낄 때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상호의존과 재미있는 업무 일상	늘 새롭게 구성되는 일들 속에서 청년 참여자들과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게 됨
	건강해진 청년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성해가는 태도를 보임
사업단의 사회적 효과	불균형의 균형	수급자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다양하게 인식하지만 위기속 안정감으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함
	작은 변화 큰 물결	자활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들이 자신의 자본으로 형성되어 더 큰 시너지로 나타나길 기대 함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자활사업 참여로 작은 일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 큰 의미 임. 청년들 또래관계속에서 사회성을 다시 배우게 됨.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
사업의 변화기대	청년을 위한 필요충분의 교육실행	필요충분에 의해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 누적된 성취감으로 탈빈곤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실무자의 안정적 사업 참여보장	실무자의 잦은 이직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참여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상호연대를 통한 창의적인 활동	사업운영에 대한 설명과 공유의 장을 통해 업무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함. 지역단위 혹은 광역단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업무를 지원받기를 원함
	사업단의 고유성 확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시작하게 된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성과와 실패를 공유하며 빈곤청년에 주목하길 원함

1) 실무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

(1) 센터 내 역할이동

청년사업 담당자의 건강문제 및 이직 등 부재로 인해서 재채용 기간이 길어져, 기존 사업단 담당 실무자가 겸해서 운영하다가 센터 내 역할이동을 하게 된다. 역할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사례관리업무와 같은 비정규직이지만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사례관리업무보다는 더 나은 조건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에서 선택한다. 하지만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의 지위도 비정규직임으로 인해 실무자들은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지만, 자활사업 참여 청년의 내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청년은 2년 됐고요. 원래 사례관리 담당하다가 청년 담당으로 옮겼죠. 제 요구도 있기는 했는데 기관에서도 원해서 자연스럽게.(실무자1)”

“사례관리자로 입사했다가 올해 4월부터 청년으로 왔습니다. 원래 00님이 맡고 있다가 업무 분장을 통해 제가 청년자립 쪽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맡게 됐죠.(실문자2)”

(2) 청년사업에 대한 관심

타 직종에 일하다가 사회복지 및 자활사업에 관한 관심으로 지역자활센터를 만나게 되었다. 대부분 사회복지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경력이 있어도 1~2년 정도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업무를 보았는데 (중략) 한 분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이 자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략). 그래서 더 이 사업에 관심이 가고 지원하게 된 게 있죠. (실무자3)”

“1년 됐죠.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이라 졸업 전에 온 건데 특별한 계기보다 청년 쪽으로 일을 해 보고 싶어서 지원했죠.(실무자5)”

“어느 정도 나이 되니까 전공했던 사회복지로 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왔어요. 사회복지일은 1년 채 못했던 것 같아요.(실무자6)”

(3) 청년사업단 구성으로 사업단 운영업무 추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운영내용이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기관의 판단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었지만, 전담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단 담당자가 겸해서 운영하고 있다.

“저는 전담자가 아니고 00사업단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청년들이 많다보니까 00님이 세차 사업을 청년 자립으로 가자고 그랬거든요.(실무자4)”

“저는 지금 정규직이고 저희도 업무 겸임 안 되고 전담 관리자 뽑아야했는데 관둔 00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 거죠.(실무자7)”

2) 실무자의 역할

(1) 가려진 가능성 찾기

초기상담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참여 청년이 무엇을 잘하는지 확인하게 되고, 조금씩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을 감지한다.

“그 사람이 뭘 잘하는 지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무기력했다가 조금씩 의지가 생기는 걸 보면서 없는 게 아니라 몰랐구나 싶은 게 있죠.(실무자2)”

“하나의 사업단이 아니고 파견을 하는 형태라 그 친구들 상담과 사례관리가 중점이라 계획하고 일상적 상담을 통해 장애물을 이겨내는 역할 정도를 하면 되겠구나 싶었죠.(실무자1)”

(2) 상담과 사례관리

기존 사업단과 다르게 운영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일상적 상담을 통해 삶의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설령 사업단 내 사업을 구성해서 운영하더라도 청년참여자 개인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 참여자 중에는 아픈 청년이 많음으로 인해 실무자의 역할 중에는 사업운영 못지않게 상담과 사례관리 업무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기관 내 시스템이 필요한데 오롯이 담당 실무자의 몫이 되어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

“취창업 지원하고 정서 지원한다고만 알고 그냥 입사해서 취업 도와주고 사례관리보다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실무자5)”

“하나의 사업단이 아니고 파견을 하는 형태라 그 친구들 상담과 사례관리가 중점이라 계획하고 일상적 상담을 통해 장애물을 이겨내는 역할 정도를 하면 되겠구나 싶었죠.(실무자8)”

(3) 촉진하기

자활사업 참여 청년에게 실무자는 미래에 대한 계획, 교육, 개인적인 삶의 다양한 문제 등을 다루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사업단을 하지 않은게 자립목표가 다 다른데 어떤 사업으로 근로를 시키기보다 빨리 자격증 따서 분야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센터보다는 밖에 내보내도록. 자활에 있으면 안주하기보다 빨리 밖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실무자11)”

(4) 역할의 모호함

실무자의 잦은 이직과 매뉴얼의 변경은 사업을 수행하려는 당사자에게는 의아함으로 다가온다.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실무자는 자신이 사업가인지 사회복지사인지는 정체성의 혼돈을 느낄 정도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역량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특히 참여 청년의 개인별 여건의 복잡함과 사업 수행 간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20대부터 만 39세까지 폭넓은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컸지요.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오는 게 계획을 수립해도 그대로 가지 않고 청년들도 계속 수시로 바뀌거든요. (실무자9)”

3) 사업단 운영목표

(1) 취업형과 창업형

취업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준비하는 동안 사업단에 매일 출근해서 고객 응대하는 것도 일 경험이다. 청년 참여자들이 자신감 얻고 취업해 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취업지원 만이 아니라 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참여자들이 업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센터마다 추구하는 최종목표는 다르나 현재 청년참여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취업을 목표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업을 구성하고 구성된 사업을 통해 개인별 취업역량을 준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공동 사업단 구성보다 개인별 진로를 위해 개인별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 등 센터마다 형식은 다르지만, 최종목표는 그들의 취업 혹은 창업이다.

“본인이 목표가 있으세요. 공무원이 하고 싶다거나 커피와도서관 자활기업으로 가고 싶다거나 어떤 분은 글 쓰는 걸로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컴활 부터 언어자격증도 있는데 취직이 안 되어서 오신 거라 가고 싶은 기업도 있고 카카오톡 네이버 웹소설 연재를 원하셔서 준비 중인 분이 계시고 취창업 가능성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죠. (실무자7)”

“취업지원형으로 거의 어려워서 창업지원으로 카페 교육 시키면서 개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하는 거고 취업하는 분들은 자격증 쪽으로 하고 창업은 자활기업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카페 연습을 하고 3년간 그 과정을 다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실무자1)”

“취업이 마지막 목표이긴 하지만 빠진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했어요. 일상 업무를 하거나 꾸준히 출근하거나 이런 것부터 다시 했어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무자11)”

“최종 목표는 취업이죠. 취업을 하려고 인턴을 보내는 거고 그래서 잘 되면 인턴파견제로 취업도 가능하니까.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일반시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든 수준의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르바이트 했다가 저녁에 바로 잘린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실무자5)”

(2) 정서회복

사업 참여 청년들 중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있다.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대부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분노조절 장애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경우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연계하게 된다. 그리고 조직 내 질서를 배우고 배려하고 친구를 사귀며 동료애를 갖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참여자들이 많으므로 사업단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사업단 운영의 최종목표는 취업이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사례관리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을 한다. 결국,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게 한다. 이러한 측면은 자활이 가진 장점이다. 빈곤청년 중에도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끌어주고 기다려주기 때문이다.

“지침 상으로는 저희가 취업시장 진입이 목표라 그걸 따라가지만 오시는 분 대부분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이 심각하시거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사업비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사례관리자 통해 연계만 해드렸어요. (실무자7)”

“방해요소를 제거해야 창업해도 근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역량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밑바탕 삼아 창업을 하는 방식으로요. (실무자2)”

(3) 성취감과 도전

자격증뿐만 아니라 사업을 구성하는 과정 있어서도 청년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결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곳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르바이트 경험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 아직 자신이 원하

는 방향을 모르는 청년 참여자에게는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런 경험들이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는 뚜렷한 목표 없이 참여하거나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학력 단절로 새로운 시작을 어려워하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힘들었던 경험 등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으로 좌절을 겪었는데 사업단에서 다른 참여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요양보호사 따셨는데 코로나로 실업을 못 하셔서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간호조무사 따신 그 분으로 두 분 가계세요.(실무자7)”

“공장에서 양말목 찢어기가 나오면 폐기가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민간자격 따신 분이 계시거든요.(실무자16)”

(4) 역량강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초기에는 지금과는 다른 매뉴얼로 자격증 취득과 역량강화에 집중했고 2021년 8월부터는 근로와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여짐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다. 안정되지 못한 매뉴얼은 일관성 있게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개인의 역량을 형성하고 쌓아가며 부족한 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은 부단히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며 나아가고 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취창업) 의지는 다들 있는데 돈이 문제예요. 뭐 하나 전문 자격증 따려 하는데 3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에서 한계가 오는 거죠. 가능성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적어도 검정고시 났으면 전문대라도 가야하고 바리스타를 따봤자 갈 곳이 없어요. 저희도 10분 정도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취창업을 나가기는 무리인 거죠. (실무자16)”

“저희가 창업 관련 강사를 모집해서 성공할 창업을 위한 정보를 저도 듣고 수시로 알려주죠. 각자 맡아서 알아보도록 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는 것 정도이지 서류화로 도움줄 건 없고 같이 알아보고 건적 알아보고 현장에서 수시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을 주는 방법이지 않을까. (실무자10)”

(5) 주어진 시간 안에 도달

청년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된다. 이 시간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는 사업을 이용하는 당사자이다. 다소 역량이 있는 청년에게는 자신이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시간에 길고 짧음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욕구의 흐름대로 속도를 가져간다. 다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업 취지의 최종은 빈곤대물림의 고리를 끊으며 탈빈곤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청년의 나이에 자활사업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며 이들이 탈빈곤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실천이 요구된다.

“3년 끝나고 다른 사업단 가면 2년 더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옷가게 판매직을 하든 서빙을 하든 자활이 아닌 곳에 가도록, 제가 자활에 오래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도 자활에 계속 있으면 의존성이 높아지니까.(실무자11)”

“저도 3년 끝나도 자활에 두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사업단을 가기보다 실제로 만기 된 청년이 계셨는데 2년 더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안 하고 어디서 알바라도 시키려고 커피 집에서 알바라도 하라고 따로 가르치고 있는데 힘들다고 안 하겠다고 해서 종료된 분이 계세요. 커피 만드느라 가르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죠.(실무자5)”

“3년의 사회안전망적 시간은 필요해요. 그 기간동안 출퇴근도 해보고 안정적인 생활 해보고 은둔형 외톨이를 벗어나서 생활하는 경험은 좋은데 여기서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본인이 만족해버려요.(실무자13)”

4) 참여청년의 특징

(1) 건강하지 않음

우울, 공황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가 있다. 아침 출근마저 잘되지 않으며, 청년 참여자 다수가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청년, 사회성이 결여된 청년과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다. 은둔형 그리고 자해를 여러 차례 시도하는 청년도 있다. 사업 참여 당시는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에 특이한 점이 없었지만, 초기상담과 사업 진행 중에 정신과적인 문제나 경계성 장애 등이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센터 내 초기 개입 과정과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파악된다. 심지어 건강상태가 안 좋아 쓰러지기도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자활사업 참여 가능한 근로평가를 받고있는 것이다.

“초기상담에서 가리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별도로 저녁시간에 따로 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식으로 일주일에 두, 세 번은 그 친구랑 저녁 시간을 오롯이 보내면서 과거 얘기를 다 들어요.(실무자9)”

“1년 공무원 공부해서 안 되면 나가서 창업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파악한다기보다 그냥 정보만 아는 거지 겪어봐야만 알 수 있더라고요.(실무자7)”

“어려운 게 동료들이 이 사람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본인이 의욕도 있고 하려는 계획도 찾았고 하면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일반사업단으로 보내죠. 경계성 친구들은 일반사업단으로 보내죠. 지금도 개인서비스 없는 일반사업단으로 보내고 있죠.(실무자1)”

“저희가 초기에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했어요. 지능검사랑 사회정서검사를 실시했는데 거의 경계선이고 한 친구는 지적장애 신청해서 등급 받고 장애인 복지관으로 넘겼어요 (중략) 보호자가 적절한 케어를 못 해서 여기서 찾아낸 거죠. 경계선은 더 찾아내기 어려우니까.(실무자11)”

“근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의지도 없는 분이 있는데 센터 있다가 쓰러져서 응급실 다녀올 정도로 많이 안 좋은 분도 있었어요.(실무자5)”

(2) 부족한 사회경험

청년 참여자들 중에는 사회경험이 없다 보니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상황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업무 중에 지적을 받아도 힘들어하고 지적받은 일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등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 있다. 즉, 사회경험이 없어서 대인관계도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이러한 반복된 일상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며, 사업단에서의 일 경험과 교류는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해 간다.

“경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나가서 일을 안 하거나 못해본 것이 좀 특징이죠.(실무자2)”

취창업 가능성이 높아요. 60%는 취창업이 가능해요. 근데 자존감이 정말 낮고 사회경험이 적어서 대인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자기 목표가 불분명 하고. 하지만 근로의지도 있고 역량도 있거든요.(실무자6)“

“피곤해서 늦잠자고 그래서 늦고 이런 것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늦게 와서 장난도 치고 싸우고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태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어려웠죠.
(실무자13)”

(3) 옥석 같은 친구

옥석 같은 청년은 건강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훨씬 숫자가 적다. 이런 청년들은 아이디어도 많고 기회를 만나게 되면 충분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의욕도 있고 방향성을 가진 청년에게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매우 긍정적인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측면에서는 이러한 옥석 같은 친구가 많아지길 바란다. 그래서 사업단 참여 청년 구성에서 초기에는 사업유지 인원 때문에 신청하는 모든 청년을 사업단으로 구성했지만 건강상의 문제, 개인의 심리 정서적 문제 등은 사업단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대상의 불일치로 여겨져 역량 있는 청년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자기 하고 싶은 자격증 공부나 이런 것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지원을 통해서 자격증 준비도 하게 해서 취업으로 연결하는 친구들이 있죠. (실무자1)”

“저희는 60~70%요. 역량은 떨어지는데 성실하거든요. 의지는 있어요. 저희는 그걸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탈락하지 않으려는 의지요.(실무자11)”

“처음에는 인원모집이 어려워서 다 받았고 두 번째부터는 걸려서 받았어요. 기존 참여자 친구들이 많이 나갔어요.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역량이 부족해도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받아요.(실무자14)”

“뛰어나고 다 좋은데 집안 경제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온 가족이 수급자라서 온 건데 본인들 개개인 역량은 좋아요. 대학도 졸업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오면 성과를 내거든요. (실무자4)”

(4) 빈곤대물림

부모의 빈곤상황이 청년에게도 빈곤상황으로 전수되며 수급권 박탈이 해당 가구에 더 큰 불리함이기에 자활사업 참여를 선택하기도 한다.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없거나 엄마도 아빠에게 맞아서 장애를 얻고 형은 교도소가 있고 그런 거예요. 보면 대인관계가 힘든 분들이 많아요.(실무자4)”

“보통 부모님이 수급자죠. 학교도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출신이죠(실무자10)”

(5) 다양한 삶의 배경

청년 참여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혼자 는 아니지만 아이와 함께 삶을 가꾸어야 하는 상황에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삶을 버 티게 하고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자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자신을 숨기려하고 취업 등 세상에 부딪혀보지만 벽은 너무 높았으며 반복되는 좌절은 더욱 모자를 깊게 눌러 쓰며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트렌스젠더 숨기려고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머리도 자르고 모자도 벗고 당 당하게 다니거든요. 근데 사회 편견 때문에 일반 취업은 힘들어요. 편견이 있으니까. 면접을 봐도 무조건 탈락이니까. 본인은 그나마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변화 자체가 엄청난 거죠. 많이 싸우고 울고 그렇게 했죠.(실무자4)”

5) 사업단 운영의 의미와 보람

(1) 성장하고 있을 때

실무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자가 성장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원 하는 교육을 연결해 주고 그것을 수행하는 동안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 게 된다. 그리고 학업을 다시 시도하면서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실무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자신이 자활사업에 참 여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고 수급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 아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1년이 채 안 됐는데 제가 1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정서지지를 하니까 이 친구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믿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느껴질 때 보람이 있죠. (실무자9)”

“스스로 크고 옆에서 알려주고 챙겨주고 하면서 본인이 성장하니까요. 저는 이거밖에 안 했는 데 본인이 올라오고 의욕이 생기니까요. 그런 게 보람이죠.(실무자9)”

“제가 다른 사업단을 맡으면서 청년사업을 맡아서 해도 이 분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전담을 해서 이 분들을 케어하면 변화 시간이 짧아질 수 있고 사회에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무자4)”

(2) 상호의존과 재미있는 업무 일상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는 정해진 일상의 업무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내는 업무이다. 참여 청년들 개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별 계획에 맞는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며, 때로는 사업을 구성하더라도 청년참여자와 함께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매우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에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지만, 변화하고 성장하는 청년참여자가 있기에 하루도 똑같지 않은 일상이 흥미롭기도 하다. 그리고 청년참여자와 어울리는 시간에는 실무자로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지만 그들로부터 오히려 에너지를 받기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친구들이 와서 자격증은 다 못 따지만 따면 제가 더 기뻐요. 미용학원 다니다가 좀 잘하면 학원에 인턴 시켜 달라고 해서 인턴 하다가 다른 곳 취업하고 이러면 너무 부듯하죠. 잘 운영하면 좋은 사업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연락하면서 지내면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보람되고요.(실무자11)”

“청년이 되고 나서 수급이 10년 이상 유지되면 탈수급 의지가 없으세요. 근데 젊은 청년들은 탈수급 의지가 그나마 강해요. 그래서 일부터 더 분리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실무자10)”

(3) 건강해진 청년

건강의 의미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에 대한 주도성과 적극적으로 대하는 태도의 건강함을 의미한다.

일 경험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고 스스로 조직해 낸다. 특히 일 경험의 장에서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우울증 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청년도 손님 응대를 하며 밝아진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청년들도 조금씩 달라진다. 이러한 달라짐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반복이 체화되면 이전보다 다른 삶의 힘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 참여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토론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검토를 요청하는 등 태도의 변화가 있다.

“5명이 창업으로 하자고 했을 때 창업의 꼭지 아이디어를 센터가 내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거든요. 그 장단점도 선생님들이 다 적게 하고 하면서 줄여서 5개 나왔는데 직원 TF팀 구성해서 자료도 본인들이 다 찾도록 하고 해서 사업계획서도 내용도 선생님들 입에서 다 나오게 해서 선생님들이 다 했어요.(실무자6)”

“검색도 안 하고 저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검색해보고 오세요. 이렇게 다 해주지 않고 찾아보게끔 해요. 안 해주니까 자기가 하게 되는 거죠.(실무자12)”

“이 친구들이 원래는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본인들이 뭔가 해서 한 줄이라도 보고서에 쓸 것이 생기면 굉장히 뿌듯하죠. 그냥 어두웠던 친구들이 마음 열고 웃는 것만 봐도 만족감을 얻어요.(실무자10)”

6) 사업단의 사회적 효과

(1) 불균형의 균형

사회안전망은 위기상에 안정감이라는 울타리로 작용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참여자의 말처럼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는 삶의 전략이며 균형을 되찾는 일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현재 상황에 머무르고자 하는 생각과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며 한쪽으로 기울는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들은 균형으로 얻는 효과와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나 현실적 한계들로 인해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고군분투하게 된다.

“어떤 청년은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수급 도전하는 친구도 있고 수급이 창피하다는 친구도 있어요.(중략)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실무자9)”

“지체장애부터 대졸에 의욕도 있어서 조금만 밀어주면 되는 친구도 있고. 지금 한부모 가정어머니가 있는데 의지가 높은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하면 급여가 낮아서 수급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수급하면 교육급여도 받고 그래서 제도적 문제도 많고..(실무자4)”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취업하는 친구들도 봤고 자활 참여하면 일해야겠다.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실무자11)”

“청년 사업단 오면 우선 취업시켜주는 걸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적응이 힘들다가 급여 받으니까 편해서 안주를 해버려요.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실무자6)”

“참여자분들이 근데 인턴으로 가기를 꺼려하시는 게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자격증 따기는 했는데 바리스타로 가실 확신도 부족하시고. 지금의 근로수준에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취업하기는 좀 두려워하시고..(실무자15)”

(2) 작은 변화 큰 물결

다양한 격차는 소득에 따라 더 크게 발생한다. 아울러, 어떤 경험을 축적하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소득의 격차는 삶의 전반에 다양한 격차로 나타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성장기부터 현재까지 그들이 내재한 경험들로 인해 사회를 살아가기 벅하다. 한 사람이라도 자활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을 자신의 자본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더 큰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실무자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주어지는 3년은 짧기만 한 것이 아니므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도 당장 소득도 받을 수 있고 집에만 가만히 있고 안 나오던 친구들이 수급권 때문이긴 해도 어떻게든 나와서 경험을 하면서 열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의지가 생기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열 명 다는 아니지만 한 명이라도 그런 변화가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고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거든요.(실무자5)”

“저희가 20대 초반도 없고 20대 중반이 오는데 3년 지나면 취업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30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할 일자리를 더 가기 어려워져요. 3년 참여하고 2년 더한다고 말하면 5년 짝 채울 사람이 많거든요. 살만하니까. 근데 그러면 복지의 함정이죠. 저희는 1인 가구랑 보호 종료 아동, 시설출신이 많아서 그런 말을 해줄 어른이 없어요.(실무자12)”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자금이 안정되어 공부가 힘든 친구들에게 기반을 마련해준 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공부를 기반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좋았다고 하니까.(실무자13)”

(3)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청년자활사업 참여자는 사회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시민적 권리를 누리며 또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현재 지원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사회적 투자라 할 수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자금이 안정되어 공부가 힘든 친구들에게 기반을 마련해준 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공부를 기반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좋았다고 하니까.(실무자13)”

“저는 청년사업단 자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청년들은 여기가 작은 사회거든요. 외동이 사회성이 떨어지다가도 친구들과 놀면서 배우거든요. 청년도 또래들과 지내는 걸로 사회성도 키우고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잖아요.(실무자4)”

7) 사업의 변화기대

(1) 청년을 위한 필요충분의 교육실행

청년참여자들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그리고 취업과 창업으로의 연결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매뉴얼이 되고 경로가 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면 이는 제도적 압박이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아니라 종착지로 여겨질 수 있다.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는 삶을 꽃피울 수 있는 청년이지만 현재 어두운 시기를 건너가고 있기에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감을 찾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들에게 교육은 실적을 위한 자격취득이기보다 성취감의 도구였다. 청년 개인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가능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교육의 기회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액 제한을 좀 완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학원 보내면 학원비도 많이 발생하는데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훈련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직업훈련까지 자활에서 해야 하는 건지. 저희가 가르침과 자격증을 활성화해서 자립시키는 게 목표인데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자격증까지 직업훈련이죠.(실무자16)”

“자활기업 대표님들이 와서 강의하는데 청년들 중에서도 나도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겨내고 지금 뭘 하고 있다, 성공 사례 이런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자이던 청년의 성공사례 강의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좀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실무자11)”

“요즘 직업과 트렌드를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역량이 되면 ai나 비대면 면접을 제가 준비시키기 어려우니까. 일반청년들이 받는 교육도 받아보고 싶어요. 요즘 어떤 걸 교육 받는지, 그걸 우리가 좀 바꿔서 알려줄 순 없는지. 실무자 대상취업특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실무자11)”

“청년사업단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교육, 인성교육, 직장인 예절교육, 자존감교육 같은 거를 차츰차츰 천천히 해야 해요. 이 분들은 느려요. 그래서 같은 말을 몇 번 해야 이해를 하거든요. 한 번 해서 들으면 여기 안 있죠.(실무자4)”

(2) 실무자의 안정적 사업 참여보장

사업운영의 성과는 실무자들의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며 잦은 이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실무자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보장을 위해 근무조건과 근무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사업지침서보다 운영매뉴얼로 인해 사업운영에 혼선이 생긴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현장 실무자와 소통이 없는 사업에 대한 전략은 청년 자립도전사업단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마다 운영방식이 너무 달라서 도움을 구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물어볼 곳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담당자가 바뀌는 걸 거예요.(실무자4)”

“개선해야 할 점은 사업단 내에서 취업형, 창업형으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김아람 대리님 계실 때 변경해보려고 했는데 어떠시냐고 한 적 있는데 그때는 안전망적인 걸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창업은 아니더라도 3년이라도 참여를 하면서 안전망으로 유지되는 게 필요한데, 취업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좀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할 것 같아요.(실무자13)”

“실무자들은 매뉴얼 관련 교육을 원해요. 제가 그냥 봐서 사업을 운영하지 매뉴얼 만든 사람 얘기를 듣지 못하고 사업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걸 원하지 지금 담당자 교육은 선호하지 않아요. (실무자14)”

(3) 상호연대를 통한 창의적인 활동

공통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은 광역단위 혹은 권역 단위로 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서 신규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실행되는 교육도 도움이 되지만 거리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실천될 수 있는 사업운영과 사례관리 등에 대한 사례발굴 전파로 상호학습이 되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원한다.

“사례에 집중된 평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취업이나 창업, 매출도 있지만 번외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자활의지나 사전사후나, 서비스 연계나. 그래서 예전 우수사례집이 참고를 많이 하기 좋았거든요.(실무자11)”

“좋은 사례나 모범 사례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봐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실무자로 자괴감이 들거든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되나 싶고 누가 와도 담당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실무자4)”

“팀워크를 위한 공식적인 사업이 생기면 좋겠어요. 비용은 사업비로 하지만 2회 이상 진행으로 넣으면 공식적으로 워크숍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단합력이 생기고 거기서 친구관계도 만들고 정말 좋거든요. 정서적 완화 프로그램으로 외부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애들이 진짜 친해지고 이탈율도 적어지고 서로 으쌰으쌰 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실무자10)”

(4) 사업단의 고유성 확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타 자활사업과 다른 이유는 명확하다. 이러한 고유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회적 인정을 위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청년사업단 만든 이유가 일반 자활과 다른 지원이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사업단과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실무자1)”

“인건비율 조정이 되면 좋겠고 셀프코칭 프로그램 책 주시는 게 내용이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수준도 너무 낮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외부활동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사업비용이 너무 작아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왕 하는 것 잘하고 싶은데.(실무자10)”

“3년 동안의 경험 중에서 제주도 워크숍으로 가장 많은 성과가 4박 5일 연수원 과정이었어요. 4번 정도 가면서 발표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고 다른 센터랑 교류도 하고 다른 업무 다 제끼고 청년들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고 싶어도 애들이 거기 나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 얘기하자고 불러요. 뭐 왜 저희만 차별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니까 센터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친구들이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풀더라고요.(실무자13)”



결론 및 제언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태조사 주요결과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실무자 FGI 주요결과
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선 방향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태조사 주요결과

1)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구조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이 인지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구조 및 내용의 적절성 수준은 ‘보통’과 ‘적절하다’의 사이 정도로 나타났다. 사업의 구조 및 내용의 세부 항목인 자격조건 및 선발기준(기초생계수급, 차상위), 선정대상(만18~39 자활근로 신규 및 2년 이내 참여), 지원기간(최대 3년), 참여 조건(1일 8시간, 주5일), 교육비 지원(개인당 22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내일키움통장) 참여, 인턴근로 참여(6개월단위 계약, 1회 3개월 연장 가능), 사업유형 구성(임파워먼트 I 형, 취업지원형, 창업준비형, 자활근로형) 중에는 참여 조건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상대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인턴근로참여 및 지원기간(최대3년)을 덜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원기간에 대한 낮은 적절성 인식은 참여자 대상 집단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의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3년 내에 취창업을 통해 탈수급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으로부터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먼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중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에서 약간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사례관리자들과의 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카드,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 장단기 자활계획수립과 같은 세부 항목 중에는 사례관리자들과의 상담과 장단기 자활계획 수립을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이 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이 인지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에서 약간 더 도움이 되는 정도로 나타났다. 동기부여교육, 취업준비교육, 취·창업 성공담 특강, 현장 탐방, 자격증 취득, 직업정보 탐색, 청년사업단 자조모임 등 역량강화 활동 세부 항목 중에는 자격증 취득이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으며, 취·창업 성공담 특강과 청년사업단 자조모임이 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참여자 특성 및 사업단 참여유형별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 세부활동이 다르게 나타나 개인별 역량, 욕구별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¹⁾

(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근로만족도 및 향후 참여 의향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일자리로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근로에 대한 만족감 수준은 보통에서 약간 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는 근무일수와 일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더 만족스럽다고 인식하지만, 급여수준에는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또한 급여 수준은 낮으나 일의 강도를 고려할 때는 가성비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자활사업의 특징을 또한 가짐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급여 수준과 일자의 강도를 고려하여 자활사업에 최대한 머무르거나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반영한다.

또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지속적인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참여 청년들은 가능하다면 계속 참여하겠다는 참여 의향을 나타내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임을 추정할 수 있다.

(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사업 참여 후 정서적 자활 및 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이 사업 참여 후 정서적 자활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청년도전사업단 참여 이후 정서적 자활의

1)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의 도움 정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직업카드,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 장단기 자활계획 수립, 참여기간별로는 장단기 자활계획수립, 참여유형별로는 사례관리자들과의 상담, SWOT 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 장단기 자활계획수립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역량강화 활동의 세부 활동 중에는 참여유형별로는 동기부여교육, 취업준비교육, 현장 탐방, 자격증 취득, 직업정보 탐색, 청년사업단 자조모임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 차원으로 ‘정서적으로 역량강화되고 현실적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고용희망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세부 차원별로는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부터의 동기부여’와 ‘목적지향’에 있어서의 변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 반면,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아 자신감, 효능감 회복을 위한 정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추정케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 및 취창업 등 고용에서의 장벽을 얼마나 극복했는지를 인적자본 관련 장벽, 건강 관련 장벽, 가족 관련 장벽, 통제력 관련 장벽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고용장벽 극복 수준은 다소 극복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하위 차원별로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을 극복한 정도를 가장 높게 인지한 반면, 건강 관련 장벽 극복 정도를 가장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교육훈련 등 청년의 역량강화라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목적을 반영한다. 실제로 사업 참여 청년들은 구직이 어려운 이유로 기술 부족 28.9%, 낮은 학력 9.6% 등 약 40%가 낮은 인적자본을 들어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실제로 인적자본 강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여 청년들에게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친구나 부모님과 적성 및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심을 가지는 직업/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진로 관련 구체적 목표를 세우거나, 진로 관련 목표 성취를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교재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 등의 진로준비행동을 이전보다 더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련 행동 수행 정도가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즉, 참여 청년들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서적 자활 정도 및 진로 관련 수행 정도가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며, 특히 동기부여와 목표지향, 인적자본 강화를 경험하며 진로와 관련한 행동을 이전보다 조금 더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무자 실태조사 결과

(1) 실무자 과업단계별 업무 수행빈도

임파워먼트 1단계 세부 과업단계별 업무 수행빈도를 실무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직업심리검사, ISP, IAP 등의 수립이 이루어지는 계획수립단계에서 업무 경력별

수행빈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청년자립도전 업무 경력 1년 이상 실무자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계획수립단계 업무를 더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규모별로는 임파워먼트1 모든 단계에서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순으로 수행빈도가 높았고, 지역 여건유형별로는 사정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순으로 수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2 단계에서는 모든 세부 과업단계에서 경력이 짧은 경우에 과업 수행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지역여건 유형별로는 종결 단계에서 유일하게 농촌형이 도농복합형보다 수행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참여자 실태조사에서 농촌형 참여자의 사업 만족도와 자립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결과와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 참여 대한 낮은 만족도, 불확실한 자립 계획은 참여자의 자립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조기종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의 높은 종결 빈도 역시 그로 인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으며, 농촌지역 청년참여자들의 자립목표 달성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수요 및 인프라가 한정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단 운영 및 개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실무자 과업단계별 업무 중요도

업무중요도의 경우, 임파워먼트 1단계에 비해 임파워먼트 2단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점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임파워먼트2의 모든 단계에서 실무자들은 4점에 가깝게 응답하였다. 이는, 본격적인 근로활동을 시작하는 임파워먼트 2단계에서의 밀착 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사업목표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 정도를 반영한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 실무자가 상대적으로 임파워먼트 2단계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역 유형별로는 도시형센터의 과업중요도가 도농복합형 및 농촌형센터에 비해 모든 단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 실무자 과업단계별 업무 과업 난이도

과업 단계별 난이도에 대한 실무자 응답결과, 임파워먼트1 단계에서는 사업일정 계획 및 사업 홍보 등의 과업을 포괄하는 사전준비단계 모든 특성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모집단계의 난이도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모집 단계와 같이 일반 자활근로사업단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 익숙한 업무의 경우 상대적

으로 쉽게 수행하고, 개인별 맞춤 계획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2 업무 단계별 업무 난이도는 각각 3.5(3점=“보통이다”)점 내외로, 임파워먼트 1단계 응답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조사에서 임파워먼트 2단계의 과업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결과와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과업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실제 업무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파워먼트 2단계 주요 과업인 근로활동 관리 및 점검, 평가, 종결계획 수립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력별로는, 1년 이상 청년자립도전 업무 경력자와 사회복지 관련 자격보유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종결단계를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규모별로는 종결단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 단계에서 기본형 센터가 업무의 난이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과업요소별 필요수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요소별 필요수준은 ‘조금 필요하다’(4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4.05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청년자립도전 참여자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서비스참여자 상담 방법과 사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취업자) 관리 전략과 사례’, ‘중도탈락자 관리 전략과 사례’ 필요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취업 및 중도탈락으로 인해 종결된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업무수행의 우선순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업무성과 목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포용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기타’의 영향정도가 4.1점(‘영향을 미침’)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보유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물리적 자원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실무자 교육 및 매뉴얼 개정을 통해 실무자 역할과 재량 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무자 특성별 분석결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포용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서비스 대상자에게 연계해줄 수 있는 지역자원의 부족함’,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항목에서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및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도농복합 및 농촌형 자활센터의 지역적 취약성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서비스 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추정할 수 있다.

(6) 실무자 차원에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위해 필요한 우선 개선사항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내용 중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참여유형(취업지원형, 창업준비형)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참여자 교육비 지원(개인별 교육비 3년간, 220만원 한도)과 지원기간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참여조건 및 선정대상, 참여자 자산형성 지원, 내일키움통장 가입, 내일키움장려금 기준적립 관련 항목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응답하였다.

참여유형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기존 인턴형·창업준비형·자활근로형 3개 유형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2021년 8월 매뉴얼 개정 이후 2개 유형(취업지원형, 창업준비형)으로 축소되면서 취·창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편된 것에서 기인한다. 보다 장기적인 자립계획과 교육훈련이 필요한 청년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참여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자립지원”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모형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사업 지원기간 개선과 관련해서는 참여자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존 자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기간 내 취·창업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실무자들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실무자 심층면접 결과 상대적으로 직능수준이 높고 잠재력이 높은 청년층의 자활사업에 대한 의존장기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사업기간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청년 개인의 욕구와 역량, 목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상의 유연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실무자 FGI 주요결과

1) 참여자 FGI 주요 결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기초수급가구원이거나 시설보호종료 이후 기초수급자가 되었거나 혹은 결혼 등 세대구성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초수급가구가 되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폐인처럼 지냈다는 청년,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

었다는 청년, 짧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대인관계였다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일이 변변치 않아 힘들었다는 청년, 부모 형제의 건강 문제 등 수급을 유지해야 가족이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절박함으로 인해 조건부과에 의한 사업 참여가 불가피했던 청년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청년들의 삶의 여정은 다양하지만, 이들은 자활사업을 통해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역량 개발과 부족했던 심리 정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나아가 시민적 권리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힘을 키워가야 한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시작되던 초기에는 청년의 특징, 그중에서 빈곤청년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들의 빈곤대물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업운영 형태도 기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달랐다. 이러한 방식은 기회이며, 청년들에게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성취감으로 남고, 사회관계자본을 넓혀가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빈곤이행과 지속이 빈곤대물림으로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는 탈빈곤에 대한 정합성 있는 사업운영이 요구된다.

2) 실무자 FGI 주요결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운영하는 실무자는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채용되어 사업을 운영한다. 실무자 스스로 청년사업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빈곤청년에 대한 관심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만 고용불안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직률도 높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삶이 그들의 활동과 역할로 인해 변화되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로부터 배제된 경험과 격차로 인한 불평등한 삶이 현재의 청년들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상담과 사례관리업무에 집중하면서 청년들 개개인의 가려진 가능성을 찾고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청년참여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개인에 따라 충분할 수도 있으며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길어 집에 따라 자활사업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운영하는 실무자는 사업수행 시 제도나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상으로 청년 참여자의 삶에 관여하며, 청년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를 희망하고, 이들의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변화를 시도하여 사업 운영상의 안정성 확보가 필

요하며, 나아가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개선 방향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의 다양한 수급형태를 반영한 통합적 자립역량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조사 응답자의 수급형태는 조건부수급자 비율이 약 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1/3은 일반수급(15.3%), 차상위(9.5%), 자활특례(7.5%)로 구성된다. 이러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의 수급 특성은 지역자활센터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조건부 수급 청년의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지원’사업이 아닌 ‘포괄적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저소득 청년 대상 자립지원’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필요성을 시사한다. 빈곤 수급 가정에서 청년기를 보내온 청년이 독립적인 성인기에 진입하기까지를 이행기의 청년기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빈곤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찾는 것 외에도 정서적·심리적 그리고 역량 측면에서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청년 고용정책과 달리,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 청년들의 고용장벽(심리적·정서적 문제, 가족문제, 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금융, 주거, 일자리, 교육기회 등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연계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면서, 취약청년들의 자립계획을 수립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욕구와 역량에 따른 정서적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 강화, 관계망 형성, 취·창업지원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자립역량 향상과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이 원하는 자립방향과 참여 사업단 유형 간의 정합성 필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이 원하는 자립방향은 취업 67%, 창업 13.4%, 모름 5.8%로 대부분 취업을 원하고 있다. 반면 참여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창업지원형 41%, 자활근로형 26.7%, 취업지원형 19.6%, 임파워먼트형 12.7%로 창업지원형에의 참여가 가장 많고 취업지원형에의 참여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즉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67%는 취업을 원하는 데 비해 취업지원형 사업 참여 청년의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3%인데 비해 창업지원형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율은 40%로, 본 연구는 참여 청년들이 원하는 자립방향과 참여사업 내용 간에 부정합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용없는 성장, 노동시장 유연화, 코로나 19의 발발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일반 노동시장에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활사업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활기업 중심의 취업 혹은 창업은 청년이 원하는 자립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내에서는 청년 임파워먼트를 향상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청년들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하여 나아가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년들의 욕구를 보다 반영하여 사업유형 비중, 개인별 자립계획수립 및 역량강화활동이 재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3) 취약계층 청년 맞춤형 사업 매뉴얼 방향 제시 필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초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의 자활사업과 달리 운영하고자 하는 민-관의 의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기존 자활사업단과는 달리, 사업단의 매출, 탈수급률 등을 실적으로 사업을 평가하지 않고, 참여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을 질적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업무 매뉴얼 최초 배포 (이하 ‘기존 매뉴얼’)이후, 2021년 8월 업무 매뉴얼 개정판이 배포 (이하 ‘개정 매뉴얼’) 됨에 따라 기존 자활사업단에게 적용했던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 교육훈련, 구직활동에 따른 자활급여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그동안 자활현장에서 청년취약 계층들이 기존 자활사업단 유입을 꺼려했던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3〉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메뉴얼 주요변경 내용

연번	구 분	변경 전 (기존 메뉴얼)	변경 후 (개정 메뉴얼)
1	사업 목표	① 근로 및 탈빈곤의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 및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② 지속적인 상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자들 간의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성 회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① , ② 동일 -추가 ③ 개인별 자활역량에 따라 대상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위기계층 빈곤예방·자립기회 제공
※ 개인별 자활역량을 강조하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였음.			
2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	없음	- 추가 취·창업 성공시 지역자활사업지원비에서 취·창업 성공수당 지원가능
3	사업단 모형 (임파워Ⅱ)	임파워먼트Ⅰ (6개월)+Ⅱ (2년6개월) - Ⅱ단계를 인턴형·창업준비형·자활근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10,13쪽) - 인턴형: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일반기업 등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력 및 노하우 축적 - 창업준비형: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내 매출활동을 통하여 자활기업창업을 준비(일반적인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 준용) - 자활근로형: 기존 예비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정되어 해당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을 창업할 때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공동창업 준비	Ⅱ 단계에서 자활근로형 삭제 - 취업지원형과 창업준비형만 있음 (자활근로형이 없어지고, 인턴형은 취업준비형으로 변경) - 취업지원형:(예비)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일반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지차에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직업진로 탐색, 직무역량 향상, 직장생활 적응력 향상, 직업경력 축적 - 창업준비형: 청년사업단 내에서 매출활동을 통하여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 (일반적인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 준용)
※ 자활근로형이 삭제되고, 취업과 창업으로 변경. * 실태조사 결과 청년 참여자들의 욕구에 맞는 모형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 담당자의 부담으로 작동 될 수 있음. *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필요함.			

연번	구 분	변경 전 (기존 매뉴얼)	변경 후 (개정 매뉴얼)
4	사업 모형 (인턴)	인턴활동은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 6개월 계약 + 12개월 연장(고용확약)	인턴활동은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 - 6개월 계약 + 3개월 연장(고용확약) (단 채용을 전제할 경우 최대12개월)
		* 누적기간 12개월을 초과하여 최근에 인턴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파기 불가	
5	교육훈련 (자격증)	임파워먼트 I 단계: 역량강화활동실행(자격증 취득준비) 임파워먼트 II 단계: 청년자립활동단계(자격증 고도화) - 3개월(자격증 시험일정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하며, 최대 1년 추가 연장 가능, 단 3개월 이후 근로와 병행) - 근로인정: 1일, 8시간(학원교육, 센터 내 자습등)	임파워먼트 I 기간에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근로와 병행해야 함(코로나 19로 인한 시험연기 등)에 한 해 지자체와 사전협의하여 취득일정 연기가능, 개인사유 불가) - 참여조건(주 5일 8시간 자활근로)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사업단 이외의 장소(학원 등)를 활용해야 할 경우 자활근로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외출, 조퇴 처리하고 급여 미지급처리.
		* II 단계에서 교육을 수강하고 있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교육을 받고 있거나, IAP 수립 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교육(예, 간호조무사 등)을 계획한 경우 인적자본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함. 특히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능력점수가 80점 미만이고, 정서·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에서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6	교육훈련 (자활급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외부 교육기관(학원 등) 수강을 자활근로로 인정 - 수강시간을 자활근로로 인정 (자활급여 有)	I, II 단계 구분 없이 외부교육*은 자활근로활동으로 불인정 (42쪽) - 불가피하게 수강할 경우 해당 시간은 자활급여 미지급(외출·조퇴)
		* 1) 희망하는 (자격증)교육과정이 다양하고 수강 인원이 적어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센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학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이 불가피 2) 이미 수강 중인 대상자가 다수 있어서 급여 미지급 시 상당한 혼란이 발생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훈련 참여 시 구직촉진 수당(50만원x6개월)이 지급되므로 교육훈련이 필요한 대상자는 청년자립도전사업 참여 기회가 예상됨	
		없음	개인별 취업처 발굴을 위한 구직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불인정 - 자활급여 미지급
7	구직활동 (자활급여)	*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을 나가는 경우, 자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이 발생함. 2) 센터가 임의로 구직활동 시간을 행정적으로 조치(결석·외출·조퇴)하지 않고 비공식 처리함으로써 규정 불이행 만연(조장) 3)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는 예방될 것임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 중 사업 종료 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 매뉴얼을 적용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자격증 취득, 외부기관 연계, 기술교육훈련과정을 자활근로기간에 실시할 경우, 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활급여 삭감을 전제로 취업 준비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부정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매뉴얼을 폐지하거나, 운영하더라도 모범 사례, 운영 프로그램 사례 등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4) 청년 욕구가 고려된 취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단 발굴 및 수요처 발굴 필요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근로 업종은 카페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편의점(판매) 6.5%, 음식점 5.8%, 제과제빵 5.2%, 공방목공가죽 4.3%, 행정사무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근로에 있어서 카페 업종에의 쏠림현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의 근로 업종은 청소, 폐자원재활용 등 과거 자활 전국 5대 표준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 참여자들의 희망 취·창업 산업이 다양한 점, 그리고 참여자들의 취업역량 격차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립 의욕 확립 차원의 단순 직무와 취업의지 확립 차원의 새로운 일자리로 구분하여 일자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참여자들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에서 이동하여, 지식산업(클라우드 워크)이나 친환경, 탄소중립 일자리 등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다소 낮은 참여자들은 근로역량을 키워,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취업,인턴 혹은 기업탐방 연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사업 재구성 필요

성별, 참여사업(임파워먼트,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자활근로형 등)에 따라 세부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사업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형은 개인별 자립계획수립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창업지원형 및 자활근로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세부 활동별 전반적으로 사례관리자들과

의 상담 및 장단기 자활계획수립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창업지원형과 자활근로형은 직업심리검사의 도움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활동의 경우에도 참여사업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형은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창업지원형 및 자활근로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역량강화 활동의 세부활동 별로는 전반적으로 자격증 취득과 동기부여 활동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현장탐방, 자조모임에 대한 도움 정도는 낮게 인식하였다. 참여유형별로 임파워먼트형은 동기부여교육 및 취업준비교육을, 취업지원형 및 창업지원형은 직업정보 탐색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참여하는 사업유형별로 도움이 되는 세부활동을 다르게 인식하는 이러한 결과는 참여 단계 및 사업 유형별로 공통사업과 차별되는 사업을 구별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임파워먼트 단계에서는 동기부여교육과 취업준비교육에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욕구와 역량을 고려하여 창업지원형, 취업지원형, 자활근로형으로 배치된 이후에는 자격증취득 및 직업정보탐색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현장탐방은 창업지원형만, 특강은 취업지원형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사업 수행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6) 정서적 역량강화 필요

경제적 자활을 위한 중요한 과정적 성취인 정서적 자활(고용희망)의 하위 차원 중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은 사업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²⁾.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식’은 자기효능감, 자신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서적 역량강화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는 현재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참여 청년들의 인적자본 강화를 통한 취창업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참여자들의 정서적 역량강화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 간의 정적 관계가 이미 자활사업 참여자들 간에 검증된 연구 결과(Hong et al., 2018; 최상미, 2019b)로부터 추정할 수 있듯이 참여 청년들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적 독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역량강화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이에 참여 청년들의 정서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공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2) 정서적 자활을 의미하는 고용희망은 ‘1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매우 그러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희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고용희망의 하위차원 별 참여자들이 변화를 경험한 정도는 각각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54점,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79점, ‘목적지향’ 3.76점, ‘기술과 자원 활용’ 3.67점으로 나타났다.

7)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적극지원 필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청년 중 77.8%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격증 취득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역량강화 활동)의 세부사업인 동기부여교육, 취업준비교육, 취·창업 성공담 특강, 현장탐방, 자격증 취득, 직업정보 탐색, 자조모임 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년들은 현재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술 부족 28.9%’, ‘내가 원하는 일자리 부족 12.8%’, ‘낮은 학력 9.6%’, ‘가족돌봄 8.6%’, ‘건강 7.0%’ 등을 응답한 반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고용장벽 극복 중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극복’을 3.39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즉 청년들은 ‘직업기술 및 학력 부족 등 인적자본 부족’을 자신의 가장 큰 고용 장벽으로 인지하는 한편,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고용장벽 극복 중 ‘인적자본 부족 극복’을 경험한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청년이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부사업 중 자격증 취득을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청년자립 도전 사업단의 경우 ‘청년’ 중심 사업단으로서 참여자들이 인적자본 강화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실제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참여자의 인적자본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내에서 참여 초기 6개월로 정해져 있는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훈련 기간을 늘리거나 초기 6개월이 아닌 사업 제공 과정 내에서 기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8) 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빈곤청년 자립지원 정책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체계의 역할이 명료해져야 할 것이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사업성과를 취합하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진단, 자문단구성 등 체계적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통해 사업안착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사업 컨트롤 타워

3) 고용장벽 극복에 대한 인지는 ‘1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매우 그러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 정도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극복 경험’이 3.39점, ‘가족 관련 장벽 극복’ 3.13점,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극복’ 3.09점, ‘건강 관련 장벽 극복’ 3.03점 순으로 나타났다.

로써, 전국 수행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환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광역자활센터는 지역에 맞는 청년자립도전 사업 운영을 위해, 광역단위의 사업수행 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광역 지역 내 연계 협력을 통한 공통 자립계획 수립 교육, 기업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타 부처 청년지원기관들과의 광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취업처, 창업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유입되는 청년들의 역량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이고 유동적으로 배치하여, 단계별 프로그램 설계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임파워먼트 1단계에서 청년들이 자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지지를 지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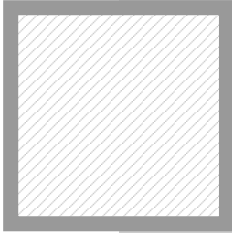
9)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 처우 개선 및 인력 보충

2022년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내 사업 실무자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사업담당자의 경우 사례관리, 교육, 취업처 발굴, 사업단 운영, 제반 행정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분석 결과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 참여자별 개인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하여 실무자가 맞춤형으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실무자 실태조사에서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서 참여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4.54점)이라 꼽은 만큼, 실무자는 청년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는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낮은 급여(연 최대 4,000만원 이내/급여·제수당, 퇴직적립금 등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포함)으로 되어 있어 이직률이 높아 사업의 연속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취약계층 청년 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안정적 고용과 업무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임금산정이 재편 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무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 대상자들은 교육훈련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 지원, 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이러한 지원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전문 역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무자들이 해당 전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 (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 최상미. 2019. 근로 빈곤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 관련 장벽: 청년 고용장벽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31-56.
- 최상미, 고가영. 2019.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구직자의 고용장벽 탐색과 한국형 고용장벽 척도 개발. 사회복지연구, 50(2), 29-52
- Hong, P. Y. P., Choi, S., & Key, W.(2018). Psychological Self- Sufficiency: A Bottom-Up Theory of Change in Workforce Development. Social Work Research. 42(1), 22-32.
- Hong, P. Y. P, Polanin, J. R., Key, W., & Choi, S.(2014).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 Measuring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6), 689-706.



부 록

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설문조사지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 설문조사지

5. 귀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언제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년 월

5.1. 참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미 종결하신 경우 종결 일자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 2021년 월

6. 귀하가 현재 참여 중인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받는 월평균 급여는 얼마입니까?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로 답해 주십시오. 이미 종결하였거나 참여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으면 급여를 월평균으로 계산해서 써 주십시오.

■ 월평균 만원

7. 귀하가 청년자립도전단 참여하기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다.	그랬다.	매우 그랬다.
1) 나는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좋았다.	1	2	3	4	5
2) 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1	2	3	4	5
3) 나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라도 일단 취업하는 것이 좋았다.	1	2	3	4	5
4) 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1	2	3	4	5
5) 나는 취업관련행사나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1	2	3	4	5
6) 나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보탬이 된다면 취업하려고 했다.	1	2	3	4	5
7)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일단 취직하려고 했다.	1	2	3	4	5
8) 나는 제시된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취업하려고 했다.	1	2	3	4	5
9) 나는 일자리(직장) 교통편이 불편하더라도 우선 취업하려고 했다.	1	2	3	4	5
10) 나는 만원월급이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8. 귀하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지난 2021년 1월 1일~9월 30일까지 지각, 조퇴, 무단결근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① 없다 ⇨ 다음장으로 ② 있다 ⇨ 8.1번으로

8.1 지난 2021년 1월 1일 - 9월 30일까지 조퇴는 몇 시간 하셨습니다?

조퇴 시간

8.2 지난 2021년 1월 1일 - 9월 30일까지 지각은 몇 시간 하셨습니다?

지각 시간

8.3 지난 2021년 1월 1일 - 9월 30일까지 무단결근은 몇 시간 하셨습니다?

무단결근 일

II.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만족도

1. 귀하가 청년 자립도전단 지원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요.

항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 자격 조건 및 선발 기준	1	2	3	4	5
2) 선정대상(만 18~39세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2년 이내)	1	2	3	4	5
3) 지원기간(최대 3년)	1	2	3	4	5
4) 참여조건(1일 8시간, 주 5일 참여)	1	2	3	4	5
5) 참여자 교육비 지원(개인별 교육비 3년간, 220만원 한도)	1	2	3	4	5
6) 참여자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가입, 내일키움 장려금 기준 적립)	1	2	3	4	5
7) 참여자 인턴근로(인턴십 6개월 단위 계약, 1회 한에 추가인턴 3개월 연장)	1	2	3	4	5
8) 참여 유형(취·창업지원형, 창업준비형)/취·창업지원형, 창업준비형, 자활근로형)	1	2	3	4	5

2. 귀하가 청년자립도전단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해주시요.

항 목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나의 어려움, 힘들음을 사례관리자들과 상담	1	2	3	4	5
2)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직업선호도, 구직준비도, 적성검사	1	2	3	4	5
3) 직업카드를 활용한 직업가치, 직업선호 파악	1	2	3	4	5
4) SWOT 자기분석을 통한 취·창업 전략수립	1	2	3	4	5
5) 장·단기 자립계획(목표) 수립	1	2	3	4	5

3. 귀하가 청년자립도전단 역량강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해주시요.

항 목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동기부여교육(자존감향상 교육, 인간관계훈련, 리더십, 이미지 메이킹)	1	2	3	4	5
2) 취업준비교육(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1	2	3	4	5
3) 취·창업 성공담 특강 등을 통한 성공전략 탐색	1	2	3	4	5
4) 현장(관심 있는 직업들의 현장) 탐방	1	2	3	4	5
5) 자격증(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1	2	3	4	5
6) 직업정보(취·창업과 관련 직업, 직무, 기업 등의 정보) 탐색	1	2	3	4	5
7) 청년사업단 자조모임	1	2	3	4	5

4. 2021년 기준, 귀하가 참여 중인/참여했던 청년자립도전단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임파워먼트 (ILAP, IRP 수립, 역량강화활동단계) ⇨ 6번으로
 ② 취업지원형(인턴활동/인턴형) ⇨ 41번으로
 ③ 창업지원형(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 ⇨ 41번으로
 ④ 자활근로형(기존자활근로사업단 참여 및 기타예비자활기업 참여) ⇨ 41번으로

41)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기업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자활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③ 협동조합
 ④ 일반기업
 ⑤ 공공기관/공기업/지자체(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복지센터)
 ⑥ 협회
 ⑦ 자활근로사업단

5. 귀하가 청년자립도전단에서의 참여중인 일자리에 대해서 평가해주시시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주시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급여수준이 적당하다	1	2	3	4	5
2) 근무일수가 적당하다	1	2	3	4	5
3) 근무시간이 적당하다	1	2	3	4	5
4) 일의 강도가 적당하다	1	2	3	4	5
5)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참여 중인 일자리에 만족한다	1	2	3	4	5

6. 귀하는 앞으로도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참여하겠다
 ② 가능하다면 계속 참여하겠다
 ③ 원하는 다른 자활사업이 생길 때까지 참여하겠다
 ④ 그만두고 싶지만 어떤 수 없다
 ⑤ 정말 그만두고 싶다

7. 현재 귀하가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부터 순서대로 3가지를 써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참가하는 동안 수입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렵다
 ② 참가하는 동안 집안일(육아, 가족의 병간호 등)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③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자활사업을 하는 곳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니기가 힘들다
 ④ 사업단 내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⑤ 일의 내용이 어렵다
 ⑥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 ㉗ 자활센터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㉘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㉙ 건강(또는 장애)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㉚ 음주 및 정신질환 문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㉛ 친구들과 어울리는(노는) 시간 때문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㉜ 인터넷, 게임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
 ㉝ 기타()

III. 개인적, 사회적 차원 변화

1.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에 귀하 혹은 귀하를 포함한 가족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니까?

- 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 1-1번으로 ⑥ 지금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다 ⇨ 1-1번으로
 ②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③ 지금보다 조금 힘들어질 것이다 ⇨ 1-2번으로 ⑦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 ⇨ 1-2번으로

1-1)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늘어서 ⑧ 자녀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늘어서
 ② 자녀로 인한 지출(교육비 등)이 줄어서 ⑨ 의료비가 줄어서
 ③ 국가의 도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으로 ⑩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④ 친척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아서 ⑪ 부채나 신용불량 상태가 해결되어서
 ⑤ 본인 또는 가구원의 건강이 좋아져서 ⑫ 사회적협(민간보합)이 있어서
 ⑬ 기타()

1-2)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하거나 버는 돈이 줄어서 ⑭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서
 ② 자녀로 인한 지출(교육비 등)이 늘어서 ⑮ 의료비가 늘어서
 ③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서 ⑯ 본인 또는 가구원의 건강이 나빠져서(장애, 음주 등 포함)
 ④ 친척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서 ⑰ 부채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⑤ 사회적협(민간보합)이 없어서 ⑱ 기타()

2. 귀하에게 있어서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중간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본 사업은 취업 혹은 창업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배울 수 있다	1	2	3	4	5
2) 본 사업 참여를 통해서 내가 취업 혹은 창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본 사업은 현재 내가 직면한 어려움(신용불량, 부채 등)이 해결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1	2	3	4	5
4) 본 사업은 내 가족(전원) 중 누군가가 일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1	2	3	4	5
5) 다른 일에 비해 본 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힘들다	1	2	3	4	5
6) 본 사업은 나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이다	1	2	3	4	5

7) 내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기 위해서다	1	2	3	4	5
8)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금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1	2	3	4	5
9) 본 사업 참여가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지급 조건이 아니라면 나는 다른 일을 할 것이다	1	2	3	4	5
10) 본 사업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참여한다	1	2	3	4	5
11) 본 사업은 현재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1	2	3	4	5
12) 본 사업은 내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다	1	2	3	4	5
13) 본 사업을 다른 사람 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1	2	3	4	5

3 다음은 청년자립도전사업 참여 후 개인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청년자립도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고용장벽	1) 우리가족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이 나아졌다.	1	2	3	4	5
	2) 교육, 직업선택에 대한 정보가 늘어났다.	1	2	3	4	5
	3)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교육 자원이 늘어났다	1	2	3	4	5
	4) 직업관련 경력이 생겼다	1	2	3	4	5
	5) 중동구여, 과도한 저축 등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1	2	3	4	5
	6) 화들 갈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1	2	3	4	5
	7) 술을 갈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1	2	3	4	5
	8) SNS, 동영상 시청 등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지나친 인터넷 사용이 줄었다	1	2	3	4	5
	9)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한 게임에의 지나친 몰입이 감소했다	1	2	3	4	5
	10) 부모나 친연적의 보호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11) 가족, 친연적 간의 분화 및 단결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12) 지지해주는 사람 혹은 환경이 늘어났다.	1	2	3	4	5
	13) 내가 원하는 것과 가족, 친연적 기대가 비슷해졌다.	1	2	3	4	5
	14)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가 나아졌다.	1	2	3	4	5
	15) 스트레스, 외상, 우울함,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나아졌다.	1	2	3	4	5

청년자립도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 진로행동	1) 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책, 인터넷 사이트 등)를 찾아본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직업 또는 진로와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교재 및 기재를 구입한다.	1	2	3	4	5

청년자립도전단사업에 참여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 고용희망	1) 나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일하거나 직장을 찾을 때,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일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잘한다.	1	2	3	4	5
	7) 나는 미래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8)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미래에 내 직업으로부터 얻을 성취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1	2	3	4	5
	10)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1	2	3	4	5
	11) 나는 나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위한 길 위에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내 삶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1	2	3	4	5
	13) 나는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재정적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성취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1	2	3	4	5
	14)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내가 관점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기 위해 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IV. 향후 진로

1. 귀하의 1년 뒤의 예상 진로에 대해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순위 항목	2순위 항목	3순위 항목
① 자립사업 참여 유지	③ 취업	⑤ 상급학교 진학
⑥ 개인 사업 및 창업	④ 군입대	⑦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⑧ 권업학(학생연 경우)
		⑨ 기타

2. 향후 자립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① 취업 ② 창업 ③ 아직 계획 없음 ④ 기타

3. 귀하가 계획하시는 취업, 창업 등의 자립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⑤ 가능성의 거의 없다

4. 귀하는 향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② 2-3년 미만
 ③ 3-4년 미만 ④ 4-5년 미만
 ⑤ 5년 이상

V. 근로 및 구직 경험

1. 귀하는 현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이외에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아니오 ➡ 2번 문항으로 ② 예 ➡ 1-1)번 으로

1-1)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청년자립도전사업이 서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 ①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도움이 된다

2.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일자리)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3번 문항으로 ② 있다 ➡ 2-1) 번으로

2-1) 일자리를 구하십니까?

- ①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있다 ② 일자리를 구했으나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
③ 구하지 못해 계속 찾고 있다 ④ 구하지 못했고 지금은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다

2-2) 희망 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규칙적인 전일제 근무 ② 규칙적인 시간제 근무 ③ 출퇴근이 자유로운 근무
④ 소규모의 가게운영(자영업) ⑤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음 ⑥ 기타(적을 것: _____)

2-3) 희망 하는 임금이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_____만원

2-4) 일자리를 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마땅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② 학력이 낮다
③ 나이가 많다 ④ 어떤 작장이 있는지 취업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⑤ 일을 하는 동안 집안일, 육아, 노부모 돌봄, 장애인 가족 돌봄 등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
⑥ 건강이 좋지 않다 ⑦ 일을 쉬었던 기간이 길어서 어렵다.
⑧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와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르다.
⑨ 기타

3. 귀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에 참여기간 동안 훈련과정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무엇입니까? : _____)

4. 귀하가 새롭게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 직종, 청년자립도전단 참여 기간 취득여부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순서대로 3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한 자격증 등급 (* 보기1)	취득한 자격증 직종 (*보기2)	청년자립도전단 참여 기간 중 취득 여부	
1순위			① 참여 중 취득	② 미참여 중 취득
2순위			① 참여 중 취득	② 미참여 중 취득
3순위			① 참여 중 취득	② 미참여 중 취득

보기1	취득한 자격종 등급	① 1급	② 2급	③ 급수 없는 자격종
보기2	취득한 자격종 직종	① 사회복지사 ② 심리상담 ③ 공예 ④ 사회복지사, 가정복지사 ⑤ 안전관리	⑥ 바리스타/커피 ⑦ 매장관리, 경리수납 ⑧ 마케터 ⑨ 이미지용사 ⑩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⑪ 컴퓨터 자격 ⑫ 기능사 ⑬ 어학 ⑭ 간호조무사 ⑮ 운전면허 ⑯ 세무회계 ⑰ 반려동물 ⑱ 안전관리

5. 귀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자격종을 취득하기 위해 걸린 기간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격종 취득과정 및 교육시간: 개월

A. 참여자 특성

A.1 성별	① 남 ② 여	A.3 가구주 여부	귀하는 가구주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2 출생년월	년 A2.1 월 A2.2	A.5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 *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을 모두 체크하십시오 (복수응답)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습니까? ① 예 ⇨ A5.1로 이동 ② 아니오 ⇨ A.6 으로 이동		
A.4 혼인상태	① 미혼 ⑤ 이혼 ② 기혼 ⑥ 사실혼관계 ③ 별거 (동거) ④ 사별 ⑦ 기타 (적용 것:)		A5.1	동거 인출	동거합
A.6 학력(졸업기준)	① 무학 ⑤ 대학(4년제) ② 초등학교 ⑥ 대학교(4년제) ③ 중학교 ⑦ 대학원 이상 ④ 고등학교	A.8 종교유무	① 있음 ② 없음		
A.7 장애유무 및 장애 등급	① 비장애(장애 없음) ② 경증(4~6급) ③ 중증(1~3급) ④ 비등록 장애인	A.9 자격증 보유	① 자격증 없음 ② 자격증 1개 있음 ③ 자격증 2개 있음 ④ 자격증 3개 이상 보유		

A5-1 동거인출/동거합 박스에 각각 체크 받고, 동거인 보기 중 모두 체크하도록 함

〈부록-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실무자 실태조사 설문지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청년자립도전단 설문조사 (실무자용)

ID-

안녕하십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본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설문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설문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예정이며, 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응답해 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전체 의견이 취합되어 통계적인 자료만 활용되며,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에도 활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21. 10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연구담당: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고은새연구원(02-3415-6933)

· 조사담당: 한국갤럽 연구7본부 박현애연구원(02-3702-2176)

1.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질문

1.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대상자 발굴의 주요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참여자 직접방문 ③ 지자체 의뢰 ⑤ 타(유관)기관 의뢰 ⑦ 센터 홍보
② 주변인 추천 ④ 기관 내 의뢰 ⑥ 기타(적용 것: _____)

2. 청년자립도전단 사업 담당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수행 빈도: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 일인지에 대해 1(거의 수행하지 않음)~5(주3회 이상 거의 매일 수행함) 수준으로 응답

-중요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1(전혀 중요하지 않음)~5(매우 중요함) 수준으로 응답

-난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1(매우 쉬움)~5(매우 어려움) 수준으로 응답

구분	수행 빈도		중요도		난이도	
의미	해당 직무내용을 수행하는 횟수		해당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의 수준	
척도	1	거의 수행하지 않음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매우 쉬움
	2	년 1-4회 정도 수행함	2	별로 중요하지 않음	2	약간 쉬움
	3	월 1-3회 정도 수행함	3	보통임	3	보통임
	4	주 1-2회 정도 수행함	4	어느 정도 중요함	4	약간 어려움
	5	주 3회 이상 거의 매일 수행함	5	매우 중요함	5	매우 어려움



※ A. [임파워먼트 1] 직무와 관련된 과업의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도에 대해 답해주세요.

과업	과업요소	빈도					중요도					난이도				
		거의 안함 ↔ 거의 매일					안 중요 ↔ 중요					쉬움 ↔ 어려움				
A1 사전 준비 단계	1) 역량강화 단계에서 진행할 활동 기획 및 전체 사업 일정구상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지역 내, 청년활동을 전개할 기관 등 연계기관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홍보 진행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외부연계기관 또는 기업, 조력자 등에 대한 연계 진행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센터 내 청년자립도전단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A2 모집 단계	1) 읍면동 등 의뢰자 접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초기면접 실시 (초기 면접기록지 작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사업 참여 여부 결정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필요시 지자체 내부 조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A3 사정 단계	1) 참여자 욕구조사(자활사정지 활용)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도구를 활용한 참여자 권면적인 상황 검사(사전평권담당관리자 평가용)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보조센터와 연계한 전문력 검사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필요시 외부자원 연계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A4 계획 수립단계	1) 대상자들에게 워크넷을 통한 직업심리검사 안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직업심리 검사 실시 및 상담하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직업카드 활용, SWOT 기법을 통한 자기 분석 진행 운영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참여자 IAP, ISP 수립 지원하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A5 역량강화 단계	1)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및 운영(외부강사 섭외, 대상자 관리 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현장탐방 기업 섭외 및 탐방 진행 (사전준비-평가진행)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자격증 취득 관련 행정업무 수행 (정보과, 교육비 지원,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격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직업정보탐색 및 취·창업 지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사업단 운영위원회 운영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금융 및 경제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7)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지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8)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 B. [임파워먼트 2] 직무와 관련된 과업의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도에 대해 답해주세요.

과업	과업요소	수행 빈도					중요도					난이도				
		거의 안함 ↔ 거의 매일					안 중요 ↔ 중요					쉬움 ↔ 어려움				
B1 자립활동 단계	1) 청년 참여자별 근로활동유형 결정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취업지원형 운영을 위한 업체 및 기관 발굴 및 업무협약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청년참여자와 업체 사전교육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장업지원형 청년사업단 매출활동 관리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취업지원형 인턴 근로 참여에 대한 결과 관리(교육 및 근무기록 확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근로활동 1년마다 중간점검 및 수시점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B2 평가단계	1) 참여자 성장추이 확인(사전-중간-종결) 단계별 측정과 최종평가 비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수행기관 지원, 활동, 산출물 평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B3 종결단계	1) 종료자/중단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결과 종합 점검 및 모니터링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청년사업단 참여 종결 여부 결정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종결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청년사업단 종료탈락자에 대한 방안 마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자립목표 미달성자 재배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B4 사후관리	1) 참여자 근로 활동 모니터링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각종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참여자 고충 및 민원 응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 C. [문서작성 및 평가] 직무와 관련된 과업의 수행 빈도, 중요도, 난이도에 대해 답해주세요.

과업요소	수행 빈도					중요도					난이도				
	거의 안함 ↔ 거의 매일					안 중요 ↔ 중요					쉬움 ↔ 어려움				
1) 사업단 업무 관련 공문 접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반기별 사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연말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기본면접지, 자활사정지, 참여자 성장추이 점검서식, 상담일지 등 사업수행시에 작성하는 모든 문서에 대한 정리 및 보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출예산에 대한 지출결의 및 증빙자료 관리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수행 및 지자체 개발원 요청사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II. 업무매뉴얼 개발과 관련된 질문

3. 청년자립도전단 사업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와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유수준			필요수준		
의미	현재 내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며 활용하고 있는 정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것이 요구되는 정도		
척도	1	보유가 매우 부족함	1	매우 불필요	
	2	보유가 부족한 편임	2	약간 불필요	
	3	보통	3	보통	
	4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음	4	조금 필요	
	5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5	매우 필요	

과업 요소	현재 보유수준					필요수준				
	매우부족←매우충분					매우불필요←매우필요				
1) 청년자립도전 참여자들의 특성 이해	1	2	3	4	5	1	2	3	4	5
2) 취업지원형 업체 발굴·의뢰 절차와 방법	1	2	3	4	5	1	2	3	4	5
3) 서비스참여자 상담 방법과 사례	1	2	3	4	5	1	2	3	4	5
4) 취업적성평가 절차와 방법	1	2	3	4	5	1	2	3	4	5
5)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수립 지원 절차와 방법	1	2	3	4	5	1	2	3	4	5
6) 상담내역 및 행정조치 내역 기록방법과 사례	1	2	3	4	5	1	2	3	4	5
7) 참여자에 지원 및 연계할 정보와 정책 이해	1	2	3	4	5	1	2	3	4	5
8) 참여자 취·창업 활동 진행상황 관리 절차와 방법	1	2	3	4	5	1	2	3	4	5
9) 대상자 취업(소득, 고용유지 등) 확인 절차와 방법	1	2	3	4	5	1	2	3	4	5
10) 탈수급자(취업자) 관리 전략과 사례	1	2	3	4	5	1	2	3	4	5
11) 미달성자 관리 전략과 사례	1	2	3	4	5	1	2	3	4	5
12) 중도탈락자 관리 전략과 사례	1	2	3	4	5	1	2	3	4	5
13) 주요 업무실적 및 자료 기록 및 관리 방법과 사례	1	2	3	4	5	1	2	3	4	5

4. 기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위한 업무매뉴얼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등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III. 업무효율화 관련 질문

5. 다음은 귀하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영향요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권해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매우 영향을 미침				
1)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업무성과 목표	1	2	3	4	5
2) 소속된 기관과 구성원의 나의 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력 수준	1	2	3	4	5
3) 지자체와 복지부가 기대하는 업무 수준의 상이함	1	2	3	4	5
4)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포용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1	2	3	4	5
5) 서비스대상자에게 연계해 줄 수 있는 지역자원의 부족함	1	2	3	4	5
6)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1	2	3	4	5
7) 행정업무 처리 권한(보고 및 결재 등)	1	2	3	4	5
8) 기타(적을 것: _____)	1	2	3	4	5

6.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효율적 운영(관리)을 위하여 참여자는 몇 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_____명

7. 2021년 9월 30일 기준 2021년(2021.1.1~2021.9.30.)청년자립도전단 사업 참여자들 현황에 대해 작성해주시시오.

종류 (전체 참여자)	진행중			종결			자립목표 미달성		
	임파워먼트 1 (IAP, ISP 수립,역량강화 활동단계)	취업지원형 (인턴활동/ 인턴형)	창업지원형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	자립목표 달성 종결 취업	자립목표 달성 종결 창업	지역자활 센터 일반사업단 배치	상급학교 진학	사업기초 만료*	개인사유 자발적 참여중단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사업기초 만료: 조건부 이행, 기간만료, 대상자 취소, 사업단 종결

* 종결: 진행중, 종결, 자립목표 미달성 현황 전체 포함

9. 2021년 9월 30일 기준, 2021년(2021.1.1~2021.9.30.)청년자립도전단 사업 참여자 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에 대해 작성해주시시오.

돌봄지원	심리정서지원	금융복지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선행성 지원	기타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8. 청년 자립도전단 사업 내용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 항목을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자격 조건 및 선발 기준
- ② 선정대상(만 18~39세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2년 이내)
- ③ 지원기간(최대 3년)
- ④ 참여조건(1일 8시간, 주 5일 참여)
- ⑤ 참여자 교육비 지원(개인별 교육비 3년간, 220만원 한도)
- ⑥ 참여자 자선행성지원(내일키움통장 가입, 내일키움 장려금 기준 적립)
- ⑦ 참여자 인턴근로(인턴십 6개월 단위 계약, 1회 한에 추가인턴 3개월 연장)
- ⑧ 참여 유형(취업지원형, 창업준비형)

10.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IV. 통계처리를 위한 인적사항 관련 문항

문.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문.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문.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_____입니다.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에 언제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

문. 귀하가 청년자립도전단 사업담당자로 일하기 이전, 관련 업무 수행 경력 기간은 총 얼마나 되십니까?

약 _____년 _____개월

문. 다음 중 귀하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직업상담사 자격 보유
 ② 직업상담 업무 경력 보유
 ③ 구인처 발굴 및 알선 업무 경력 보유
 ④ 권산관련 자격 보유
 ⑤ 사회복지 관련 경력 보유
 ⑥ 고용센터 재직 경험 보유
 ⑦ 지자체 재직 경험 보유
 ⑧ 민간 기업재직 경험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